朝鮮日報
夕刊 三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참기름
京城西本町
東亞製油所

翁源、山家鎭一帶 敵軍主力完全潰滅

敵遺棄屍體만 一萬五千

【廣東二日發同盟】南支派遣軍二日正午發表

一、敵의 冬季攻勢에 對하여 敢行한 我反擊作戰은 極히 有利하게 進展되어 我精銳諸兵團은 所在의 敵을 擊滅하면서 前進 旬日이 넘지안허 敵의本據 翁源 山家鎭 英德附近의 各要衝을 殲滅하여 余漢謀軍主力에 徹底的打擊을 주엇다

二、이제 軍은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여 我第一線 地區에서는 悠悠히 敵을 볼수업게 되엇스므로 敵을 反轉하여 我周圍內에서 四離滅裂狀態에 잇는 多數 敗殘部隊를 捕捉掃蕩하려고잇다

三、老獪한 敵은 自己의敗退를 隱蔽하려고 이가튼我軍의自守的 態勢補備를 恰似我軍을擊退한것과가치 虛僞의 宣傳을 하는것을 常套手段으로하고잇스나 皇軍精銳아래 全히潰滅된事實은 이미分明히 表明되엇슬뿐더러 今次我軍의 奇襲은 當初發表한것과가치 地方과都邑의占領이 아니라 抗戰을敢行하는敵軍隊의 殲滅에잇스므로 敵이다시 敗兵을모아 蠢動한다면 時와 場所를不問하고 此種作戰을 反復할것이다

四、一月一日까지에 判明된 戰果의槪要는 如左하다

가、交戰한 敵兵力約十萬

나、確認한 敵遺棄死體一萬五千

다、捕虜約二千

라、鹵獲品의 主要한것은 迫擊砲八 重機二〇 輕機九五、高射機關銃三 小銃二千六百、小銃彈藥九百萬發 爲始 各種銃砲彈을 合하여 約一千三百萬發에 達하여 敵이 一個年을 費하여 四苦八苦 가지手段을 다하여 集積한것을 一擧에 鹵獲하엿다 이리하여 敵의抗戰力에 준打擊은 莫大하다

贛江、南潯線沿岸 敵軍을一齊總攻擊

【南昌二日發同盟】冬季攻勢에全面的 敗滅을 當한 江西의敵은 贛江沿岸及 南潯鐵路沿線에出沒 遊擊戰術에 轉하엿스므로 我軍은元日을期하여 이에 一齊掃滅戰을 開始하엿다 即上田、辻、岩崎、田中、增田各部隊는 一日午前九時南昌、奉新中間의西山山嶺에서 蠢動하는 百八師及 豫備第九師에 對하여 南側으로부터 進擊하고 知覽、加藤、橋本、岩本、野村各精銳는本側山麓으로부터 包圍陣을 縮少하고잇다 그리고 古賀、根岸 杉原各部隊는 三十一日深更行動을開始 贛江을下江 杉舍(南昌北方三十키로)附近의 敵을 一日朝來 擊破하고 一方 南潯鐵路沿線에서策動하는 豫備第五師에對하여 門脇 鷹森 三池新銳部隊는 一日 一齊히 攻擊을 加하고잇다 이리하여 新春의 기쁨을 戰野에서 마지한 各部隊將兵의士氣는 正히 衝天의 勢를보여 到處에서 殘敵을 擊滅中이다

北中南支戰況

【上海二日發同盟】(艦隊報道部二日午後三時發表)

北支方面戰況

一、北支方面各航空部隊는 一昨三十一日 午前、午後二回에 亘하여 山東半島中部 蒙山苗家灣下馬庄及 田家庄等에依據한 敵密集部隊를猛爆하여 이에 甚大한損害를주엇다

二、同日 다른航空部隊는山東半島北部黃縣東南의 敵衛石良集에 ……

中支方面戰況

一、湖北地區에서 陸軍部隊에協力한 海軍航空部隊는 一昨三十一日 襄陽周邊의 陶家林 大官橋張道港及 黃油等의 敵軍事施設을爆擊 이에大打擊을주엇다

二、昨日海軍航空部隊는 湘潭(湖南省)을急襲 同地飛行場及 同附屬建物에 全彈을퍼부어 이에多大한 損害를주엇다

三、我江上艦艇은 지난三十日彭澤(江西省)의 東方馬路口方面에서 移動中의 敵集團約一千을 砲擊 이를 敗走시켯다 또 三十一日 湖北省東北巴河流域巴水縣附近 敵根據點을 砲擊하여 陸軍部隊의 戰鬪에協力하엿다

南支方面戰況

一、海東航空部隊는 三十一日及一日兩日에 賓陽南方의 昆侖關及思龍司의 敵砲、機銃陣地를爆碎하고 또思龍司附近에서 移動中의 敵五百을 銃擊하고 馬灣洞에서도敵戰車群을爆擊 이를擱坐시키는等 多大한 戰果를거두엇다

二、지난三十日柳州上空에서 敵殲滅한戰果를거둔 海軍航空部隊는 更히敵空軍을 殲滅하려고 一齊히 三十一日未明大擧하여 柳州飛行場을 奇襲 敵의 防禦砲火를 무릅쓰고 城內各處를 散敵히爆擊 地上機五機를 爆破하고 附屬建物五個所를 炎燒케하고 全機無事歸還하엿다

三、지난三十日 敵唯一의軍需補給鐵道沿線을攻擊한 海軍航空部隊는 昨一日午後다시 大編隊로써 蒙自로부터 佛印國境에이르는 滇越線의 橋梁線路數個所를爆擊 이에多大한 損害를주엇다

麻城北部大別山中 敵部隊를猛爆

【漢口二日發同盟】某松部隊는 元日에 京漢線 東方麻城北部大別山中에서 約一千五百의 敵部隊가 移動하는것을 發見하고 猛烈한爆擊을 加하여 多大한打擊을주엇다

戰爭을斷念하라

헐米國務長官聲明

【華盛頓一日發同盟】헐米國務長官은 一日「米國은 世界의 各國이 武力에 依한 政策을 斷念하고 平和를 希望하여 努力하기를 希望한다」고 前例가업는 新年聲明을 發表하여 各方面의 注目을 끌엇는데 要旨는 如左하다

一九四〇年을 마지하여 余가 衷心으로 希望하는바는 各國民이 武力的 政策을 斷念하고 平和의 大道를 向하여 나아가는것이다 各國民이 萬若 戰爭을 停止하고 平和를 求한다면 그 求하는것은 얼을것이다 이리하여 平和가 再來하면 米國은 米國自身의 利益을 爲하여 積極的으로 가진 그 影響力을 發揮하여 堅實한 世界新秩序建設에 努力할 必要를 느끼게 될것이다 그것은 그러케 하지안흐면 …… 社會不安을 …… 世界는 再次戰火에 ……

緬甸國防長官 飛機로重慶訪問

【新嘉坡三十一日發同盟】外電에依하면 英領緬甸國防長官「모아」氏는 緬甸支那間의 通信問題協議次 三十日重慶에 飛行機로 訪問하엿다

山西에和平運動

周俊傑將軍晋南和平同盟結成

【太原三日發同盟】事變以來晋南某處에 蟄居하여 蔣介石의 焦土抗戰을 미워하고 오로지 和平의날을 기다리고잇던 元山西軍中將 周俊傑將軍은 和平救國運動이야말로 中國을 救하는唯一의 길이라고 確信하고 和平救國을 希望하는 山西軍同僚에의 密議는 家庭的事情으로하여 躊躇하고잇는 將兵들의 相談役이되어 하로빨리 明朗新中國 建設에 協力하려는熱意에서 紀元二千六百年의元旦을期하여 運城에 晋南和平同盟을 結成하여 盛大한 發會式을擧行 積極的으로 山西軍에呼訴하여 救國運動에 邁進하기로되엇다 同將軍은 晋南의 解州出生으로 事變前까지 山西軍砲兵司令의 要職에잇던사람으로 今年五十一歲인데 그의 蹶起는 山西軍에 多大한衝動을 주리라하여 注目되고잇다

照國丸船員等 紐育에入港

【紐育一日發同盟】戰亂의 歐洲로부터 故國으로 向하는 郵船白山丸은 照國丸船員六十九名外 乘客一千餘를 태우고 一日午後四時紐育에入港하엿다 그런데照國丸의 松倉船長은 一日日本으로向하여 照國丸遭難狀況을放送키로되엇다

日蘇漁業暫定協定

一日、莫斯科서調印

【莫斯科一日發同盟】東鄕大使와 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과의 間에 交涉中이던 日蘇漁業 暫定協定은 一日午前六時(日本時間)正式調印하엿다 右는現行 漁業協定期限을 다시 一個年間 延長할것을 約定한것인데 本條約은 兩國間의 折衝을 기다려 今年中에締結하기로되엇다

【東京電話同盟】日蘇漁業條約暫定協定은 三十一日夜 莫斯科에서東鄕大使와 모로토프蘇聯外務人民委員과의 間에無事히 調印을 完了하엿스므로外務省情報部는 二日午後一時四十分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日蘇間 漁業暫定協定은 昭和十四年十二月三十一日 午後十一時(莫斯科時間)署名을 마추엇다

北鐵割賦金問題解決 滿蘇友好에好影響

【新京二日發同盟】滿蘇兩國間의 重大懸案의 하나로서 過去二十個月에 亘하여 係爭中이던 北鐵讓渡後 最終割賦金 支拂問題에 關하여는 同債務의保證國인 日本政府가 斡旋하여 莫斯科에서 東鄕 모로토프兩者間에 商議를 거듭한結果 遂히三十一日에이르러 日蘇漁業條約暫定協定과 併行하여 割賦金支拂에 關한大綱에 圓滿妥結을 보앗다 本問題는 昨年三月二十三日 期限으로 滿洲國政府로부터 蘇聯政府에 支拂할 割賦金六百萬圓에 對하여 滿洲國側이 北鐵債務의 履行을條件으로 異議를 提出한데서 兩國間에 係爭을 惹起한것이엇는데 今番蘇聯政府가 北鐵의債務 百三十萬圓의支拂을 承認하여 右北鐵代償割賦金에서 控除함에 用意가 잇게되어 圓滿妥結을 보게 된것으로서 兩國關係의 改善에 寄與하는바 多大하며 兩國互讓妥協의 精神에 依하여 多年間의 懸案을 一擧에 解決하게된것은 國境紛爭問題及日蘇間의 漁業條約 長期本協定交涉에 잇서서도 好影響을 줄것으로 期待된다 따라서 北鐵代償金最終割賦金支拂問題에 關한 諒解도 成立되엇다

北鐵代償金問題 近近細目交涉開始

【新京二日發同盟】北鐵代償金最終割賦金問題는 滿蘇三十一日東鄕、모로토프會談結果 大綱에關하여 意見이 一致되엇스므로滿蘇兩國政府는 滿洲國이 支拂할 相殺殘額의支拂 業務와 物資에 依한 支拂分의配定等에 關하여 近近細目交涉을 開始하리로 會議開催地는 東京又는 哈爾濱에서 決定되게될것이다

翁源河頭一帶서 敵二千을殲滅

【廣東二日發同盟】翁源에 進入한 我上田部隊는 西方으로 轉하여 惡路를突破, 三十一日未明英德方面으로부터 退却中의 敵第百八十七師 百五十八師約二千名을 背後로부터 急襲大打擊을 주엇다 敵은 不意의 衝擊에屍體一千餘를 遺棄, 北江上流及西岸地區로 潰走하엿다 上田部隊는 다시 翁源上의 河頭(英德北方十키로)의 鐵橋를 爆破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는 同時에 同地附近에 遺棄된 敵의 軍需品을 押收하여 翁源河頭를 中心으로 抵抗을試하는 敵第六十五軍에 打擊을주엇다

社說

金剛靈峰의 火災

景勝保全에萬全을期하라

一

朝鮮의자랑이요 世界의靈峰金剛山은 그保勝施設이 업는바아니지만 時局의影響關係인지 再昨年以來 重石盜掘黨의 侵入으로 因하여 그名勝的價値에 損傷이 적지아니하엿섯는데 警察當局의 緊欠檢擧에도 不拘하고 워낙 山鑛가 巨大하고 謀利不正輩의 跋扈的盜掘인 만치 그根絕을 보지못하엿다 지난섣달그믐날 이盜掘黨의 失火로 因하여 外金剛一帶에 山火가 일어낫고 때마침 速度四十米秒以上 暴風이 襲來하여 水晶 玉女 觀音連峰等의 天然林은 一瞬間에 烏有에 돌아가고 말엇다, 뿐만아니라 古寺와 名刹의 灰燼化한것이며 人命의 死傷도 不少하다는것은 本報가 이미 累次號外로써 天下에 周知케 한바와 갓거니와 吾人은 이機會에 다시금 所見의 一端을 말하여 靈峰의 保全에 萬全을 期코저하는바이다.

二

古代支那人이『願生高麗國、一見金剛山』이라고 詩를 읊펏다는것은 人口에膾炙된바이다 또 우리 先人들이 金剛의 靈域을 보고 文으로 詩로 咏嘆한것도 汗牛充棟이다, 이로조차보아도 金剛山은 歷史的으로 靈地인것이 틀림이 업는事實이다 現代에 잇서서도 아무리눈이무딘 凡俗人이라도 한번 金剛靈域에 거름을 드리여노흐면 그 滂湃雄偉한 自然과 奇絕妙絕한 山水의 景勝에 恍惚難測한 인스피레숀을 느끼지안는사람이 업다, 더욱이 이 山水間에 介在한 名勝古蹟과 斧鉞不入의天然林은 筆舌로 그릴수업는 美觀을 이루어서 발人길을멈추고 絕讚을 連發케하는것이다. 그러므로 未來의 永劫까지도 人間性에 觀賞感이잇는以上 金剛靈域은 依然 그價値를 保存하고 잇슬것이 틀림업는 事實이다. 要는 다만 現代人에게 賦課된 任務 即 이 靈域을 保全하고 景勝을 美化하는 任務가 잇슬뿐이다.

三

從來에 任務를 遂行할 責任機關으로 總督府內에 金剛山協會가 잇다. 그래서 이協會에서는 探勝道修築 森林保護 景勝保全等 事業을 行하여 왓스나 그러나 이番과가튼 祝融의 禍를 未然에 防止할만한 施設은 하나도 업던것이다 그럼으로 이番의 山火를 契機로하여서 防火帶의 設置 防火區의設定 盜掘團의 徹底掃蕩等은 勿論 其他 保勝全般에 關한 萬全의策을 樹立하고 實施措置를 講究하여서 後悔를 千古에 남기는일이 업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가튼 事業遂行에는 莫大한經費가 必要하겟거니와 國家의 補助 鐵道局과 金剛電鐵等의 寄附로 基金을 編成한다면 可能할것이요 또 이와 가치하면 每年의 經常費를 支出하는 方途도 열리게될것이다. 이와가튼 方法으로 金剛靈峰의 永久保全에 完璧을 期하여야할것이다

元日御朝夕에 兩陛下、野戰料理

戰線將兵의勞苦를軫念

【東京電話同盟】興亞의 皇道宣揚에 一路邁進하는 新春 擧國欣仰에 震發하옵시는 一層기픈 元日을 大本營에서 마지하옵신 天皇陛下께옵서는 皇后陛下와함께 第一線將兵의 勞苦를 軫念하사 將兵과함께 新春을 迎하옵시는 惶悚하옵신 吟味로 御祝膳을 奉始하사 元日의御三食에 各戰線의 野戰料理를 잡수옵섯다고 拜承된다 이野戰料理는 年年中에 糧秣本廠으로부터 戰線으로보낸 正月料理와 가튼것으로 昨年元旦의 御晩餐에도 兩陛下께옵서는 野戰食을 잡수옵시며 新春을 祝하옵섯는데 今年도 亦是 元日御時의 御儀를 마치옵신後의 兩陛下 御同座의 御祝膳은 興亞奉公日의 精神에 順應하옵서 興亞奉公日第一日인 元日은 特히 御中止하옵시고 朝夕 御三食에 걸치사 蒙疆滿洲北中南支各戰線의 料理를 잡수옵시어 將兵과 다가치祝하옵시고 將兵을 祝하옵심은 惶恐無極한바이다

農工併進政策의再檢討

農工併進政策의將來果如何

【下】 李勳求

東亞의 情勢와 經濟上諸觀點에서 昭和十年을 時期로 하여서 朝鮮의 産業政策은 變更을加치 아니하면 아니되게 된것은 前述한바와갓거니와 때마침 昭和十一年에 宇垣總督이 掛冠歸東하매 現南總督이 그뒤를 밟어서 朝鮮의 政治에 君臨하게되엇다. 南總督은 『鮮滿一如』政策으로 大陸에 對한 偉大한 抱負를 가지고 實現途中에서 朝鮮에 온지라 『內鮮一體』의 政綱을가지고『鮮滿一如』에로 그 理想을 實現하려는 觀點에서 朝鮮의産業政策을 樹立치 아니치못하엿슬것이다. 그런데 內地를 등에 지고 滿洲와 北支를 眼下에 보면서 朝鮮의 使命을 檢討할때에 前日에 區區한 見地에서 內地生産商品의 獨占市場으로서 또는 低廉한 原料의 供給地로서 朝鮮을보고 農業偏重의 産業政策은 時代가 이미 지나갓고 또朝鮮을 外地로보고 同化니 融化니하는것은 너무도 微溫的인嫌이 잇는것이다. 그러므로 産業上에도 內鮮一體를具現化하기 爲하여서는 朝鮮에도 工業의振興에 均等한 機會를 賦與하여야할것이요 더욱이 大陸經營의 軍略上으로 보아도 朝鮮이 兵站基地로서 各種의 重工業을 勃興시킬 必要가 잇는것이다. 그러나 反面에 잇서서 從來에 取하여온 農漁政策을 一朝에 抛棄하기는 困難한 點도 잇고 또 住民의 多大數가 農業으로 生을 營爲하는이 만치 農業을 忽諸에 附할수 업는 事情도 잇는지라、於是乎『農工併進』의 産業政策을 樹立하기에 이른 것이요 一面으로 農業의 振興을 圖하는同時에 他一面에 잇서서는 勃興氣運이 旺盛한 工業을 助長發達 시키어서 農業과 工業이 併行的으로 發展케하자는것이다.

이와가튼 政策下에 工業은 可驚할 速度로 躍進에 躍進을 거듭하엿다. 只今이곳에서 昭和十一年以來 工業振興의具體的事象을 數字나 圖表로써 提示할수가 업는것을 遺憾으로 여기거니와 前述한바의相對的數字의 說明만 가지고라도 大體의 輪廓은 넉넉히알수가 잇슬것이다. 더욱이 昭和十二年 支那事變發生以來所謂 軍需工業도 飛躍的 進出을보앗스니 十三年度와 十四年度의工業總生産額은 實로괄目할만치 進展이 잇섯슬것으로 짐작하여 조곰도 틀림이 업슬것이다. 이와가튼 工業化의 途程에서 新計畫 新事態로 世人의 耳目을 놀래는것은 京仁一帶의 工業地區計劃 咸南一帶及 淸津羅南一帶 工業地區計畫 平南一帶의工業地區計畫을爲始하여鴨綠江、漢江兩江의 水電計畫 大小港灣의 新設及改築計畫鐵道의支線計畫等等의發表와實現될것이다.

以上에서 論議하여본바와가치 朝鮮의 工業은 農工併進의 大理想政策下에 바야흐로 搖籃期에 들어섯다. 上記한바와가튼 諸計畫이 完全히 實現되는 그날에는 農業朝鮮은 完全히 工業朝鮮으로 換骨脫胎가 될것이오 따라서 洋洋한 前途는 工業의 企業者에게 約束하여노여잇는것이다. 이곳에서 한가지말할것은 內地에서 潮水처럼 건너오는 資本에 朝鮮의 土着資本이 成長과 發展이 併進平行할것이냐 또는 萎縮退嬰하겟느냐하는것인데 元來 土着資本은資本의 蓄積에 잇서서 弱少하기짝이 업고 또 企業의 經營과 技術에 잇서서 幼稚한 面이다。 그러므로 土着資本의 取할 길은 堅實하고 沈着하여서 모든 努力과 奮鬪를다하지 아니하면 안될것이다. 더욱히 大勢의 所在를 明察하고 機會의 捕捉을 잘하여야할것이다. 어째던 過去三四年으로 將來七八年乃至 十餘年間은 朝鮮産業의 劃時期的轉換期에處하여잇고 工業上資本主義는 本格的으로 그 進行을 볼것이다. 그리고 進行中의 支那事變은 處理後에 朝鮮産業 特히 農工業에 至大한 影響을 가저올것이 틀림업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銃後에잇는 産業關係者는 忍苦鍛鍊 全力을 新東亞의 建設에 傾注하여야 할것은 두말할 必要가 업는바이다. 그리하여야만『農工併進』의 大理想이 完全한 結實을어들것으로 보인다.(完)

特別會計豫算

九日閣議서決定豫定

【東京電話同盟】明年度各特別會計概算은 三十一日 計數整理를 完了 新春四日의 初閣議에 附議決定할 豫定이던바 深更에 이르러도 計數整理가 終了되지못하엿스므로 定例閣議에 附議치못하고 九日定例閣議에나 附議決定하게될터이다

各戰線의新年

【徐州一日發同盟】入城後두번째의 新春을 特히 紀元二千六百年의 意義기픈 新春을마지한徐州의 居留民一同은 이날午前九時부터 總領事館廣場에 集合하여 東方을 向하여皇居遙拜式을 擧行하고 萬歲를奉唱하여 聖壽의 無窮을 奉祝한다음 十一時부터 軍官民參集 互禮會를 開催하고 事變下第四年을마지한 感激을 새로히 하엿다

【開封一日發同盟】最前線開封占領後 第二回째의 新春이 왓다 敵의 開封奪回의 逆宣傳과 冬季攻勢를 一蹴하고 新春과 함께 滿心倍加한 開封駐屯○○部隊에서는 一日午前十時부터 嚴肅한 遙拜式을 擧行하엿다 또 恒常日本軍과協力하여 河南治安工作에 全力을 바치고잇는 ○○綏靖委員會 和平救國軍은 ○○基地에서 新春祝賀式을擧行 日本의武運長久를 祈願하엿다 一方我各機關小學校等에서도 各各午前十時부터 十一時까지에 遙拜式을 擧行하엿는데 特히今年은 紀元二千六百年이란 意義기픈해이며 新秩序體制下의 가장 重大한마음을 必要로하는 最前線인만큼 遙拜式은 特히 嚴肅하고 莊重하게 擧行되엇다

【濟南一日發同盟】皇紀二千六百年新春을마지한 濟南에서는 午前八時三十分 먼저 靑年團百名이 忠靈碑前에 集合하여 國旗揭揚式을擧行 大日章旗를 新春靑空에노피揭揚하고 이어서 同盟會館에서는 民團主催의 市民奉祝式이 始作되엇다 參列한數千居留民은 感激의 聲도 놉히 「君ケ代」를齊唱 皇室의 彌榮과 帝國의 發展을 衷心으로祈禱하고 萬歲三唱 一方總領事館에서는 午前十一時부터 御眞影拜賀式을 擧行 館員들은 同時拜賀를 하고 正午부터는 同館會나와 公私民團主催의 新年互禮會가 開催되엇다 參列居留民은 二千餘로 躍進濟南의 形姿를 이에새롭게 하고 一同希望에빗나는 皇紀二千六百年의 新春을 祝福하엿다

人事·集會

▲七田一郞氏(陸軍中將)人事次三日來社

▲南部熊氏(陸軍大佐)人事次三日來社

▲酒井竹雄氏(總督府圖書課長)五日午前八時三十分京城驛着列車로 家族同伴着任豫定

▲洪秉德氏(元山基督教靑年會總務) 新任人事次二日來社

▲金光洙氏(本社社員)三日午前零時半京城孔德町五六番地의四號에서 別世 葬禮는五日 天主教墓地서 擧行

八面鋒

阿部首相、新年劈頭에『旣定方針의 遂行』의 決意披瀝。

◇政黨의 反政府運動으로 政局이 左右되든 時代는 旣去。

◇國家總力戰下 政治의 要諦는 事變處理를 中心으로 內外相剋, 摩擦除去에 잇슬뿐。

◇再開議會後의 政局動向이 注目되나 滅私奉公으로 國威宣揚에 努力하라。

◇日米通商問題、日蘇漁業問題가 好轉의 曙光이 보이는 이때 집안이 시끄러워서는 창피한 일。

◇正初에 瑞雪이 나리다、大事 逆境에 견되어 福을 내리소서。

今日의本紙附錄內容

〃歐洲新秩序未來觀〃(附錄其十一二面)特輯

運動特輯(同二、三面)

〃大陸進出은 平坦한가〃(同其十二面)特輯

〃戰爭과 物資〃(同二面)特輯

〃庚辰年의 새課題〃(同其十三一面)特輯

七道旱害現地報告(同二面)同

〃武士道精神〃(同其十四一面)

映畫演劇座談會(同二、三面)特輯

今日本紙附錄合二十面

京城府鍾路二丁目八四番
絹織物商
金井商會
電話光化門③(二一二八番/二九三九番)
振替口座 京城三一九二六番
電略(コウカモンヒシキ又八(금정))

京城府鍾路四丁目十一番地
麥粉素麵都賣散賣商
明光商會
主 洪命吉
電光③三三五八番

京城府鍾路四丁目三十一番地
織物商 大陸貿易公司
電光③(一八四番/三七二六番)

京城府鍾路三丁目四七
東邦砂金開發會社
京城支店

株式會社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自動車及諸機械用スプリング製作
本社 京城府黃金町二丁目六六 電話本局② 三四四四番 振替口座京城二三五四〇番
工場 京城府敦慶町七九 電話光化門③ 三九一七番

貴金屬卸賣商
貴金屬美術品 クサリロンピ細工品 各種雜貨化粧品一切 直製造 都賣元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十八番地
昌成商會
主 文萬基
振替京城一二五九七番 電略(ショウ)又八(금)

金銀都賣
天日堂
京城府和泉町一九五
電話光化門③八九九番
振替口座京城一八四番

礦油、塗料、工業藥品
大同商會
主 姜志炯
京城黃金町三ノ二四五
電本 六九五七番

朝鮮織物商同盟會
壽南商會 金泰
廣澤商會 許
金熙俊商店 金熙
廣昌商會 趙
東順德 崔善
鮮滿綢緞會社 黃
邊相昊商店 邊清
德昌號 申相
東一商會 吳德
第一商會 崔重
朴承稷商店 朴相
錦成商會 朴承
興一社 李承
泰昌織物株式會社 白賢
東亞織物販賣株式會社 樂
和信商會織物部 趙
仁昌商會 崔俊
元昌商會 尹仁
永順福 金宇
泰興商事株式會社 金仁
豐商會 尹丙
內外織物株式會社 孫熙
金鳳商會 文熙 金聖鳳
(熙澤俊用楠河昊鉉燮憓稷鳳在承 鎬 成植基益泰豊允天)

株式會社 朝鮮鐵工所
代表取締役 姜佐休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江商ビル)
電話本局②〇八六三/七八三六/七三六六番

京城府敦義町
朝鮮料理 明月館
電話光化門 六 三一八六 六五六 〇〇八 三九二四 番

米穀需給强力統制로 春窮期에도 圓滑期待

需給日報作成코 實績을 調査

식량수급을 원활히하고자 총독부농림국에서는 작년십이월이십일일에 미곡배급조정령(米穀配給調整令)을 공포하고 그중앙제공급(需給供出)과 참고, 장부등을검사하는배급조정에관한관계조항을 중요시하고 다시 정조납을 공정하여 물건이 만히나오도록 힘있는대책을세우고 각도에는 다시 도내미곡수급조절기관으로 배급기관을두어 한해월도에 모자라는 쌀을 추작지인 서북각도배급기관에서 정조로사두었다가 총독부의 지시에따라 절량도로써어 공급하여 유무상통하는 방책을 세웠다 한편 농무국에서는 연말년시임에불구하고 대소비도시의 일하상황을 어떻게조사하여 날마다 수급일보(需給日報)를만들어 수급실적을 조사하고있는데 원활중에 종원하는오백명의 경제경찰을 다배치하였는데는 다시 미곡상, 소매상까지를 전부 조사하여 느저도 삼월까지에는 조정령에 의한 면허제(免許制)가 실현될모양이다 이와가치 배급조정령의 실시를기회로 미곡수급책에 관하여 소판국인농림국과취체국인 경무국과의 공동작전은 일층긴밀하야가고있스므로 춘궁기(春窮期)에도 원활한수급을 기대할수있을것이다

숭도 처음보는 큰불이엇다

細民層食糧確保

正初休暇에도經營活動奉仕

쌀값계단지하는 새해에도쌀의 배급의 원활에대해서는 자못걱정되엇섯는데 경기도에서는 정초에 쌀에비가 적은계급으로 하여금 쌀걱정을 하게해서는 안되겟다 하여 판정시무를 개시하기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내 각 경찰서 경제계를 독려하여 이일부터 쌀시정 소매상에대한쌀 배급과 소방배정을 시작하게 하엿다 이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연일쌀시정 소매상이 몰려와연초의 한가로운맛이 업서진 반면에 세민들의 가정에서는 그티쌀걱정을 느끼지안코 설을지내게되엇는데 경제경찰의 이가튼봉사는 참으로찬양할만하다

산에잇는젊이기 때문에참으로 무서웟다 모두수검을 무릅쓰고 쏟가지에 물을 무처서번 저들어오는 불을자꾸꺼젓다 그러고 하면으로 집웅에올라가서 독파바가지로 물을끼려올리다가하꺼피부엇다그리던차에 바람이 다른쪽으로돌려가서 절은 타지아케되고 우리도 다죽을번 하다가 근근히 살아나게된것이다 친집여세노

不定期急行 釜山安東間運轉 七日부터七日間

철도국에서는 정월 초생에래왕객이 만흘것을생각하고 오는 칠일부터 십삼일까지는 부산안동(安東)사이에 팔일부터 십삼일까지에는 안동 부산사이에부정기급행렬차를운전하기로되엇다

鐵原野談漫談大會 本社支局後援으로開催

【鐵原】 시외 서목도리청년단(西鷲面靑年團)에서는 새해를 마지하자 일반주민을 위안할목적으로 본사철원지국(鐵原支局)의 후원으로 오는사, 오양일량일야에일 오후일곱시부터 철원공동소학교(京東小學校)대강당에서 야담과만담대회(野談漫談大會)를열기로되엇다는데 연사는 현대의 야담가로 궁지하는 윤백남(尹白南)씨와 만담가의 인기를 독차지하고있는 신불출(申不出)씨의 두분이라고한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樺太南部에잇고 高氣壓은 支那內陸으로부터 滿鮮을거처 漸次로 本邦에 퍼지고잇스나 黃海方面은氣壓配置가 不安定하여 仁川黃海에는 弱한低氣壓이發生하엿다 全朝鮮은 大槪개엿스나 西鮮은흐려서 京仁地方은 눈이오고잇다 滿洲一帶는 개이고 南方은 雲模不定이고 北地方以北은 눈이오는곳이만코 朝鮮의氣溫은 平年에比해서 一度乃至五度 또는 國境中部는 九度가량놉다

豫報 오늘밤은 흐렷다 때때로개이며 내일은개엿다 때때로흐리겟다

昨日最高 二度七 昨日最低 零下七度一 今朝最低 零下七度 同正午 零下三度二

▲一月四日(木曜日)陰十一月二十五日▲干支—丙午▲日出—午前七時四八分▲日南中—午後零時三八分▲日入—午後五時二八分▲晝間—九時三九分▲月出—午前二時二一分▲月入—午後二時三分▲滿潮—午前—午後零時二〇分

X光線完備 大京齒科醫院 京城鍾路三丁目 電話光(3)三〇二〇番

深山孤庵死守

女僧들의九死一生譚

외금강산人봉이지석된뒤 불빛속에서 괴어난 무용당(武勇堂)은 연덥아 드러나고있다 신계사의 만세루천정에 불이부튼것을 용감히활동하여 검서네 신계사감사승려 김원민(金元敏)씨는 당시의광경을 다음과가치 이야기한다

바로 상신일밤이엇는데 신계사학원과 요사(寮舍)가 타버리고 본당도 위기에빠의 지경에 잇섯스며 우리승려들도 어디로 피란할도업는 경우이엇다 그때도 모두 불길는 기구와 쏟가지에 물을적시어서 활동하고잇섯다 주지김응섭(金應燮)스님이 만세루에불이 부텃다고 소리를질르기에 집웅을 처다보니 연기가나고 잇다 아무리보아도 불이친정안으로 들어갈수업이 업는데 이상하게도 천정속에서 집웅우으로 연기가나므로 천정판자하개를 뚤코 사다리를걸치노코 그안으로 기어들어갓다 소방수로 물을지꾸품고 다시 손으로 휘휘둘러서 긁거내엇다 정신업시 자꾸물을 이리저리 뿌렷더니 마침내 불이 지식되엇다 겨우숨을 돌리키게된것이다 아마불똥이 석가래구멍사히로 날러들어간것갓기도하엿스나 이상하붓이엇다

▽—△

또 문수암여승방 어승들도뭄렌가슴을 아직도 진정하지못한 표정으로 이러케 서로 이야기한다

기픈 산속곰의딴곳이고 바로

四男妹버리고再嫁한 어머니에自殺로抗拒

十六歲少年이九歲의누이애기를업고 元日兼二浦서鐵道에投身

【兼二浦】 자식보다 남편을 중히역이는 어머니는 추검으로영원이 떠나는것이 우리사남매의 갈길이다 하는 한마디를남기고 달리어가는 기차에달려들어 무참히도 죽은 사남매의 자살극이 초하룻날 느지저녁에 겸이포(兼二浦)에 생기엇다 자살한 소년 장진순(張鎭淳)(一六)은 겸이포욱정(旭町)에서 살며 일직이 부친을 사별하고 진관(鎭寬)(一三)과 동생과 진옥(鎭玉)(九)이란 누이동생을 다리고 어머니슬하에 그날그날을 지내던중 어머니이화선(李花仙)(三八)이가 마저 어린사남매를 버리고 출가하여버리자 갈곳업는사남매는 황야의 기로에선 고아가 되어 버리고말앗다 그러나어진 진순은사람은 산다하는 구든결심으로 당지제철소소사로 취직을하게되엇다 그러나 자기월급으로는 세동생의 학비는 고사하고그날그날 먹는것조차 부족하얏다 그리하여 다시 보지안켓다고 맹세하엿던 어머니를 차자 황주(黃州)로 가서 간곡히 청하여 어머니를 한달전에 집으로 다려왓섯다 그러나 어미는 불과닷새가 못되어 사내를차저 가버리엿다 그래서 갈곳업는 네동생은 밤과나즐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다가 정월초하룻날아침이되자 근처집 아이들은 명절이라고 고흔의복을 차리고 뜰에모여서놀고잇는데 저이들은 찬바람 돌려지는 방에우두커니모여안저 울고만잇다가 진순은 결심한바이서 아홉살난누이동생을 업고 어머니한테 가자고 진관이 진호 두동생을압세우고 겸이포역을 지나동정(桐町)압 철도에 달려가 당일오후 여섯시에 황주역으로 가는 기차에 누이동생을 업은채달려들어 무참하게 두토막으로 몸이끈키어 피투성이되자형이죽은것을본 진관이와진호 두아이는 미친듯이 달려와서 친척에게알리여주어 알게되엇다 자식버린 무도한 어미들의 경종이 이에서대한것이업스리라고입방아를 찟는데 일반은개탄함을참지못하고잇는터이다

따뜻한義捐金

새해맛는災民에게還王

남조선한재지에서 괴수한파주위에 떨고잇는 동포들에게보내는 따뜻한정으로 연달하여지에 본사에기탁한 의연금은 다음과가튼데 본사에서는 이것을 곳조선사회사업협회에 전달하엿다

記

一金十圓四十錢 市內淸凉里町 한는님의敎會一同 一金五圓也 西橋町 長老敎會 一金十六圓二十四錢 白川私立彰東學校職員生徒一同 金十五圓 東京市荒川區三河島町五の一〇六 朝鮮基督敎會 金十一圓 京城商業實踐學校 川越實習生一同 一金十五圓 東京市豊島區長崎町力行舍內 臨海寮寮生一同

科學朝鮮의四"파이오니어"

③ 빗나는"金氏方法"과"合成一號"

醫博李泰圭氏, 農博林浩植氏, 理學工金良瑕氏, 工博李升基氏

음악등예술방면에는 천재가잇다해도 과학방면에서는 과연어떨가 ——우리가 가저온 이런종류의 걱정들은 지금은 한개의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만주지나 양사변을 계기로해서 과학조선의 젊은 『파이오니어』(戰士)들은 흔은 연구실에서 흔은 또 공장에서 각기마튼 제목을 통하여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고 잇슬뿐아니라 우리는 어느틈엔가 벌써 과학일본을 질머지고 세계무대에 당당히 데뷰—하여 만장의 기염을토하고잇는 면사람의 우수한 세계적학자조차 내이고잇는 것이다 버더가는과학조선의 새로운호—프—

촉매학(觸媒學)에잇서서의 이태규(李泰圭)씨 단백질(蛋白質)의 권위인 임호식(林浩植)씨 『킴스메소—드』(金氏方法)로 일약세계적이된비타민이(E)의 김량하(金良瑕)씨 『합성일호』(合成一號)의 발명으로 섬유일본(纖維日本)을질머지고 일어선 경도제대(京大)의 이승기(李升基)씨…모두가 우리가 세계에자랑해도조흔 우수한이방면의공헌자들이다

경도제대조교수 이태규(李泰圭)박사(理博)는 금속공업에 잇서서는 열쇠나다름업는 촉매(觸媒)에 관한 연구에잇서 획기적인연구를 발표하여 갈피를못잡고헤매이던 세계 촉매학계에전연새로운 한개의서광을 던저주엇다는것은 너무나유명한 이야기이거니와 농화박사 림호식(林浩植)씨는 세계영양학계의 오랜현안인 곰팽이를 이용한 미생물성단백질(微生物蛋白質)의 분리에 성공하여 동물성 단백질에 영향을일우키고잇는 최근영양학계의 큰 경이인 비타민(E)의 결정체(結晶體)추출(抽出)로 일약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김량하(金良瑕)씨는 현재 이화학연구소(理硏)에서 계속연구에 전념중인데 씨가 성공한 이방법은 『에반스』『오른곳튼』 양씨의 방법과 지금은 어깨를 나란이 하여 『김씨의방법』(金氏의方法)라는 이름미터 구미각국의 교과서와 잡지에 당당히게재되어잇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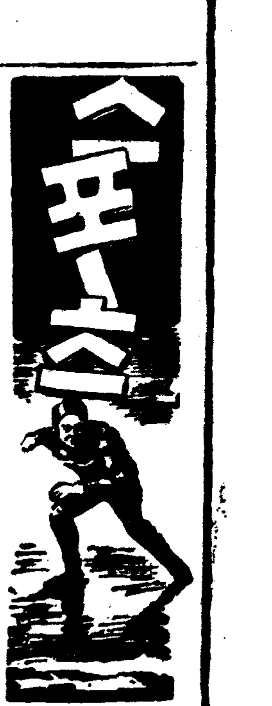
다음으로 지난해 방직계의 가장큰 토피이어던 『합성일호』(合成一號)의 발명자 이승기(李升基)박사가 잇다 『합성일호』는 일종의 인조비단으로 미국의 『나이론』 독일의 『피·시』(P·C)와함께 세계삼대대표적인 인조섬유인데 그중 독일의 『피·시』는 최신 성능이떨어저 결국 미국의 『나이론』과 일본의 『합성일호』의 단기전이 되고말엇는데 각전문가들의 실험연구로 『합성일호』의 조한성능이 『나이론』에 재주나 소질이업슴이 아닐것이다

파 만들어내어본 인조비단이다 『나이론』출현은 이때문에일본 방직계에 중대한 타격을 주엇는데 이승기씨의 『합성일호』의 발명으로 『나이론』의 위협은 지금은 완전히 제거된셈이다 이씨는 현재 경도제대조교수로 조선유일의 공학박사인데 꾸준히, 아직도 계속해서연구에 전념중이라고하니 『합성제일호』의 뒤를이어 『제이호』 『제삼호』가 나올날도멀지안을것이다

비해서 절신조다는 ...다고하니 듯기에 반가웁기이아닌가 『나이론』은 해마다 미국사람으로부터 막대한 금전을빼아서가는 일본비단부를 격퇴하기위하여 미국이 전지능을 동원하여 장구한 시일을 허비한결

이들선배들의 존재가 무엇보다조흔 증거이다 버더나가는과학조선 한키도조코 두키래도무방하니 새해에도 무럭무럭자라고크라!

(사진은 우으로부터 이태규씨, 임호식씨, 김량하씨, 이승기씨)



新春의豪華幕 都市對抗氷上戰

地方代表陣入京猛練習中 來六日·淸凉里링크

本社後援

스피—드·스케—팅의 『스릴』을 맛보려면 本社後援의 第五回全朝鮮都市對抗氷上競技大會는 來六日午後一時부터 淸凉里綜合氷場에서열리게되엿는데 昨年의覇者咸興, 安州, 平壤, 京城等 六都市代表陣은 緊張과 興奮이 싸여잇는데 會員은 準備한 大會의 날을압두고 淸凉里 링크에서 猛練習을거듭하고잇다 그리고 大京城을 代表할 멤버—는 金正演, 崔昌振, 安重熙, 張日弘, 金容峻, 張錫榮, 朴性用等 七選手外에 三日午前中에 行한 京城代表豫選會에서추려진 數名을 追加할터이며 新義州의 金健會, 咸興의 金漢集, 平壤의 朴興順君等의 長距離選手들이 어울린五千米와 一萬米의오픈코—스레—스는 新春스포—츠界의 一大豪華版을 이룰것으로 滿都팬의期待는 자못크다

養正快勝

對崇德럭비—戰에

【大阪支社特電】第二十二回全日本中等學校럭비—優勝大會는 新春一月二日부터 南甲子園球場에서擧行되엇는데 養正中學럭비—팀은 三日午前十一時부터 細田(主)氏審判下에 崇德中學의 先蹴으로 開戰하엿는데 結局 十八對零으로 養正軍大勝하여 第三回戰에 들어갓다

養正18(13—5, 0—0)0崇德中

昨年覇者六高에게 城大豫科惜敗

【東京支社特電】全國高校蹴球大會第三日은 三日午前八時부터本鄕東大球場에서 열린바 前日의第一回戰에 成城高校를 六對零으로이긴 京城帝大豫科軍은 이날午前十一時부터 昨年의覇者岡山第六高校와 第二回戰에 對時하다가 兩軍得點업시 稀有의 激戰끄테 前半에 아까운 一點을 빼앗기자 後半에들어가 兩軍得點업시 結局一對零으로 遂來의 城大豫科軍은 前春의 捲土重來를 期約하면서 물러섯다

第六高1(1—0, 0—0)0城大豫科

◆審判…主審 坂田, 線審 菊地, 有泉二氏, 城大豫科先蹴

全日本男女綜合籠球豫想

東京서 李性求

우리 朝鮮籠球가 一時에 四將式이나 東京에 進出하엿다는 것은 今番이 처음이므로 一般들은 크게期待할것이며 戰前부터 무한한 感을 느끼리라고生覺하므로 朝鮮팀을 中心으로 而來 戰前豫想을 적어보려한다 그러하여 最近에와서는 內地팀에 對하여서는 女子는 勿論이려니와 男子팀도 實際로 품련이를 보지못하엿고 다만 記錄에 나타난것만을 가지고 豫想케 됨을 미리말하여둔다

【女子部】 女子十六팀을 對陣에 依하여 上下二部로 나누어 淑明이 關한것을上, 進明이 關한것을 下라하자 淑明은第一回戰에 靜岡精華와 對戰케되엇는데 同是 金澤第一과 더부러 今般協會本部의 推薦을바든四팀實際中에서는 가장强하다고할수잇다 淑明은 엇지어려운 利한條件이나 同멤버—를 주린어진것이 有조흔멤버—로서의 練習이 充分치못하엿스므로 對靜岡戰도 苦戰할것이다 多幸히 一回戰을突破한다면 二回戰에서는今年明治神宮大會에 優勝한 東京女高師附屬高女와맛나게될것이다 그리하여 이에勝者가 準決勝戰에나갈것이며 一方에서는 山口…

…라를수잇스며 더욱이 新潟에대한…하여온멤버—에 …오는 一脈不安한感을 느낄수밧게엇다

眞一淑明이 對…에勝利한다고하면 第二回戰에 昨年度本大會優勝팀인 京都府一과 對戰케될것이다 그리고 一方에서는 金澤第一과 新潟高女가 各各第一回戰에서 勝利하고 二回戰을 行하여 其勝者가 準決勝戰에 나갈것이다

그리고 當地一般팬의 보는바에 依하면 準決勝戰은 上部는 女高師附對新潟 下部는京府一對新潟로보고잇스므로 朝鮮팀에 對하여는 이以上 豫想함이 헛된일이라生覺함으로 그만두려한다

【男子部】 上部에서는 普專이第一回戰에 不戰一勝하고 二回戰에서는 J倶樂部와 京都府立商業의 勝者와 對戰할것이니 이것은無難히이기고 準決勝戰에나갈것이다 그리고 一方에서는 早大와學士倶가 各各一回戰에서 勝利하고 二回戰에서 相對하여 其勝者가 準決勝戰에나올것이며 普專은學士, 早大의 何者가 準決에進出하드래도 두려울것이업슬것이니 決勝까지에 큰難關이업스리라고 보는것이 至當할것이다 下部에서는 延專이一回戰에 慶大와對戰케되엇는데 慶大는 今般綜合東京豫選에 諸强을물리치고當選된팀이므로 延專은여간 愼重히이께임을 하지안하서는 苦戰을未免할것이다

그리고二回戰에는 今般協會本部推薦을받엇스며 去般東京大學리—그에서 立敎를스트레—트로 擊破시킨 文理大와 接戰케될것이다 그러므로延專은 이께임이 또한一大難關일것이다 延專이順調로나가 이難關을 突破한다면 準決에서 京大와 맛날것이니 이께임이야 말로 一大激戰을 豫想케되며 一般의興味를 끌것이다 이제多幸히 上部에서는普專이 下部에서는延專이 各各勝利하여 決勝에 延普專이 王座를 또다시다투게된다고 할것가트면 우리의 바라는바 目的은 達하엿다 할수잇다

立敎籠球連勝

【마니라特電】 比島遠征의 立敎籠球軍의第一回戰인 對네그로스의 께임은 三十一日에 擧行하엿는데 結局三十八對二十八로 立敎軍이 快勝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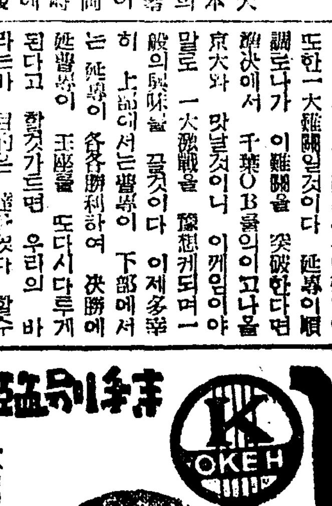
立敎38(22 16…20 8)28네그로스

色鉛筆

여자로서의최대의망영은 어머니가되고 할머니가 될수잇는 사람된도리요, 그리해야살것도가 되어야할것이다◆그런데 어머니될망영의 첫걸이라할것이다◆근래의 여권(女權)사상에서 그르친자는 『소위어진어머니와조흔처』라는 것을 무어냐, 사나이들이 여자를 집안에 옥박아두고 종사리를 시키려는것이 아니냐고 웨친다◆그동안에 종사리가튼 그지어머니의 살림을해온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님들이 얼마나 고달픈 생활을해왓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사내들은 모름지기 여자의지위를 사회적으로 우선 노피어주도록 힘써야할것이다 여자교육의 목도 여기에잇는것이다◆그러나 사내의그지어머니된 도리를 이저버리고 어머니의 망영을 차즈려는것을 그러고나서 소위 여자의 사회적지위만차저가게된다면 이는여자의 전도를위하여 교육의 전도를위하여 누구보다도 여자들이 슬퍼하여야할일인것이다◆오히려신교육이전의 여자에게서 어머니의 망영을 더만히차즐수 잇슴을이 글조업다◆어머니의 망영가운데서 여권은 더욱 발전할것이다 ◆몽매라는 교육받은 여성들을위하여 교육받는 여성들의책임이 더중함을 느낀다

오—케—레코—드 特別臨時發賣

趙鳴岩詞 金海松作編曲



世紀의歌姬 純情의麗姬 朴響林 오케—專屬入社第一聲!!

歎息 朴響林

고모스

前面 純情特急 朴響林

後面 안개낀上海 李花子獨唱의 異色盤!! 新作曲 新春歌謠 南仁樹

後面 담배집處女 李蘭影

開院謹告

小生이過去十七年間セブランス醫專에在職中 社會役位의厚誼를 多蒙하음은感銘不己하옵는바 今般同校外科敎授의職을 辭하고 左記와如히診療에 從事케되엿슴으로삼가紙上으로 仰告이오니 倍前指導愛護하심을務望하나이다

外科 整形外科專門 醫學博士 李容卨

一月三日開院

京城府堅志町一一八番地 (泰和女子館西隣)

電話光化門③二七三六

京城鍾路二丁目 完全修理 普信堂時計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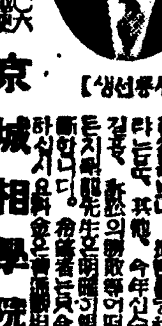
撞球場 時勢大安價 르뮤業 有意하신분은左記로相議하시요 桂洞一六六ノ八三 金錦麟

生徒募集 自動車部門及運轉部門 ... 京城自動車學校へ

朝報案內

中古樂器高價買入 ピアノ、オルガン ... 京城明治町二丁目三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京城相學院長 ...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 京城相學院

醫學博士 三浦良雄

內科 一般外科 肛門外科 レントゲン科

三浦外科 入院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一ノ一九九(京城劇場) 電話本局(2)一八四八番(病院) 本局(3)七二七五番(自宅)

大邱藥令市開市

自昭和十五年一月五日 至昭和十五年二月十九日

主催 大邱漢藥組合

鉱山用藥品 工業藥品 衛生材料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有名賣藥 部賣散賣

山崎仁壽堂 京城府鍾路四丁目 電光化門二一五六·二一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本局②二二六一番 振替京城二〇五番

株式會社 漢城銀行 頭取 野田新吾

支店 出張所 京城府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同龍山、同新 麻浦、同永登浦、江華、水原、開城、大田、永同、大邱、釜山、延安、海州、長淵、兼二浦、平壤、平康、黃州、大和町

驅虫에依한國民保健運動

집마다日ノ丸 집마다マクニン

本日 虫下し マクニンデー

マクニン이第一조흔理由

①効力이强大하고 完全히驅虫되는것
②虫이죽어나오므로 不快感이업는것
③絶對로副作用과 中毒作用이업는것
④多量服用도 連續服用도 安全한것
⑤泄瀉의必要가업고따라서미 기조흔것

發賣元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四日封切 完結篇

錣鳴浪人

讀賣新聞連載 原作·角田喜久雄 監督·荒井良平 構想雄大! 興趣萬斛! 阪東妻三郎の劍と市川春代 川上朱實の戀に彩る日本外交秘史 愈々完結篇の登場! 天下無敵の第二週陣!

お正月映畫の最高の味覺!

今日の船出

日活多摩川が送る海の靑春譜·監督伊賀山正德

江川宇禮雄のマドロス 日暮里子の港の女!

まことの愛を 露と見て 花は浪路に 咲いたもの 吹くな潮風 迎ひ風 あゝ並木路 喜びも悲しみも 忘れぬ面影も 胸に抱けば夢となる 逢うが別れの波止場 泣ける身も強ぢや哭ふ それで男と 云ふものさ あゝマドロスの 旅の掟 夢も見果てぬ 浪まくら 別れてもまた逢へる 待てよ君今しばし あゝ銅鑼が鳴る 今日の出船 さらば波止場の想ひ出よ

ワーナー超特作 お姫樣大行進

黃金座

五日より

ジャネット·マクドナルド ネルソン·エディ 主演 ロバート·Z·レオナード 監督

山河の緣に、沙漠に沸る女の情熱、男の心を掴む激しさが、美しい唄聲に乘つて馳奇なロマンスを綴る!!

ポルカの唄姬

松竹大船 特選喜劇!!

問題の娘

新進山本武監督 東山光子 槇芙佐子 近衛敏明 飯田蝶子 上山草人 共演

午前十時開演

大陸劇場

쌀수확이 만허서 내지미까지영향된다고 급히그게획을 변경한다는것은 조치못합니다

조선민중의 쌀소비는 급속도로 증가하여가서 산미계획이당초의 배에달하여서도 그때는 이미부족을 느끼게됩니다 당국이 세우는 산미증식계획은 이런점을 고려하지안는것갓습니다.

한해는 보(洑)와 큰뚝게가잇습니다 파거에는 각처에저온저수지가 만튼것이 토지이용의고도화로 그것을허무러경지로한것이 한해의 한 원인이아닌가합니다 그럼으로 이유지(溜池)를만히 만들필요가잇슬줄압니다.

조선농가의 수입증대와 한해와는 상관성이 잇습니다 그수입을 증대하기위하여 이러케생각합니다 축산을생각합니다 쌀, 면작, 전작에로비가필요한데, 그금비대신에 유축농가가만허지면 거게서 비료가나오게되지안습니까 축산에의하여 비료를엇는다는 견지에서도 축산을장려할 필요가잇스며 식량부족의 완화를 위하여도 그럴필요가 잇다고봅니다 조선의 해산물도 대용식으로서 생각할 여지가 잇지안흔가도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가에도돈을 준다는것―즉농가 수입을증가한다는것이 필요합니다 조선농가는 고리채(高利債)에 머리를들지못하고 그때문에 파산하지안습니까 그를구하는데는 공업이아니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농가구제의 근본이아닌가합니다 소작인이 연가마니를버린다처도 백원내외입니다. 농민을 괴롭움에서 해방하는데는 어떤공업이일어나서 농가의 한사람이 공장에다니며 수입을 엇는다면 돈벌이가되지안흘까합니다 마산에 가보앗더니 그곳 남포공장에 조아이가가서 하루에 사오십전을벌어가지고 옵디다 이런식의 공업이 농가부근에 생기면 조치안켓는가 생각하며 가정공업을 일으키는것도 농가의수입하는길로 생각하며 동시에 한해의보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尹 근본책에대하여는 그러치도 생각할수잇습니다마는 현재당면한것은 먹는양식의 준비가되엇다할지라도 식량문제의 대책이됩니다. 식량문제의 대책으론 물건의준비와 돈을주어야할것입니다 이방면에대하여 내무부장께서 당국의 대책을 들려주엇스면합니다.

增田 아까 서돈으로 약간말하엿거니와 이재자구제방침으론는 국민정신의앙양과 자력갱생의 정신하에 될수잇는대로 인보상

產米增殖의徹底와 有畜農業奬勵가必要

조를장려하고 이에의하여 구조의목적을 달치못하는자중 다른곳에가서 노동(出稼勞働)을할수잇는자는 만주에개척민으로

서북조선방면 혹은내지에알선하고 나머지이재자를 위하여는 각지방에서 각사업을이르켜 구제하기로되엇습니다 본도에서는 구제사업으로써 토목공사에 삼백삼십만원 토지개량사업에 백팔십만원 임도공사에 이십구만원 한계오백팔십만원의 대책공사계획을 하고잇습니다 지금그공사는 착착진행되어가는데 사방인도공사는 벌써 살분지이를 하고잇고 도로, 토지개량도 진행되고잇습니다. 자력갱생의정신으로 일대시련을극복하자 일단하면 먹는다는 신념으로 전국적으로 투쟁하고잇습니다 일단하면 식량문제는비되엇다는것을 인식하고 나가고잇습니다

金璋泰 농업증산을하는데 돈을주는것보다 작업을준다는 말을들엇는데…

尹炳浩 그러면 배급이 곤란하지안소 돈을주는것이 조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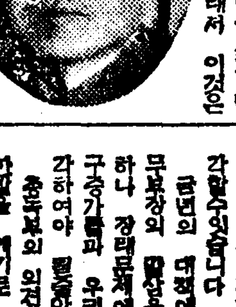
日時 昭和十四年十一月十八日午後六時半
場所 釜山[illegible]

出席者
官廳側＝金泰錫氏(慶南參與官、產業部長) 增田道義氏(慶南內務部長)
民間側＝金璋泰氏(道會議員、東萊產業組合長) 尹炳浩氏(釜山府會議員)
本社側＝吳毅一(慶南支社長)文殷鎬(慶南支社總務)卞[illegible]甲(本社慶南特派員)

金璋泰 돈을주면 이재민이 대부분을듯고 소비하기 때문이라나요

吳毅一 다음은 동래(東萊)김씨에서 말삼하여 주시지요

金璋泰 금년의 한해에대한대책파 미래에대한것은 항구적으로 한해를 피하고 싶지에주하여 몃마디 말하겟습니다 그러데 당국에서 세운 한해구복책파나의생각파는 일치하엿다



金璋泰 금번 한해대책으로 의외로 조흔것은 면작(棉作)입니다 내가 오월경상황에 울산(蔚山)에가보니 이사한이나 말려죽은것을보앗습니다 사천일에는 다시 김해(金海)근방가보니 오백이나 말려죽엇습니다 다든데를 가보니 그이상으로 말러죽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겟다고 유월에주시 추파(追播)를 식켜지요 농민들은 추파를해도 안된다고하나 나는종조를하보아야 맛는지 안맛는지안다고 닷자곳자로 주파를권하엿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illegible] 나오려라고 기다리며 추파를안하여 잇섯도 손이라고 생각하고 잇섯습니다 사실우리자신도 그러케되고한 자신은서지안엇습니다만은……。

그것이 추파가의외로 조아서금년에는 지난섬이 빚실이될일이현재에 이천만근의공동판매를 하게된것입니다 이것도 한해대책이 조앗던까닭인가합니다 모두를 공판을이해하고 국책에 협력하는데 감복합니다

吳毅一 이번에는 김장태씨가 각종의장에서의 한해구복에 대하여 말삼하여주십시요

金璋泰 나는 당국과 달라서 수짜도 갓지못하고 또 내본업이 상업이어서 재료도 못가젓습니다 다만 감상과 평소 생각하던바의 의견을 들어말삼하겟습니다

금번한해에 대하여 금번만의 대책과 장래조선에는 대한은 어들터이나 적은한발은 자조 올것이니 대책을 세운다는데에는 두가지 방면을생각할수잇습니다

금번의 대책에 대하여는 내무부장의 말삼을 정하여안심하나 장래문제에 대하여는 인구증가와 우리의 식량을생각하여야 될줄압니다

총독부의 의견을 들으면 이번한해를 게기로 남조선지방에 산미증식계획을 세운다고하는데 그계획이 완성하는때에는 쌀이부족하지 안는가고생각합니다 당국을 비난하는것은아니나 기억에새로운것은조선에 산미증식계획을세웟다가

―계속―

基金二十萬圓完成
新春劈頭에認可申請을手續
永興實業校에東天紅

【永興】지난봄이래 군민총동원으로 시작된 영흥실업학교 설치운동은 각방면의 적지안흔 후원파열성으로 국세게전개되어 오든결과 예정목표의거금 이십만원을 완전히만들게되어 금춘에는 기어히개교하려고 군민인가 수속까지 한준비하고 잇다는데 지난번 동기서회에 기부한 제씨는 지난번말에 현금을만히 불입하엿다는바 요즈음에는 또 읍내(邑內)함봉섭(咸鳳燮)씨가 이천원 조성룡(趙成龍)씨가 이천원 우종림(禹宗林)씨가 오천원 명륜회(明倫會)에서 일만원을 각각 희사하엿고 또김남극(金南極)씨도 일만원을 현금으로 불입한것이라고 하며 군민일반중에는 입바치으로 불입을완료하여 정식으로 인가수속을하게될것이라고한다

每日水揚十萬桶
注文津開港後初記錄
정어리잡이俄然活況

【注文津】강원도주문진연안(注文津沿岸)에는 며칠전부터 정어리떼다량으로잡어내기시작하엿는데 그칠전으로돌라지안흘수업슬만한 거대한것으로서 매일십만여통이라는 개항이래 초유의호경기로서 유폐해저던 자숙여항두터 아연대활황을 이루엇다

十年勤續
晉州第一小校表彰

【晉州】경진(庚辰)의 새해를마지하는첫날진주제일소학교에 십년근속표창을받든 두선생님― 진주제일소학교 학부형회에서는 동교십년이상 근속하김두선(金斗善) 황필연(黃必連) 두선생의 표창식을 지난일일 오전열시부터 동교강당에서 학부형모자 내빈다수참석하에 성대히거행되엇다 김두선선생은 소화유년사월에 동교에 부임되엇스며 황필연선생은소화오년사월에 부임되엇다는바 두선생은 모다온순근면한분으로 교육자의 모범될이 되리하다한다 그리고 김두선선생에게는 동시에 중등교재학중에잇는 문생(門生)으로부터사은기념품증정식(謝恩記念品贈呈式)이잇섯다한다

(사진은김두선황필연양선생)

三萬餘圓을騙取
犯人三名은鎭南浦署에被逮

【鎭南浦】인장을위조하여 가지고 당당하게 토지저당권을설정한후 삼만여원이란대금을 사기편취한 엽기적대사기사건이 청천백일하에 폭로되엇는데 범인들은

龍岡郡大代面月谷里二九一番地 宋仁浦(三七)(假名)
同 三一七番地 李宗源(三七)(假名)
鎭南浦府碑石里三二二番地 朴仁涉(三〇)(假名)

이상세명으로 서로공모한후 지난팔월경부터 용강군양곡면(陽谷面)이달영(李達永)씨의 소유토지를 지난팔일회의원 모씨에게 인장파토지저당권설정서류를 위조하여 저당한후 일천오백원을 편취한것을비롯하여 구월이십구일 용강군 대대면 월곡리 한근홍(韓根弘)씨소유토지를 가튼방법으로 박모에게저당하고 이천원을 사취하엿고 십일월사일 용강군대대면 덕동리(德洞里)소재 김게식(金啓植)씨소유토지를 여모(呂某)에게 저당하고 이만오천원을 편취한것이라는바 범인세명중두명은 진남포경찰서에 체포되엇고 한명은 박문행방을 엄탐중이라고한다

旱害義捐金遝至

【慈山】평남순천군자산면(順川郡慈山面)에서 제유차로 본보자산지국후원미래 모집된 남조선한해의연금은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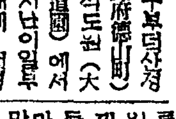
一圓 金在坤 林興柱 李尙秀 李萬華 盧應植 權京根 權存根 金承鉉 高文境 金雨甸 丹昌烈 五圓 韓秉律 五十錢 李俊澤 李永賢 李德鳳 以上

千圓寄附
永興警防團에
咸鳳燮氏特志

【永興】함남영흥(永興)의 함봉섭(咸鳳燮)씨는 교육사업과 기타사회의 각방면에 다대한기부를 항상하여온 독지가로 영흥사회의칭송을 독차지하여오든분으로 이번에는 또영흥 경방단에 금일천원을기부하엿다고한다

回甲費節約獻金

【博川】박천군박천면서부동박시후(朴時煦)(七〇)씨는 복지에서상업방면에활약하고잇던바 지난삼십일에 귀향하여 현하시국을중요시하고 부친회갑비를절약하여 금오십원을 지진하여 국방헌금을하엿다는 신년벽두에 명랑한소식을전하고잇다



대구부덕산정(大邱府德山町)대동식도원(大東食道園)에서는 지난이일부터새해에 첫영업을 개시하자마자 「뽀이」군신사명이 「우리대우를 개선해주우」 하고 일제히동맹파업을 개시하엿는데▲그들의 하소연을드르면 「월급도다른곳보다적고 보―너스도 사오원씩밧게 안되니 어려고야 어찌살겟소」 ▲주인측으로는 「너허들일키면 그만두어라 서울서 얼마던지 데려올테니」 ▲이리하여말성을 피우는동에 이일오후여섯시경 그주모자로지목되는 두명을 대구경찰서에서 검거하여갓다는바 ▲요리집뽀이군이 동맹파업을 하기는 대구에서 이번이 처음이라하여 일반의화제거리로되어잇다(大邱)

오다라

三日(水)
▲午後六時(城)[illegible]「[illegible]와前篇」
▲同六時二〇分 講演 新年展望(一) 總督府社會敎育課長 李源甫
▲同六時四五分 講演 新年展望(二) 每日新報社長 崔麟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獨唱과二重唱 一、歌劇「[illegible]」中의二重唱 베르듸作曲 二、歌劇「[illegible]」中의레퍼ー獨唱 맛스네ー作曲 三、二重唱 復活頌歌 쇼네ー헤르作曲 四、歌劇「토스카」中의소프라노獨唱 푸치니作曲 五、歌劇「誘惑」中의二重唱 모―차르트作曲 소프라노 東貞順 테너ー 崔昌殷
▲同八時 京龍歌曲 一、小春香歌 二、방아타령 三、배뱅이歌 四、鳥打令 五、朴淵瀑布歌 全光彩 李素紅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보리타는바람」一李達作 DK드라마그룹
男女의사이 안해의便紙 出의니 金永錄 [illegible]
▲同 童話歌謠 一、六字백이 [illegible] 二、興打鈴 四、[illegible]
開庭打鈴 朴初仙 朴初月
▲同九時二五分 時調와誦詠 一、時調 二、三說記 李文源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라디오메모・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 레코―드音樂

四日(木)
第一放送
▲午前七時五〇分 宮城遙拜
▲同七時五一分(東)라디오體操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東)時報 오늘아러둘것
▲午後零時五分(東)和洋合奏 和洋合奏團
▲同零時三〇分 뉴―스
▲一時 레코―드 콘서―트
▲同四時 뉴―스
▲同六時 兒童劇 어린이의四時 梅香童謠會 作과指導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五分 講演 新年展望(三) 滿洲國名譽總領事 金聲洙
▲同六時四五分 講演 新年展望 朝鮮文化社長 徐椿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大衆[illegible]
▲同七時三〇分 新作才談「이시명은자구」金元浩作 金元浩 申不出 ▲新民謠 一、天安三巨里 二、長城大打令 三、開城難逢歌 四、아산도 五、널니리야 六、新陽아리랑 七、박아打鈴
▲同八時二〇分 伴奏 京城放送管絃團 張一蓮紅 [illegible] 가지가지 金允心
▲同八時五〇分 伽倻琴獨奏 一、漢江水打鈴 二、咸鏡道아리랑 三、오돌독 四、사랑가 五、오봉산 金奉樂
▲同九時五分 野談 [illegible]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同一〇時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一〇分 地方으로보내는뉴―스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城)長唄 ▲同六時 (東)童話劇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七時五〇分 (東)蓄音 [illegible]席中繼― ▲同八時四五分 (大)同

三國志 【57】
韓龍雲 譯
熊超 畵

曹操의復讐戰(七)

「내가 관바게서 그대를 만난뒤로 하늘에 서로 나누어 벌음지 못하엿노라 저즘게 공의 선친께서 뜻바게 해를입은것은 실로 장개의 어질지 못하므로 말매암은것이오 도겸의죄는 아니라 이제 황건의 끼친 흉개가 밧게서 어지럽고 동탁의 남은 무리가 안에잇스니 바라건데 공은 조정의 급함을 먼저하고 사사원수를 뒤에하여 서주의 군사를 거두고써 나라의 어려움을 구원하면 서주가 다행하고 천하가 다행할가 하노라」

조조가 글을보고 크게 꾸짓되

「유비는 어떠한 사람이건대 감히 글로써 나를 권하며 또 그가운데 기롱하는뜻이 잇스니 사자를 베이고 힘을다하여 성을치리라」

하니 곽가가 간하되

「유비가 멀리와서 서주를 구원하매 예를 먼저하고 뒤에 무를 쓰려하는것이니 주공은 마땅히 조흔말로 대답하여 유비를 늑키게한뒤에 군사를 나아가 성을치면 성을가히 따하리라」

조조가 그말을 조차서 사자를 머무르고 답장을 보내려할새 홀연히 보하되

「여포가 이미 연주를 따하고 박양(濮陽)으로 나왓다」

하엿다 원래 여포가 이때의 란을 만난뒤로 도망하여 무관을나와 원술에게로 갓더니 원술이 여포의 정한뜻이 업슴을 의심하여 드리지 아니하매 다시 원소에게 갓더니 원소는바다서 함께 상산에서 장연(張燕)을 따하매 여포가 스스로뜻을 어든듯시 원소의 미례잇는 장수에게 거만히하여 원소가죽이고자하매 여포가 다시 장양(張楊)에게 갓더니 그때에 방서(龐舒)라는 사람이 장안에잇서서 사사로 여포의 집안치를 감추어 두엇다가 여포에게 돌려보내매 이각파 곽사가 그것을 알고 방서를 베이고 글을 장양에게 보내어 여포를 죽이게하니 여포가 장양을 바리고 장막에게 갓더니 마침 장막의 아우 장초가 진궁이를 데리고 장막에게 간지라 진궁이 장막을 달래되

「이제 천하의 형세가 나누어 영웅들이 아울러 일어나거늘 그대가 천리의땅파 만흔무리로 도리어 남의 부림을 밧는것이 또한 더럽지 아니하리오 이제 조조의군사가 동으로 치매 연주가 부인지라 여포는 이세상의 용맹잇는 사람이니 만일 한가지로 연주를 취하면 큰일을 가히도모하리라」

장막이 크게 기뻐하여 여포로하여금 연주를 엄습하여 따하고 박양에 웅거하니 다만견성 동아 범현세곳이 순욱과정욱의 게교로 죽도록지키어 온전하고 그나머지는 다따한지라 조인이 여러번 싸우되 다이기지못하고 급함을 고합이엇다 조조가 그보고를듯고 크게놀래어

「연주를 일흐면 내가 돌아갈집이 업슬것이니 급히 도모하지 아니할수가 업도다」

하니 곽가가 말하되

「주공은 유비의말을 들어서그뜻을 사고 군사를 물리치 연주를 회복하소서」

조조가 그말을 올히여겨 곳 유비에게 답장을 보내고 군사를 물리쳣다. 현덕의 사자가 서주에돌아가 도겸에게 조조의 군사가 이미 물러감을 말하니 도겸이 크게 기뻐하여 사람을보내어 공융 전해 운장 자룡등을 청하여 성안에 크게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마치매 도겸이 현덕을 마자 웃자리에 안치고 손을 마주잡고 여러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나이늙고 두자식이 재주가 업서서 나라의 무거운 책임을 견딜수가 업고 유공은 한나라의 종친으로 덕이넓고 재주가 노프니 가히 서주를 거느릴지라 원컨대 이사람으로 하여금 한가히 병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여 서주태수의 지위를 현덕에게 사양하니 현덕이 말하되

「내가 와서 서주를 구원함은 의를 위함이어늘 이제 무단히 서주를 차지하면 천하가 장차 나로써 의가업는 사람이라 하리로다」

미축이 말하되

「이제 한나라가 결단나고 하가 어러지니 정히 공을세우고 업을 이를때요 서주는 재물이 만코 호구가 백만이라 유공은 사양치말고 서주를 마트소서」

「이일은 결단코 들을수가 업노라」

진등이 현덕을 권하되

「도공은 늙고 병들어서 능히 일을 볼수가업스니 공은 사양치마소서」

京一島

京城府昌信町四四二
京城軌道株式會社
社長 田川常治郞
營業所 電光二六 三三二番 九六七番
東大門驛 電光二六 九五〇番
往十里驛 電本五 四二一番

京城府外纛島里二五九ノ一
纛島面協議會員
一精米所
主 李慶夏
電本三二八 二六七番

京城府外西纛島里
中央柴炭商會
纛島面協議員
鄭鎭泰
電話本局二、九七九番

京城府外纛島(中央)
三五商店
纛島面協議會員
主 李根夏
電話本局六六八四番

廣州郡彦州面三成里
大本山 奉恩寺

高陽郡纛島面華陽里
華陽精米所
主 金昌烈

京城府外東纛島里
布木雜貨 永信商店
主 林興澤

京城府外西纛島里
喪中欠禮 李潤在 李元在

京城府外西纛島里五九一
喪中欠禮 洪慶國

賀正

京城府外西纛島里
高陽郡學校費評議員
纛島警防團長
區長 李承源

京城府外西纛島驛前
建築運送 纛島商會
主 盧英鎬
西纛島驛前住宅產業分讓中

京城府外西纛島驛前
스끼야끼專門 纛島館
電話本局(取次)五、二八七番

京城府外纛島
朝鮮渡邊鑄工株式會社

京城市外纛島面廣壯里
氷上筏木 問屋穀物 柴炭其他 委托販賣 仲介業
廣昌商會
主 姜凡山
本籍楊州郡九里面土坪里

京城府外西纛島里四番地
株式會社 谷口合金所 京城工場
電本 六、三八七番 六、四六〇番

京城府外纛島面廣壯里
水上筏木 薪炭委托 都散賣業
廣壯商會
主 余鎭寧

高陽郡纛島面廣壯里一八九
材木商 廣德商會
主 李德善

纛島柴炭商組合
電話本局二、九七九番

高陽郡纛島面
廣壯柴炭商組合

高陽郡纛島面
精米業配給組合
電話本局三八八六番

京城府外東纛島里
纛島面協議員
申斗泳

京城府外西纛島里
纛島面協議員
精米業 金永濟

京城府外西纛島里四八八
纛島文影學院長
柴炭商 文雲益

京城府外纛島里四六三
柴炭商 崔化允
電本(取次)五二八七番

金泉材木店
電本 五六七〇番

京城府外西纛島里
正友精米所
主 盧興鎬
電本(取次)六六八四番

京軌纛島遊園地
貸切ー三遊船
京東俱樂部
主 李致祚

京城府外東纛島里
柴炭木材委托業
永昌商會
李愚昌

京城府外東纛島驛前
鮮松製材箱材
金水材木店
金炳濟 朴成根

京城府外西纛島里
柴炭商 李奉龍

京城府外西纛島里
城東醫院
院長 孫點祿
醫員 韓敏興

京城府外東纛島里
纛島面協議會員
區長 李範相

京城府外西纛島里
纛島面協議會員
司法代書 盧載亨

京城府外東纛島里
三成精米所
主 文相哲
電本 六、六八七番
振替京城 五〇八七番

京城府外東纛島里
廣濟藥房
主 韓明寬

京城府外西纛島里
柴炭商 李奉山

京軌纛島遊園地
貸切ー三遊船
漢江丸食堂
主 中西龜松

京城府外東纛島里
興和織布工場

高陽郡纛島面廣壯里區長
廣壯柴炭商組合理事
材木柴炭商 朴有英

高陽郡纛島面廣壯里
廣壯柴炭商組合長
金鍾濂

京城府外西纛島驛前
東明精米所
主 李愚明
電本五二八七番

京城府外西纛島
山田鶴太郞農園

京城府外西纛島里
益昌精米所
主 金益洙

京城府外東纛島里
材木商 李文善

京城府外西纛島里
柴炭商 金仁化

妙香山

滿浦線妙香山驛前
妙香山鑛業所
朴利祿

泰川郡陽和寺
住持 崔仁吳
會計 金致普
書記 朴炳善
監院 鄭秦雲

滿浦線妙香山驛前
平安北道木炭指定販賣人
材木商 朴昌珍 朴昌浩

滿浦線妙香山驛前
丸藤運送店
泰安旅館
申泰益

平北寧邊郡妙香山普賢寺
住持 金法龍
外職員一同

滿浦線妙香山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妙香山代行營業所

滿浦線妙香山驛前
海產物食料品
平安公司
電略ㅍ又ヘ(ヒラ)

滿浦線妙香山驛前
妙香郵便所長
張相牛

平北寧邊郡妙香山
平壤旅館
主 梁國鉉

滿浦線妙香山驛
驛長 康龍田

滿浦線妙香山驛前
洪相恒

寧邊郡妙香山普賢寺明月堂
日用雜貨
金鳳碼商店

平北寧邊郡妙香山
李昇俊

定州郡玉泉面開元寺
住持 李膺璉

寧邊郡妙香山普賢寺
記念品販賣所
主任 安德演

江界郡江界邑子北寺
住持 金東照

寧邊郡妙香山普賢寺
東洋旅館
主 文泰一

寧邊郡龍門山龍門寺
本末寺評議員
金瑨晟

寧邊郡妙香山普賢寺
本末寺評議員
朴達容

寧邊郡妙香山普賢寺
佛敎專門講院

寧邊郡妙香山普賢師
本末寺評議員
夜光國

寧邊郡妙香山
香山旅館

新義州府梅枝町佛敎布敎堂
布敎師 金月峯

三益社妙香山出張所
所長 李重鉉

滿浦線妙香山驛前
有志 梁柱勳

寧邊郡妙香山
共榮會

惠須取

㊝朝鮮日報支局
米穀雜貨
⑦關平商店
電話五三二番
振替樺太二九二一番

滿洲開拓民小說

大地의아들 (58)

李箕永 作
崔木朗 畵

歡心（十一）

황식이는 복술이를 잡아내다 그를 밖으로 끌고나와서 아까 귀순이가 하던말을 낫낫치들려 주고 꼬트리를캐보앗다 그래도 복술이는아니라고 잡아뗀다. 네가 어젼불오니까 그애가 무안해서 그런가본것이엇다. 그럼 가치가서 물어보자한죽, 지금은 얼굴이붉어서 못하겟다는것이다. 들가운데 아무도 업는데 얼굴이 붉으면 상관이 무에냐해도, 그러치만 혹시 어울은 만날는지 누가아느냐고 종시 못가겟다한다. 그러나 좌칭우탁하는 그의태도가 아무래도 수상하엿다.

그래 황식은 한번 얼려메엿다.

『네가나를 끗까지지 속일테냐? 정말이거든 어서가자!』

창식은 별안간 그의 멱살을 잡고 잡아내끌엇다.

『뇌라애!목아프다!』

하고 복술이는 목이졸려서 더옥 빨애지는 얼굴을 휘 도리키며 빠떠인다.

『너 그래 정말 못가겟니?』

『난 지금은못가겟다!』

『어째서 못가겟니?』

『얼굴이 붉어 못가겟다!』

『이놈아!뭣이 어째?너 그돈으로 지금술 사먹엇지!아침부터!그러치안흐면 네가무슨돈이잇서서 이러데와잇서!』

『뭐!누가 그돈으로……』

『이자식아 잔말말구 어서 가자!』

황식이는 다시 복술이의 멱살을 흔켜쥐고 내껄엇다.

『갓게!아!이걸놔야가지!』

『노면 달아날 나구!』

『달아나긴 누가 죄졋가디 이거못놔!』

복술이는 이를옥물고 하번뿌리처본다. 그러나 워낙 단단히 취 면살은 뿌리처도 빠지질안는다. 그대신 겨드랑이가

『아 이거 못놔!!잉 이자식아!』

복술이는 황식의 물퉁이뿐주먹으로 쥐어지르며운다.

『이자식아 누굴 치니!』

황식이도 다른손으로 복술이의 빰을 사정업시 후려갈것다. 보드러운 손길이 올바로 어디마진 빰에서는 때 소리가 나며 정신이 아찔하다!

『이자식아 왜때려!왜때려?』

복술이는 징징 울며 마주달리보햇다. 그러나 워낙 기가눌리는 복술이는 황식이를 당할 용기가 업섯다.

그들은 그뒤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서로 홀을 다리듯 잡아끌며 빼대며 하는 싱강주에 어느듯 동구밖그로 나오게 되엇다. 만인들이 웅기 중기 나와서 구경을 하고섯다. 그들은 무엇을 똥본 오리처럼 지꺼려댄다.

『이자식아 가자 귀순이 한테 물어보려가자!』

『가면 누굴 어쩔테야 네까지께─』

『이자식아!왜 멀정하게 누굴 속이는거야』

한참이럴판에 덕성이는 귀순이와 함께 들에 잇섯다 그도 귀순이가 들에나갓홀을 알고 아칭후에쫏차나온것이엇다.

그는 귀순이 한테 지금 황식의 말을 들엇다 생판 모른다는 반지사꺼이 그러지안허도 덕성의 마음을 설레게하던차에 멀리 만인의 동구아메서 난데업는 우룸소리가 나매 누군지두 사람이 마주 붓잡고 승강이를 한다 그들은 차차 이편으로 가까이 오는것갓다.

『저게 복술이랑 황식이가 안야?』

『글쎄!』

귀순이가 먼저 알아보고 소리친다 공연이 그는가슴이 조마조마해진다.

『아까 내가 생판모른댓더니 황식이가하는말이 이자식을차자가서 따저본다구 그랫는데아마지금 복술이를 만나가지고 그까닭으로 저리는거겟지?』

귀순이은 은근히 가슴을 조이면서 긴장해말한다.

『응!그런가부다 어디 쪼차가 알아볼까!』

『난실혀!』

『그럼 넌에잇거다 내얼른갓다올게!』

『또 싸울라구?』

귀순이는 눈을 할기죽흘겨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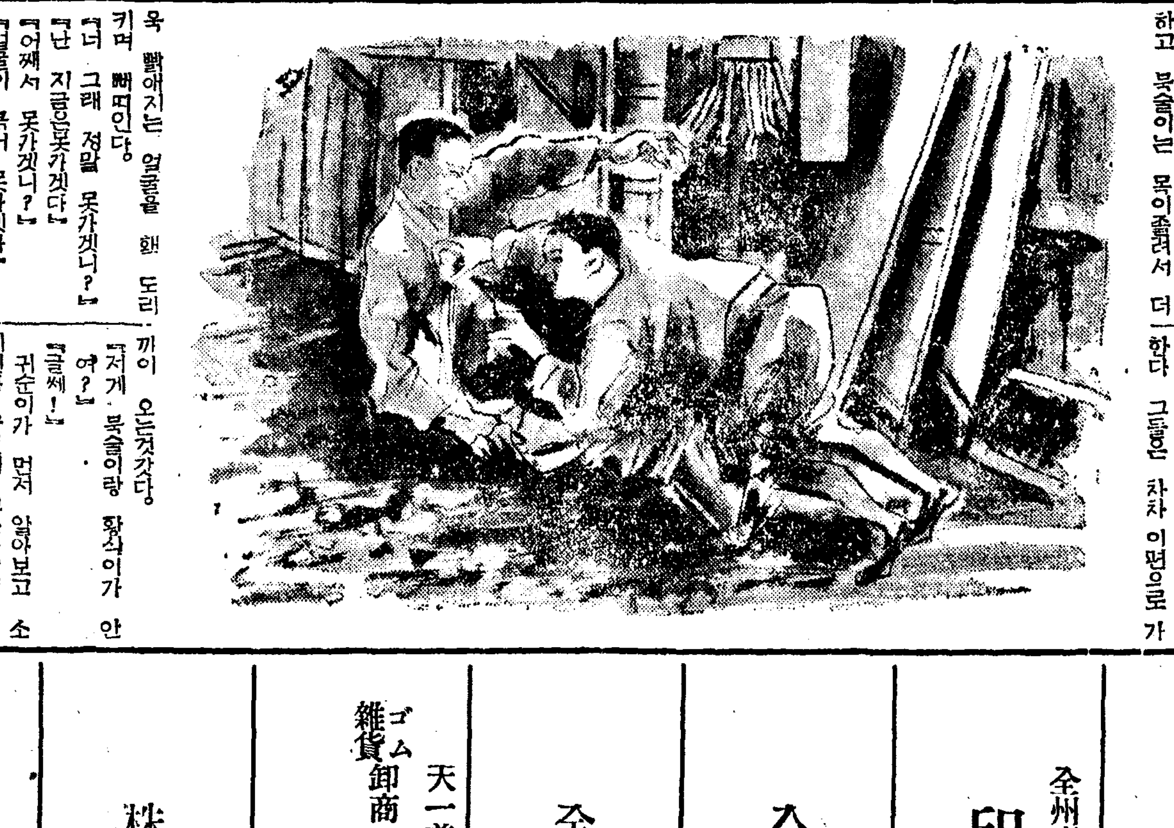
『싸우긴 왜!』

덕성이는 대답을 던지자 한다름에 껑충 껑충뛰어간다.

(재들이 싸우면어쩔까? 암만해두 무슨사단이 잇는거야!)

귀순이는 종시 불안한마음을 진정할수 업섯다. 까닭모를 반지가 웬비진가 십허서…

한나지 가까워오는 들판의 추섭은들 찌르르 운다. 만인의부락쪽을 당배바치무성하게 보인다 이곳 저곳서 버갈아우는 엿치들은 마치 제철이나 지나가는것을 슬퍼하는것처럼 二合고게 들린다.



全州

全州府大和町三〇三番地 朝鮮物産株式會社 電話二〇五番

全州産業組合 組合長 姜完善 理事 鄭台亮 電話七一七番

朝鮮藥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殷椿基 專務取締役 崔彰永 支配人 文義根

全州商工會議員 張炳善

全州 印昌桓

全州府會議員 印昌燮

全州穀物商組合

全州府廳

天一美術靴製造元 ゴム雜貨卸商 金泰基本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話四〇三番 振替京城一六三二二番

株式會社全州劵番 電話二一八番

全州七曜會

朝鮮料理 樂園 電話五三九番

全州府 大興紙物舖 電話一五四番

私立 海星尋常小學校

全州府會議員 白南赫

全州酒造株式會社 社長 宋柱祥 電話一三番

全州府淸水町 李春華

全州大和町二九八 海産物委托販賣 梁聖基 電話五三二番

全州郵便局長外職員一同

全州 陸桂植 電話三三番

全州府會議員 曺東玟

全州 柳鼎圭

全州府高砂町 カフエー銀河 主 文守煥

全州府大正町三丁目 東亞婦人商會 全州支店 電話三五六番

全州大正町 精米雜穀貿易商 金甲善

全州 崔昇烈

全州府本町 全一舘 電話二〇三

全州府會副議長 北本松雄

全州 布木商組合 組合員一同

全州府曙町一六六番地 全北麵子株式會社

全州府 初等學校職員會

全州道廳前 紳士洋服調進 三洋テーラー 電話取次三三六番

全州醫師會

全州商工會議所會頭 大木良作

全北公立高等女學校 全州公立高等女學校

全羅北道立全州醫院 職員一同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全羅北道支部 全羅北道金融組合

全州府會議員 辯護士 趙南石

全州 朝鮮酒 燒酎 酒造組合

全州地方專賣局

全州多佳町 朴榮鎬

全州料理屋組合

全州府大和町 全一證券社 電話七〇六番

全州府本町 李奉根鐵工場 電話一一七番

全州府本町一丁目 天一堂乾材藥局

朝鮮全州大正町六丁目 新炭雜穀 李右奉商店 電話四六一番

全州 金秉淳

綢緞布木 全州府大和町 李仁基商店 電話三一九番

全州府大和町 城南商會 主 姜東植 電話八番

全北全州高砂町七八番地 湖南自轉車店 金明洙

全羅線全州驛前 全共立國際運送店 電話四六二番

賀正

全州警察署

土曜會

全州師範學校

全州府高砂町 金德商會 主 金泉德 電話七一三番

全州公立農業學校

全州北公立中學校

全州南公立中學校

私立崇德學校

醴泉

醴泉邑官公吏一同

龍宮面協議會員 龍宮學校組合評議員 尹鳳鉉

虎鳴面協議員 金相敎

醴泉酒造株式會社 社長 張基生 專務 朴贊周 電話四六番

醴泉郡上里面古項洞 金忠主鑛業合資會社 醴泉鑛業所 職員一同

朝鮮料理 慶北線醴泉邑 甘露園

朝鮮料理 慶北醴泉邑內 樂泉館 電話七三番

甘泉面長 張秉奎
普門面 職員一同
知保面 職員一同
下里面 職員一同
龍宮面 職員一同
虎鳴面 職員一同

喪中欠禮 醴泉邑長 鄭寅鶴

金炫鍾

金元鍾

株式會社 大邱商工銀行 醴泉支店 電話二一番

豐壤面 職員一同

龍門面 職員一同

柳川面 職員一同

開浦面長 鄭淇默

慶北醴泉邑內 回春堂藥房 電話五六番 振替釜山七三二九番

柳川驛前 柳川酒造場 趙秉郁

甘泉面協議員 禹成慶

眉湖酒造場 尹世熙

慶北醴泉邑 米穀肥料 光一商會 主 全世鎭

醴泉邑內 永泉商會 主 黃善周 電話二二番

醴泉邑內 醴泉古物商會 主 朴光緖 電話三六番

醴泉邑內 永光寫眞舘 張秉德

醴泉邑內 日和自轉車店 李玉來

醴泉邑 金山旅舘 黃順南

醴泉邑內 食肉販賣店 金敬善

醴泉蔘業組合 尹政熙 朴奉洙

醴泉邑內 洋品雜貨 松屋商店 電話三二番

醴泉邑內 安永璨

醴泉邑 黃永瓚

慶北醴泉邑 醴泉種苗店 黃鍾洙

醴泉邑 綢緞布木 尹永燦商店

醴泉邑內 廣信蔘護商店 朴壽男

知保面 具滋囍

下里面協議會員 權兌燮

米穀商 張道根

開浦精米所 李晶雨

醴泉酒造場 鄭丸謨

開浦面協議會員 辛相珪

柳川面協議會員 張麟聖

醴泉洋服店 吳炳珣

醴泉邑內 松一ゴム商會 金泰錫

開浦面協議會員 白碩九

金物什貨 寶迫商店

金山商會 金文植 電話八番

大成自轉車店 申宇敎

醴泉酒造場 禹仁世

洋品雜貨 朴勝勳商店

醴泉酒造場 朴義祥

德浦酒造場 尹重鉉

三和鐵工所 金珪浩

釋日堂藥房 李衡杰

醴泉發賣 有名賣藥三十五種 製造本舗 醴泉郡醴泉面路下洞 日新堂藥房 電話七〇番 振替京城二〇七番

天安

朝鮮京南鐵道株式會社 本社 天安 電話(天安)六五、二八、三〇 自動車各營業所 神井館 溫泉 電話(溫陽)一六、一七、一八、一九番

朝鮮料理 天安邑 樂天舘 電一一四番

朝鮮料理 天安邑 昭陽舘 電一四八番

ペイント塗裝請負業 天安ペイント工社 忠南天安邑本町

天安鑛業會

笠場

忠南笠場市 鑛業 南基浩

忠南笠場市 飮食店 宋泰鉉

忠南天安郡笠場市 和洋雜貨 各種ゴム 李鍾觀商會

天安郡笠場市 趙春山

天安郡廳

天安邑

天安郵便局

天安郡公立學校長團

天安春洋會

南鮮合同電氣會社 天安支店

東一銀行 天安支店

天安酒造株式會社

天安郡 廣德面長 尹泰璇

宣川

宣川邑 亦樂幼稚園 電話二〇二番

平北宣川邑 藥種賣藥 厚生堂藥房 郭熙宣 郭熙成

忠南笠場市 朱洛天

天安郡成歡面成歡里 成歡酒造株式會社 笠場分工場 稷山販賣所

天安郡笠場面弘泉里 朱洛彥

笠場醫院 公醫 尹泰萬 申光休

忠淸南道天安郡笠場面良伦里 朝鮮中央鑛業株式會社 電話稷山金鑛五番

日本産金興業株式會社朝鮮出張所 天安第一鑛業所 洪城第二鑛業所 洪城第三鑛業所

忠南笠場市 平澤旅舘 主 李承兆

忠南笠場市 明月舘 藝妓 崔桂花 藝妓 劉一仙

笠場面富老里 無名鑛業會社

忠南笠場 張浩鎭

京釜線笠場驛前 大同精米所 盧貞福

忠南笠場市 支那料理 鴻春園

忠南笠場市 箕興理髮館 吳鍾奉

忠南天安郡笠場市 和洋雜貨 メリヤス 各種帽子 電球電池 金夏泳商店

開國鑛山 方李相云

忠南笠場市 信聖醫院 院長 李根燮

小井里

公州郡正安面廣亭市 布木雜貨商 孟泳鎬商店

忠南天安郡豐西市 片順成

天安郡豐歲面斗南里 李英夏

京釜線小井里驛前 支那料理 朝鮮料理 松竹園 主 申春植

豐歲市 布木商 李承暉

天安郡豐歲市 雜貨商 玄百淳

天安郡豐西市 魚物商 鄭漢吉

京釜線小井里驛前 金昌九木工場

朝鮮日報社小井里分局 支局長 崔時甲 記者 梁 記者 崔 集金員 崔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一

交戰、中立國商船被害

歐洲大戰勃發以來 三個月間의 交戰國中立國商船被害는 如左하다 英國七六隻(二三六、〇〇〇噸) 獨逸一〇隻(五一、〇〇〇噸) 佛國一五隻(六九、〇〇〇噸) 中立國四三隻(一四四、〇〇〇噸)

欧洲新秩序未來觀

中立難!參戰難! 左顧右眄 伊太利

參戰만하면 戰爭은全面的擴大

李相昊 (承前)

다음으로 獨逸과가장 緊密한 同一樞軸國인 伊太利는 어디로 갈것인가? 第一次大戰當時에잇서 同盟에서 協商側으로 背約한 有名한前科가잇는만큼 世間의推測은 區區할것이로되 伊太利의 今後態度는 常識的으로三種으로 생각할수잇슬것이니 첫째 獨伊樞軸定石그대로 獨逸에加擔할것 둘째는 이와反對로英佛陣營에 加擔할것 세째로現在와가치 獨逸側에 好意的中立을持續할것等으로 이三者中 어느一者를取할것은 勿論伊太利自體

인다

마지노線이나 지그프리드線가튼 施設이 업는限 英佛聯合軍을完封할 探算이 서지못할것인 同時에 伊太利가 自誇해 마지안는 數萬空軍이잇다하더라도 海軍에잇서 英佛에比肩이 못되는限 지브랄타르 스에즈 다다넬스等 英佛勢力圈內의 海口들이封鎖되는날이면 伊太利의 年來野望대로 地中海는 伊太利의內海가 될른지는 모르겟지마는 海外殖民地들과 連絡은 一朝에遮斷되고 資源의貧弱으로 有名한本國은 孤立化될것을 想像하면

하면으로 終末은 英佛側에加擔하리라는 觀測을드르면 西班牙內亂以來 獨伊樞軸의 傀力을利用하여 利益을만큼 肥大하게된者는 獨逸이요 伊太利는 겨우 一次大戰의 決算當時 어미來諾에가된 알바니아를 正式獲得한데 지나지 못햇다. 따라서兩國提携의 利益은 獨逸에게獨占이되어와슴뿐 獨蘇關係의緊密化는 蘇聯으로하여금 北歐에서만 歐羅을 默許햇슬뿐아니라 그餘勢는 드디어 빨칸에까지미

利益을엇는다고하더라도 伊太利로서 所得이무엇이되겟느냐는 매우興味를끄으는點으로 歐米評論家로 論評을하는者는「獨逸側에加擔하여 勝利를한伊太利는 英佛側에 加擔하여 敗戰할 境遇다

보다도 所得은 그다지 못하리란 는觀測도 잇서거니와 實로이戰爭中에는 今次大戰의 結果를 어느程度까지 豫測할수 잇는 含蓄이 잇는動向 英佛側의敗戰形式이 一次大戰當時獨逸과가튼 一種의 이낭것이라는 漠然한豫斷이 包含되어잇슴을 냄새채도나마 마출수잇슬것이다. 結論的으로보면 吳씨의首相의 비툴업는 現實的인政策과 아울러伊太利의 現在의 情狀態度를어느程度의 獨伊樞軸關係工作이 激化하고 못마땅스러운 蘇聯의빨칸工作이進行되더라도 現狀대로中立態度를取할것은 常識的理解로볼수밧게업다

의 利害得失에準하여 決定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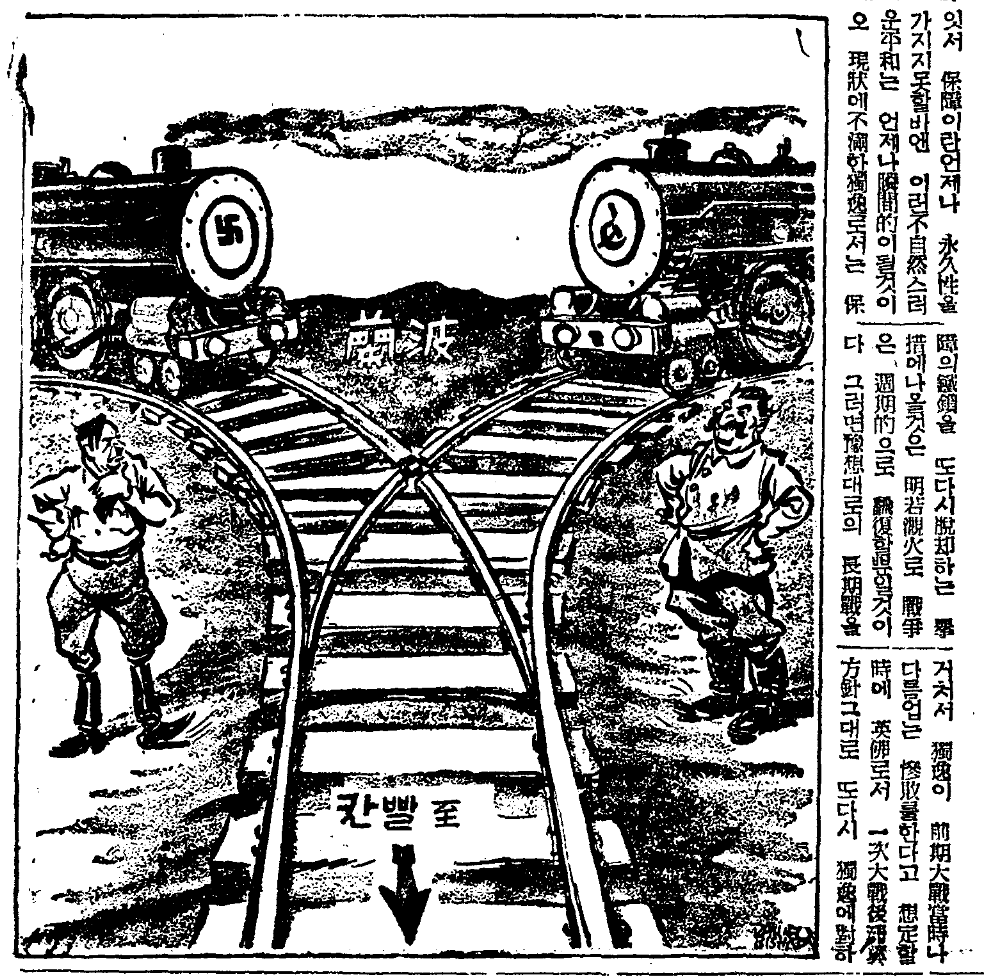
獨伊間의 軍事協定에依하면「締約國의 意思와 希望에反하여 締約國의一方이 第三國과紛爭을 惹起할時는 他一國은同盟國이되어 自動的으로 軍事援助에나갈것」이라고하엿다 이條約대로 본다면伊太利는 벌써獨逸側에 參戰을보앗슬것이로되 現在까지 中立을 嚴守하고잇는 意國는어디잇슬가? 이點에 對한 一般의見解를보면 伊太利의 中立은事前에벌써 獨逸의 諒解를 어든것으로그必要性에잇서서는 前項蘇聯의中立性을 說明할때도 槪述하엿슴과가치 現代의 中立性能은 中立으로서만 始終함이아니라 中立의立場을 利用하여는 交戰國以上으로 自國의利益을獨斷할수도잇는 同時에 同盟國間에잇서서 軍事援助以上으로實益的援助를 할수잇는 關係上伊太利의中立도 그地位를 利用하여物資의輸入其他로 同盟國을 援助하는한便으로 英佛을軍事에 牽制하여英佛로하여금 外交作戰의 圓滑을 缺케하고 一方米國으로하여금 中立을 持續케하는 效果에서는 伊太利가獨逸側參戰以上으로 獨逸로서는 집이갸벼거되는 利得이 잇는것이다 어바게自國標準의 利害打算을 본다고하더라도 佛伊國境에는 아직도

歐洲新秩序建設에 蘇聯虎視의威嚇

英佛이 戰勝해도 任意處斷은不能

以上에 잇서 今次戰爭에 有數한 中立國들의 今後動向을綜合하여 이를根據로 戰爭은 얼마나 持續되겟느냐? 英佛獨어느側이勝利를 獲得할것인가? 平和形式은 어떠한 方式으로? 平和後에올 歐洲의 新秩序形態는? 이럿듯한 題目이 順次로머리속에떠오를것은 이戰爭에關心을가진限 누구나 가질수잇는疑問으로 여게셔 輕輕한豫斷을許치는안는바이나 아프로 複雜한 歐洲國交에잇서서 各樣各種의 境遇를 想定하고 常識的인範圍에서 推斷을 試한다면 첫째로 今次戰爭을 戰者들은누구나 長期戰으로 持續될것을 豫測하고잇다 그러나 現在의戰況으로미루어본다면 兩方의 底意에잇서서 戰爭廻避에對한執着心은숨기지못할事實로 最少限度라도安協條件만發見된다면 아즉도戰勝國이라던가 戰敗國이란立場을떠나서 平等外交的인 媾和를할수잇는 餘地가잇슴에따라이境遇에限한觀測은 가장容易할것이나 獨蘇의波蘭占領을 英佛이旣成事實로是認하고 다음에나올獨逸의 侵略行動에 有力한保障만英佛側이밧게된다면 平和再臨도無難스러울理論이나 國際條約에

잇서 保障이란언제나 永久性을가지지못할바엔 이런不自然스런운平和는 언제나瞬間的이될것이오 現狀에不滿한獨逸로서는 保障의鐵鎖를 또다시脫却하는 擧措에나올것은 明若觀火로 戰爭은 週期的으로 繼復할것이다 그러면豫想대로의 長期戰을거처서 獨逸이 前期大戰當時나다름업는 慘敗를한다고 想定할時에 英佛로서 一次大戰後方策方針그대로 또다시 獨逸에對하



必至序設될것이다. 이境遇에잇서서 歐世紀間을두고 地球上에君臨해온 大英帝國의體制는 欲不欲을不計하고 大修正을免치못할것은 當然한論理로서 이가른새秩序의規定이 成功的으로만 完定된다면 列國의資源의 均勢에伴한 勢力의平衡으로 어느期間은 平和를期待할수도 잇슬것이다. 언제라도 한번은 오고야말大英帝國의 世界支配機構의 修正을압두고 怜悧한 英國學者로웰스와 하슬레가튼 學者들은率先하여 歐洲聯邦制가튼 嶄新한國際秩序에關한 理論을 提唱하는바도잇스나 英佛이 領有한資源의 開放과 植民地 占有制의修正이업시는 이러한 新理論도結局은 空談으로 밧게 流行될뿐일것이다.

그러나 物質力의 均勢保持만이 國際平和의 活素가될것도決코 아니오 思想問題 民族問題人種問題等 錯雜한矛盾을 人類의 타고난 缺陷이 根本的으로是正되지안는限 理想的世界秩序의 樹立이란 人類의 能力圈外라고 보는것도 妥當치안흘가? 人類의 理想的새世界秩序를 압두고 人類의 苦悶은 戰爭을 唯一한表徵으로잡고잇나니 이苦悶의 重復이 畢竟은 어떤形式이고 새秩序를 約束할것이다.(終)

惡夢에不安한小國

漁父의利를노리는伊蘇

歐洲에잇서서 小國群으로 볼 帶、中歐、빨칸三地域에 集團되어잇는 數個國을除한 新興乃至弱小國家群은 大部分이 第一次大戰의 結果로 英佛이 午耳를잡고來配한 國際聯盟을 背景삼고新生도되고 分合도되고 規定도된 國家들이다. 이地域들은오도 時代時代를 따라歐洲大國들의 角逐場이되어戰爭의火因도되고 結果도되어온것을 常時英佛은 民族自決主義를 原則으로 國境을 定하되이三個國家群을 強力的結合을맨드러 안만히 歐洲大國(獨逸을目標)들의 勢力角逐의 戰場이안되도록 周旋을한것이다 이러所以에 따라 이小國群들은英佛의 손에가안못고코스길을 쉬지안흔 小國으로엇슬만큼 英佛勢力으로 紐帶를 만들어노앗던것이다. 그러나 이와가치 英佛의百年大計도 멋해를못가고 歐洲의 安定勢力인 英佛勢力에 離隙이생기고 獨伊의頭角이 突出된뒤로부터 이小國들間에는 不知不識中 分化作用이 이러나게되면서英佛勢力에 懷疑를 가지기始作하다가 結乃獨逸의敗屈로淸天霹靂가치 墺太利의合併、체

코의合併等 事實로歐洲小國群에게 恐怖的衝動을 이르키며 不安中에「英佛을미들수업다」는 哀傷을 發하게되엇다 따라서小國群間의 團結은 英獨파가치 漠然해지여 獨伊에接近하는 傾向을 보이는나라도잇스며 英佛에 泣訴하는나라도잇서서 英佛의 對小國群策에 一大異狀을 일으키게되엇다 더미처 今次戰爭의 勃發과波蘭의 滅亡과 聯邦 蘇聯의蘇聯進軍을目擊하자 英佛의實力을 決定的으로 認識하고 各小國들은 決然 自衛策을 講究하는一方 絶對中立을 宣明하여 戰爭의飛沫을 避코저 各自國策의하고잇스니 이가지小國들의 中立態度는 今後戰爭이 獨逸에게 敗하여 어느側이고 敗戰할 氣色이確然히 判明되기까지는 정으例外를除한限 그대로 維持될것으로中立小國들에 對한 威嚇는 直接交戰國인 英佛獨보다도 蘇伊兩國가치 漁父의利를 노리고잇는 中立大國들의 傍系的策略이니 더욱 무서울것이니 이 群小國들은언제나 大國의 勢力均衡上分銅노릇을할 運命이될것은 틀림업는 觀測으로 各自將來의 運命에惡夢을 엇고잇슬뿐이다.

國際道德頹廢論

"力即正義"의態度

列强은中立國利害無視

③ 金明植

그런데 英米佛等民主主義國家에서는 獨逸의 國際政策은 무엇이나 侵略行爲라하여 極口非難하지마는 今次戰爭前期에 잇서의 獨逸의 行動은 英國보다 正當한것이잇다 勿論英國과獨逸이 自衛와 侵害를 각기發表하여 저스스로 辯護한것은어느것이나 同國되지안는다 그러나 獨逸의 發表와가치 獨逸도처음부터 戰爭할 意思가 업섯든것은 事實이다 그리고 英國

이 東京會談에서 갓자기讓步하여 武力으로써 獨逸을 壓迫할 態勢를지엇스나 獨逸은 波蘭에 對한 十六個條의 要求를平和手段으로 貫徹하라 하엿고또英國이 波蘭과 援助協定을締結하여도 獨逸은 英國을 指彈치아니하엿다 그러나 波蘭側에서 먼저 軍事行動을 開始하여國際問題까지 생기게되니 獨逸은 波蘭을 攻擊하엿다 그리고波蘭이 먼저軍事行動을 開始한

것도勿論 英國의指揮에依한것이니 허물며總裁의말과가치 戰爭의挑發者가 英國인것은 分明한일이다

그리고 戰爭이開始된以後에잇서서도 우에말한바와 가치獨逸의潛水艦戰術을 口實로하여 中立國의 通商을阻害하면서 强大國의 抗議에 對해서는 緩和를約束하고 弱小國의 抗議는 不問에 부치고잇는것은 中立國에對해서까지「力即正義」라는 態度로 臨하는일이 아니라할수업다 또新聞紙의 傳하는바에依하면 國際聯盟委員會에서는 蘇芬紛爭에對한 蘇聯除名과 芬蘭援助案을 採擇하여 이것을 總會에 附議한다하엿는데 同總會에서 그것이 通過되거나 아니되거나 國際聯盟은 英佛兩國의陣營인것은 누구도 모르는바아니니 英佛兩國이 國際聯盟을通하야 그와가치 蘇聯을制裁할터이면 英國은 蘇聯과 새로 通商條約을 締結하지말고 宣戰布告하는것이 올치아니한가고 생각한다 그리고 國際聯盟의 決議로 弱小國家를救한 歷史는 하나도 차저볼수업고 또芬蘭問題에잇서서도 新記錄을 짓지못할것은分明한일이어니와 여기에서도 英國의行動은 戰爭의解決을考慮한일이 아닌것을 否定할바아니니 一方으로 蘇聯에對하여通商條約을 締結하면서 媚態를드리우는것은 卑劣한일이 아니라할수업다

그리고 長期戰을宣傳하는 英國의 戰爭目的이 二個月이못되어 變更된것은 特히注意할일이다 적어도 道德價値를 判斷하는標準이 主觀的으로는 一定한것이잇서서 反覆無常한行動이업서야할것인데 英國은 戰爭目的에對하여 일직 히틀러리즘을 나치스打倒를 放送해오다가 去五日英國下院에서 할리팍스外相은國際秩序의再建이 戰爭目的이라하엿다. 大朝十二日附社說은「所謂歐洲의新秩序」라는 題下에「宣戰布告後 이미三個月이지난今日에잇서서 오히려 戰爭目的에關한議論이 行하고잇는것은 怪異한 事實이다」하고 『歐洲新秩序의建設 國際秩序의再建이라하여도 그實現과 有效한運用과의困難한것은 國際聯盟의經驗에徵하여도 分明하다』하여갈팡질팡하는英國의態度를嘲笑하엿다

그런데 우에서도 말한바잇거니와 國際道德이 마캬베리즘化한것은 언제나 오늘에 새로생긴일이 아니지마는 最近에 와서 그것이 一層顯著해졋다 그리고 그原因은 勿論 資本主義가 마다다른로에 이른까닭이다 文明의沒落을 부르지지는소리가들리는것은 偶然한일이 아니거니와 이現實을促進하여 局面의一層惡化를 招致케한것이 國際聯盟의 存在인것은 말할必要도업다 元來國際聯盟은 資本文明을擁護하기爲하여 組織된機關인데 資本利益이 小數國家에게만되니 그것이 이들의 小數國家의利益을 擁護하는機關으로 化하엿고 그리하여 이들의小數國家는 저의利害와背馳하는 다른國家의運動을 이로써 壓迫하게되니 이들의利害와 調和할수업는國家는 이機關으로부터 脫退하엿다 그러나 그리할때마다이機關은 헛되히決議만일삼아서實力에呼訴함을 피하지아니하엿는데 그것은 資本國家의 勢力이 二分되야 互相反擊한까닭이다 即米國은 國際聯盟에 加入치안코 米洲에獨居하야 所謂모로主義의 資本世界를 따로組織하고 國際聯盟과 對立態勢를짓고잇스나 國際聯盟은 일직 實力的의 國際機關이 될수업섯고 따라서 그것은 國際問題를맨드러내면서 그를 解決할能力이업서 國際政局의 날로混亂의度를 더해오다가 마침내 現在와가튼 現實이 展開되엿다 그러므로 米國은 資本文明의守護神으로 自負하고잇스나 資本文明의 沒落을 말하게된 이現實이 展開된것은 米國에責任이업지안타

要컨대 最近의 國際政治史는罪惡의記錄이오 그大部分의 責任이 英國에 잇는것은 말할必要도업거니와 다른一部分의責任이 米國에잇는것도 確實한일이다 그리고 國際道德이 마캬베리즘 化하여 文明이 깨어진狀態에 빠지는것을 悲觀할것이업다 그것은 必然으로해서 歷史的 意義가잇다는것을알면 그만이다.(完)

明月溝

間島省延吉縣明月溝 明月溝病院 院長 金興麟

滿洲國延吉縣明月溝市 綢緞布木 和洋雜貨 德昌商店 電話三五番

間島省延吉縣明月溝市 甲種料理 天香園 朴明順

間島省延吉縣明月溝 東興銀行明月溝支店

營業品目 最新流行洋靴 京圖線明月溝市 世昌洋靴店 電話二〇番

賀正

間島省明月溝 平山藥房 申泰晧

間島省明月溝 綢緞綿布 ゴム靴雜貨 元興商店 電話二六番

間島省明月溝中央街 和洋百貨 既成洋服 滿一洋行 電話一七番

滿洲國間島省明月溝市 海陸物産 貿易委托 運送取扱 鳳山商店 李 支店 吉林省敦化縣城北門內

間島省延吉縣明月溝 朝鮮高級 輕便料理 三和樂園 主 柳順任 電話七七番

間島省延吉縣鳳寧村 鳳寧村公所

間島省延吉縣石門村 石門村公所

滿洲國京圖線明月溝市 パイロット萬年筆特約店 金本時計店

滿洲國京圖線明月溝 食料雜貨 惠明商店 金奉鶴 電話七四番

滿洲國京圖線明月溝 洋品雜貨 信一洋品店 電話七五番

間島省延吉縣明月溝市 御料理 千歲樓 沈淳得 電話七八番

滿洲國間島省明月溝市 既成諸服 洋裝雜貨 金盛商店 支店 安圖大甸子

間島省延吉縣明月溝 穀物貿易 委托販賣 海南商店 電話一一番

間島省延吉縣明月溝 參茸唐草 藥種直輸 入都散賣 回春堂乾材藥局 主 李 電話 京一八番

間島省延吉縣明月溝 朝鮮料理 明月館 電話六八番

間島省明月溝市 高級人像專門 朝日寫眞館 電話七三番

南忠烈 電話七六番

滿洲國間島明月溝市 陶磁器類 和洋金物 都散賣 慶安商店 電話一〇九番

間島省明月溝中央街 和洋百貨 既成洋服 日滿洋行 電話二八番

滿洲國國定教科書指定販賣所 滿洲國新制度量衡器販賣所 天興乾材藥局 天興書籍部 振替新京一一八〇番

滿洲特産 白米小米 其他雜穀 和信商會

間島省明月溝中央街 高級紳士服 學生服 婦人子供服 洋品雜貨類 松一商店 電話一〇九番 電略マツ(又)(ヘ)マツイチ

間島省延吉縣明月溝 明月溝幼稚園 園長 李元昊

間島省延吉縣明月溝 和洋雜貨 文房具 卸小賣 高級既成服 鮮一商店 李元 電話七九番 電略(セン)又ハ(セン一)

間島省延吉縣明月溝 金光堂製菓店 主 崔聖權

明月溝市 天寶號

間島省延吉縣明月溝 間島冷麵家 趙權寶

間島省延吉縣新安區 間島測量社 主 卜箕院 電話二五七番

京圖線明月溝 洋品雜貨 松昌商店

朝鮮料理 遊樂館 金鳳順 電話六五番

間島省延吉縣明月溝二ノ一五 三共商會 文相珏 電話六二番

間島省延吉縣明月溝 崔奎商

滿洲國京圖線明月溝市 食料品一切 果物 和洋雜貨 丸一洋行 電話四五番

京圖線亮兵台驛前 亮兵台醫院 醫師 朱光範

滿洲國京圖線明月溝 日乃丸寫眞館 主 趙鶴玟 電話一〇五番

京圖線亮兵台驛前 綿布雜貨 穀物貿易 薪炭販賣 廣澤商店 主 金鳳淳

京圖線明月溝市 金星商店 主 金在鎬

間島省延吉縣石門村 公立新成國民學校

明月溝木材同業組合

間島省延吉縣明月溝 金必聲

間島省延吉縣明月溝 公立新成國民優級學校

間島省延吉縣明月溝停車場通 綢緞布木 明月商會 主 張元七

間島省延吉縣明月溝 敦化朝酒造場特約店 醬油 味噌 川合商店 安炳朗

零時

碧潼郡零時市 鑛業 李明國

平安北道碧潼郡零時 時計印刷印章 金銀細工眼鏡 食料品及賣藥 大和堂 金秉淳

碧潼郡零時市 朝日時計店 主 白時云

碧潼郡零時市 朝日寫眞館 李昌曾

忠滿醫院 公醫 白承燦

碧潼郡零時市 日の出寫眞館 文暎官

時計細工 樂器 ミシン 光信時計店

零時公立尋常小學校

碧潼郡零時面

平北楚山郡南面 牛車組合長 邊應辰

朝鮮平北碧潼郡零時 洋服商 大昌洋服店 金智根

碧潼郡零時市 銀花旅館

碧潼郡零時面雲下洞二二九 吳寬淳

碧潼郡零時面 有馬純男

平北碧潼郡零時 碧潼金融組合零時支所

平北碧潼郡零時 百貨 零時和信連鎖店 電略(ワ)又ハ(ウシワシン)

最近우리스포—츠界는 各部門에 飛躍的發展을 보이고잇스나 이는 男子에 限한感이잇고 女子體育振興에 對한 一般의 關心은 頗히 冷淡하여 健全한 母體를 涵養하는데 가장 根本的인 女子體力은 民族의 繁榮上 未來永劫不變의 重要問題이면서도 우리 體育界에서는 이를 아직도 論議한 바업섯다 이에 本社運動部에서는 一般民衆에게 女性體育에對한 기픈 認識을 가지게하자는 意圖下에 體育家와 및 女子體育向上을 爲하여 獻身하는 各女學校先生諸位에게 다음의 멧가지를 물은 바 이제 이를 紹介하기로 하자

設問

一、女子競技界의 向上策에 對한 貴下의 意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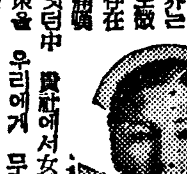
二、家庭婦人에게는 어떠한 運動을 어떠케 奬勵할까

三、朝鮮女子의 體格의 缺點과 그 矯正策

四、新年의 새計畫

競技가 全般化하면 優秀選手自然輩出

同德高女 裴福信



一、오늘의朝鮮女子스포—츠界는 너무도 微微한 存在임을 痛嘆하고 잇던中 貴社에서 女子體育의 振興策을 우리에게 무르심에 對하여는 時機에 適切한 重大한 問題라 거듭 感謝를 表하여 마지안습니다 먼저 競技者들의 自發的 精神을 涵養할것과 理解를 기르도록 認識시키는 同時에 무엇보담도 一般家庭에서 子女들의 選手生活에 對한 諒解가 잇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年內에는 女子競技會가 만허서 一般에게도 求景할 機會를 만히 주는것이 上策일가 합니다 各學校에서도 競技의 全般化를 꾀하는것이 이때임으로 만흔 女生徒들이 競技에 熱中하면 自然히 優秀한 選手가 輩出될것은 疑心치 안흘것입니다.

二、朝鮮家庭과 가치 運動을 奬勵하기에 힘든 곳은 世界에서 中國 다음엔 갓것입니다 假設 侍下를 모신 家庭에서 젊은 며누리가 保健運動을 한다면 금방 禁止令이 내릴 상십습니다 四年동안에 꼽게꼽게 자란 女學校의 體育生活도 卒業後이면 아무效果업시 體育은커녕 體育의 原理를 이저버리게되는데 이學校出身의 女性들만이라도 率先하여 어멈을 督勵하고 早朝起床하면 부억에 나갈때에 深呼吸을 하고 簡單한 徒手體操 가튼것을 日常 實行하면서 이러한 精神을 이웃집家庭婦人들에게 奬勵하도록하면 우리의 第二世부터는 充分한 認識과 實績이 잇슬것입니다. 和蘭가튼 나라에서는 農園에 家族들이 日曜日을 利用하여 나가서 「꼬레떤트레—스」(갈지심으기競爭)가튼것을 한다고합니다 이얼마나 平和스러운 運動이겟습니까.

三、무엇보담도 運動量이 적으 …… 키가 적고 꽁꽁한 분이 만습니다 胸圍가 적은것은 衣服을 입는데 發育期부터 가슴을 졸러매는것을 그만두어야하겟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때에 어머니가 注意하여 다리가 구부러지지 안토록 햇스면 합니다.

四、새해에 바라는 바는 …… 人이된 女性을 體育運動에 끌어내기 爲하여 어머니의 會라던지 또는 同窓會를 主體로 움직일수도 잇겟스나 現下時局에 잇서서 婦人團體로 愛國婦人會와 國防婦人會 가튼 組織으로 女性體育을 못토—로 모여서 女性體育團 가튼것을 組織하여 一週間에 몃時間이라도 適當한 運動種目 또는 體操와 遊戱를 하는 무슨 組織이 잇섯스면 합니다.

食母를廢止코 全部를自己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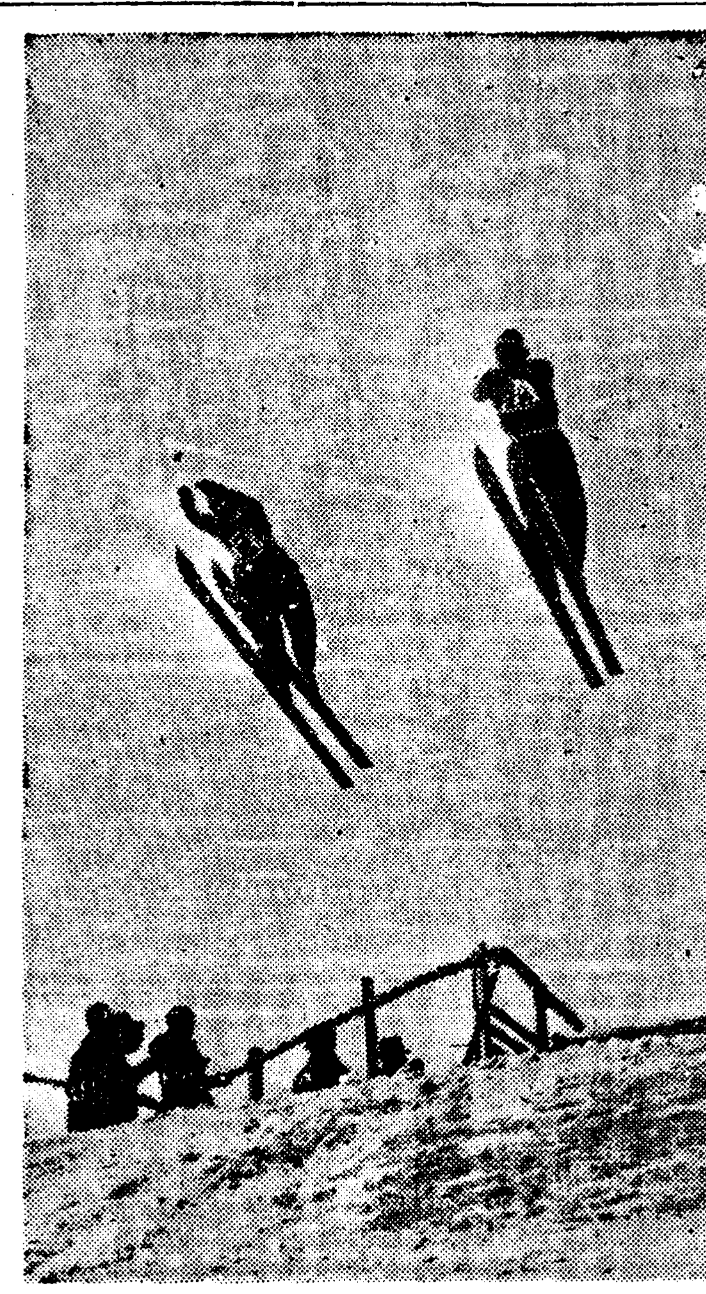
平壤西門高女 李仁淑

一、興味娛樂의 目的을 遂行하자면 人的 또는 物的으로 國家總力을 다—하여야할 非常時를 當하여 우리女性들의 體位向上은 重大한 責務이어서 여기에 보다지 또는 其他의 方面으로든 다고하더래도 從來의 個人競技보다는 今後로는 女性의 競技를 集團的競技로 向上시키기 爲하여서는 救護運動競技 防火訓練競技等의 國防競技로 女性들의 體位向上을 期成하는것이 우리女性의 競技界의 向上策으로 생각합니다

… 動에對한 理解를 가저야 하겟습니다 그러므로 簡單히 말하면 主婦는 家事一齊를 自己 손으로 (食母廢止) 實行하는것이 絶對로 必要합니다 女性의 身體에 有益도 되고 物質節約도 되는 點으로도 보아서 電車나 自動車를 타지말고 徒步로 하고 또는 라디오體操를 하는것이 家庭女性의 適當한 運動으로 생각합니다

三、朝鮮女性의 體格은 外國女性의 그것에 比하면 短點이 만타고 생각합니다 우리女性은 風俗과 習慣等으로 體格의 缺點이 만케되는데 例를들어 말슴하면 重量物의 運搬으로 因하여 脚部에 不自然한 發育을 보게되고 또는 乳房의 壓迫으로 胸部의 發育을 防害하는것들은 內臟機關活動을 害하게됨으로 이와 가튼 缺點을 矯正하는것이 우리女性에게 明朗한 體格을 所有케 하는것이라고 봅니다

四、新年새計畫으로는 技術敎育보담도 健康敎育을 樹立시키어야 할줄 압니다 웨—그러냐하면 今後의 體育은 社會體育도 아니고 學校體育도 아닌 國防力의 充實이란 國家的見地로서 出發하는 國民生活의 合理的이며 効果的으로 健康을 增進하는 健康敎育이 絶對로 必要할줄 믿음으로 이새해는 健康敎育을 計畫하겟습니다



女性體育을 再認識하라

咸興永生高女 李貴德

이업서서 競技를 할때에는 먼저 勝負의 觀念이 커서 … 는것이 女性의 天性일가합니다 一旦競技에 臨하면 自己本位로 自己에게 興味잇스면 熱을내지만 그러치안흐면 競技가 되거나말거나 不關하는 態度 … 殊이 如一치못한것이 女性의 特殊한 缺點이고 缺點이되기때문에 이點을 認識하고 矯正하는것이 女性競技의 向上方針이라고봅니다.

二、이 家庭問題에 關하여서는 누구나 다알고잇는 바와가치 朝鮮女性은 一般的으로 … 缺點 … 女性의 體 …

一般家事를運動化하자

平壤正義高女 全成來

一、日常생각하던 바를 말슴하면 무엇보담도 精神上의 問題다 고생각합니다 … 者가 運動精神을 充分히 認識하여 더高潔하여야 하겟다고봅니다 더욱이 女子는 모든것이 感情的이어서 男子와가치 胸襟이 寬大한 … 써 大端히 關心하는 問題고 봅니다 學生時代의 運動을 하던 女性들이라도 家庭生活을 하게되면 家庭에서 運動까지도 忘却하는수가 만케되나 이것을 朝鮮家庭으로서 어찌할수업는 事情이나 新女性으로서는 새時代思潮에 適應토록 一般家事를 運動化하면 適當한 運動이 될줄 압니다 新例를 말하면 『빗자루』『洗濯』『장작패기』『掃除』等이 家事로서 이것을 運動化하면(그外에도 만켓지만) 適當한 運動이 될줄압니다.

四、新年의 새計畫이야 每年이 때가되면 새計畫을 세웁니다만 모두가 計畫을 세울때와는 달나집으로 今年에는 꼭 決心을 한대로 어떠한 支障이 잇더래도 適當한 計畫입니다 具體的으로 세운計畫은 업습니다만 今年에는 體育精神을 爲하여 이方面에 獻身도 卒生徒들을 指導하며 또 가치 努力할 計畫입니다.

二、우리女性가생각한 家庭에만 들어 부터저녁 아까 (動 … 치人形 저잇는 큰弊風이 잇습니다 이것은 生의 原則이 아니겟지요 그럿타고 學校時代와가치 家庭을 버리고 運動에만 投入할수도 업는것이지만 다음과 가튼 簡單한 運動이라도 하엿스면 조켓습니다 아침일찍이 「라디오」體操 할것이요 外出時에는 반드시 徒步로 다니고 日曜日가튼때에는 될수잇스면 「피크닉」「登山」郊外散策」等을 하는 習慣을 가지는 것도 조흘것입니다 이와가치하는 것이 家庭婦人들의 運動을 獎勵 …

… 는 歐米女性과가치 하엿스면합니다 셋째로는 一般社會가 女性의 體育을 再認識하여 理解하고 援助하는것이 女性體育의 向上을 圖謀하는 最上策인가 생각합니다.

… 가면 아침까지 손바닥만한 性家 … 니다 … 때도 하지안코 가만이안 … 附設이 다르지만 … 마 … 自己의 缺點을 … 리에두고 恒常 … 常生活에 잇서서 가지 缺點방음을 矯正하지면 每日適當한 運動即 徒手體操 … 徒步行進等을 規則的으로 하는것이 조흘 줄 믿습니다.

四、新年의 計畫은 별로업습니다만 女性競技에 잇서서 가장 適當한 運動方法과 女性들의 體位向上을 爲하여서 微力하나마 힘쓰고자 하는것이 새計畫입니다.

저 옛날의 習慣을 固執하지말고 좀더 活潑하게 學校에 參加하신 女性 … 業하 할것이 다. … 은 女性 學校를 나오면 누구나 運動을 버리는 것이 一般의 傾向인데 歐米의 그네들은 家庭婦人이 되더라도 一定한 運動을 繼續한다고하니 朝鮮女性들도 아프로 … 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三、朝鮮女性들은 우리의 … 에따라서 … 關係로 더욱 下肢가 곳곳지못하다고 봅니다 또 朝鮮의 體格上으로 보아서 女性은 가슴을 꾸부리고 머리를 이고 다니는 習慣을 가지기 때문에 胸部와 頸部의 發育이 不充分하 … 이 … 徒 … 이러한 … 的 … 을 不許한다 … 으로 … 와 … 에 … 하여 一人이라도 더만히 一步라도 더 아프로 一分이라도 더 …하게 日日又日新하여 國家와 社會와 人間文化와 時局의 … 에 연입하시하여야하겟다 以上으로

→보라! 七十老軀도 이러케 體操를……

新春에 우리 體育關係者 또는 競技道의 先輩諸賢의 同志諸友와 함께 서로 自重하는 마음으로 … 고자 한다

스포—츠 金言

◇…競技場은 歡樂場이 아니다.

◇…스포—츠는 新時代의 리듬이다. 現代의 脈搏이다.

◇…힘의 病院을 세우는것보담도 하나의 水泳場을 말들라.

◇…選手權을 獲得하는것은 至難하다. 選手權을 連續保持하기는 더욱 至難하다 그러나 한번 때앗긴 選手權을 또다시 奪還하기는 더욱 至難한다.

◇…스포—츠는 힘의 集積이다. 힘의 消耗는 아니다.

◇…스포—츠에는 富者도업고 貧者도업다. 스포—츠는 人間의 것이다.

◇…藝術과 스포—츠는 兄弟이다 웨그러냐하면 藝術은 精神의 解放을 求하고 스포—츠는 肉體의 解放을 求한다.

◇…精神과 肉體의 所有者인 人間은 競技로서 그 自身을 解放한다. 精神의 競技 그것은 藝術이며 肉體의 競技 그것은 바로 스포—츠이다.

長津

江界水電株式會社 建築請負 高炳均

長津郡北面仁山里 木材商 長林商會 朱在璿

咸南長津邑內 紳士服專門 富屋洋服店 主 金基順

咸南長津邑 高級洋服調進 第一洋服店 尹宗漢

咸鏡南道長津邑內 ポートレート コロタイプ 撮影 寫眞 引伸 商業寫眞 日之出寫眞館 金榮珉

咸南長津邑內 長津面協議會員 朱在玩

咸南長津邑內 朝鮮料理 咸興館 主 崔斗俊

咸南長津邑內 朝鮮料理 太陽館 主 崔泰星

咸南長津邑內 朝鮮料理 太陽館 藝妓 李富子 本籍北靑邑內

咸南長津邑內 藝妓 韓春子 本籍平北江界別河面

咸南長津邑 時計寶石及貴金屬販賣修繕 精確堂時計店 主 金亨燮

咸南長津邑內 各國時計及眼鏡販賣 修繕 印刷 止時堂時計店 印刷部 主 金貞浩

松屋 金夷起 裵定奎

咸南長津邑內 米穀貿易 明虎翊

淋病特効藥 コンチリン特約店 藥種商 榮堂藥房 李榮燮

長津邑內官公署 同志俱樂部一同

咸興タクシ株式會社 長津營業所

咸南長津邑內 米穀 雜貨商 富榮商店 主 池正官

精米業 東興商會 電話五一番

龍成醫院長 金成柱 電話三六番

三成鑛業株式會社 龍岩浦製錬所建設事務所

有志 金在俊

龍岩浦 大昌精米所 電話五五番 電略タイ(又ハ〇シヨ)

綢緞布木 龍洋商店 (長)電話一〇四番

龍岩浦警察署

龍川面事務所 職員一同

龍川面長 羅熾根

司法書士 邊庸鑽

面協議員 張根輝

龍岩浦屑井町 支那料理 蚨來棧飯店

有志 金致善

龍川金融組合

和洋雜貨 食料紙物 寬熙商店

泰昌麵店

黃登面協議員 金建春

…… 韓漢錫

黃登 朴智根

海登産業株式會社

黃登 精米 材木 朴相德

全北道會議員 片桐三

黃登 朝鮮料理 新興館 鄭海龍

黃登 金南植

黃登 金商英藥局

黃登驛前 臨益水利組合

黃登

黃登面協議員 鄭炳鎔

黃登面協議員 尹秉局

沃溝郡瑞穗面琴山石里 朴老宗

三登面長 朱鍾洛

龍井

營業科目 工場製品 油、牡丹味噌、醬油 ミノサン酢 商品、富士 柴行 食料品 藥品 寶丹 高麗人蔘 朝鮮酒 造酒 食料原料 醬油 間島省龍井街 合名會社 東興號 貿易商 支配人 尹明信 電話三〇七番 電略(リ) 支店 圖們

滿洲國間島省龍井街 本社 龍井貿易株式會社 電話一七二番 支店 滿洲國間島省圖們街 滿洲國牡丹江省牡丹江市 滿洲國吉林省敦化街 電話二五番 電話二三四番 電話一八六番 駐在員 朝鮮咸北淸津府浦項洞 電話二七六番

龍井街 綿布商 李永植商店 電話三二八番

滿洲國間島省龍井街 株式會社協信社 株式會社淸津府浦項洞八九番地 淸津出張所 電話三四七番 電話三二〇番

滿洲國間島省龍井街 綿布 貿易 富裕商會 電話一三七番

間島省龍井街 東滿社 電話二三八番

間島省龍井 中央寫眞舘 電話四〇八番

間島省龍井街 株式會社鮮滿皮革社 電話二二八番

財團法人 光明學園 理事 鄭士斌

龍井街 山下堂時計店 金昌道

三寶鑛業株式會社 電話四一九番

三和物産株式會社 電話三四二番

滿浦線价川驛前 特産品 絹織物 製造元 龍成商會

平南价川邑內 絹織物 製造元 朝日染織所

滿浦線价川驛前 海陸物産 穀物貿易 精米業 獨山商會

价川鐵道醫務室 金秉周 金秉朝 金秉德

平安南道价川郡价川面軍隅里 日鐵鑛業株式會社 价川鑛業所

朝鮮价川本町 和洋百貨 价川百貨店 電話長一一番 振替京城二〇三七五番

价川邑內 大絹 絹紡 綿綢 製造元 平南染織所

滿浦線价川驛前 朴潤根商店

滿浦線价川驛前 東一染織所

平南价川邑內 自轉車及附屬品 各種肥料 農具一式 榮輪商會

平南价川郡北面 龍登染織所

价川醫院 院長 金采說

江界電氣株式會社 价川分工場 電話一八番

价川本町 綿布商 普信商會 主 禹三鳳

价川市場通 綿布 精米 穀物 製絹 西鮮商會 主 白來淳

枇峴

京義線枇峴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枇峴代行營業所 枇峴丸星精米所 枇峴丸星製材所 (振替口座京城一〇四八五番)

京義線枇峴驛前 穀物 食鹽 各種 고무 紙物 石油 日用雜貨 枇峴農民共生組合 專務 趙鳳祥 電略ヒノ(又ハ)피농

滿洲濱洲線滿溝驛前 特産 物貿易 精粟、精糯 委托 賣買 三信商會 代表 金俊典 專務 白元禎 取扱銀行 中央銀行 電話五六、二一番 電略(サン)又ハ(サンシン)

枇峴日の出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京義線枇峴驛前 各種果樹 苗 … 岐亞種苗園

昭和十四年度 朝鮮스포-츠 殊勳의 NO.1을

光榮잇는 敗權을 거두고 저무른 지난해를 回顧하야써 一年동안에 거긴 貴重한 記錄을 더듬어서 各種目의 NO.1을 選定 本紙新年號 運動欄에 揭載하여 해마다 興味를 이끌어가든 바이엇거니와 이제 지난 昭和十四年度의 醍醐를 參考로 다음과 가튼 NO.1을 發表하야잇서서 比較한 記錄을 차지하고도 이에 빠지게 된 團體 또는 個人이 잇슬는지도 모르나 이에 對하여는 널리 諒解를 비는 바이다

【軟式庭球】▲男子一般部=吉仁植 矢田組 ▲高專部=普專 五 李仁俊組(延專) ▲男子中等部=金在應 □□□組(養正) ▲女子部=□□□ 金淑在組(同德) 【蹴球】▲中等部=培材中學 ▲專門部=普專 ▲一般部=咸興蹴球團 【씨름】一般인씨름=宋炳奎(黃州) ▲同 바른씨름=□漢龍(京城) ▲中等部=高廷立(培材) 【陸上競技】▲一般部=吳東祐(鐵道) ▲學生部=金源權(普專) 【拳鬪】▲南□□(京城) 【蹴鬪】▲崔龍德(明大) 【卓球】▲日本式女子部=辛永初(慶北高女) ▲同男子部=高座頭(?)(延專) ▲國際式女子部=李淑□(同德) ▲男子部=崔根恒(明學) 【自轉車】▲一般部=劉鎭浩(平壤) ▲學生部=李潤白(延專) 【籠球】▲女子部=淑明高女 ▲男子中等部=平壤三中 ▲男子高專部=普專 【水上競技】▲池光浩(普專) 【陸上競技】▲張祐植(明大) 【레슬링】▲金□□(明大) 【排球】▲專門部=普專 【럭비-】▲中等部=養正中學 ▲高專部=普專、▲一般部=朝鮮鐵道

다나 平和의 國運運動이 이겟습니까 무엇보담도 運動이 적으은 重大한 責務이어서 여기에 압니다

體育의 道義

運動家도 歷史創造에……

北京에서 李想白

知識보다 誠實이 思想보담 藝術이 □論보담 行動이 必要하고 義倘(?)을 바랄時代다 現下의 時局과 世態와 國情과 人心이 가장直接的이고 嚴酷한現實에 直面하여 우리는 日日時時로 긴장하고 發展하는 새歷史에 □耳□目하고 잇다 亞細亞新秩序의 建設 新東亞體制의 確立이란 國運興進과 民族發展의 勢力膨脹한 結果며 또歐洲大戰의 怪異複雜한 相□도 그□대로□도 무슨緣由가 各各 잇슬것이나 이러한 모든 現像의 根源에 잇는 人間精神의 修鍊과 人類文化의 深化를 생각하면 現在의 苛烈하고 嚴酷한 現實의 크고 기픈意味가 우리를 感奮興起시키는바적지안타 하겟다

우리의 참으로 심각한生活이란 嚴酷한 現實과 苛烈한 眞實밧게무엇이잇슬까 우리의참歷史란 嚴酷과苛烈의生活史에 지나지 안는것이다 眞理도 眞實도 다-이로부터 나오는것이니 安居樂業과 飽閑餘生의生活의沈滯、歷史의 停止다

戰爭이란 人間生活에 가장苛烈하고 嚴酷하고 또가장眞實的 가장原本的인 事實이다 만약美活을 생각해보라 炸裂하는彈丸미틀 鐵線을넘고 勇敢스럽게뛰어가는 아랑 어두운□□을미러서 爆音을놀으면서 信號가 斷腸하듯이『데칸논의實戰』에 專念하는 아랑 속옷에 이(虱)를 잡으면서 호머르쏘의 英雄들을생각하는 아랑을생각해보라 無限히强壯하고 堅剛한그性格 어떤境遇에잇서도 人間의智慧와法則을探求하여마지안는 態度는 奈生命을 가장忠實한一兵卒의 生活에도發見한다

世紀의性格은 가장强壯하고堅毅한肯定이다 아랑은 이러한世紀의性格을 表像한다 아니 아랑뿐아니라 지금우리의 身邊에 또우리의親緣에 얼마나만흔勇正男士의아랑이잇는가 그以上의씨代의警除이라고할때 國家와社會에對한 우리의義務를다할時機인것은 事實이라하겟다

우리의몸은現實의 砲煙彈雨中에잇지안흐나 우리의瞬息과生命이 다-이嚴肅한現實의가운데잇는것은 緊切한事實인즉 疑心할수업는 容疑할餘地업는 苛烈한事實에對한 最高의『義務』는더욱더 自覺할覺悟가必要하다 어느때든지 國家의要求에奉仕할準備잇슬우리의『義務』를생각하면 이러한歷史的瞬間에잇는 우리日常生活은 더욱自重하고 精進하여 一時라도緊張과 精神을 弛緩할수업는것을 銘念할必要가잇다

우리의 一滴의血 一塊의肉이 如何한意味에서라도 이러한歷史의創造에 貢獻하고 奉仕함이잇서야 비로소우리日常의 堅持하고 自誇하는道念에 忠實하다하

이다 우리競技者의 日常生活의 原理가 어디잇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運動하고 競技하는 競技道의 精神이 어디잇는가를 自覺하여 보자 以上에 말한바 現下의 時局과 이時局이 要求하는 世紀의 性格이 우리의 日常生活의 原理에 符合치안흐면 조곰도 업는것이 自明하다

文化가 □□하고 世紀가 □化하고 生命이 □□할때마다 이를 □活시키는 不死鳥의 □은 어느때라도 우리가 □□하고 生活 □□[illegible]

協調的精神涵養

스포-츠를習慣化!

延專體育部長 李浤鎔氏 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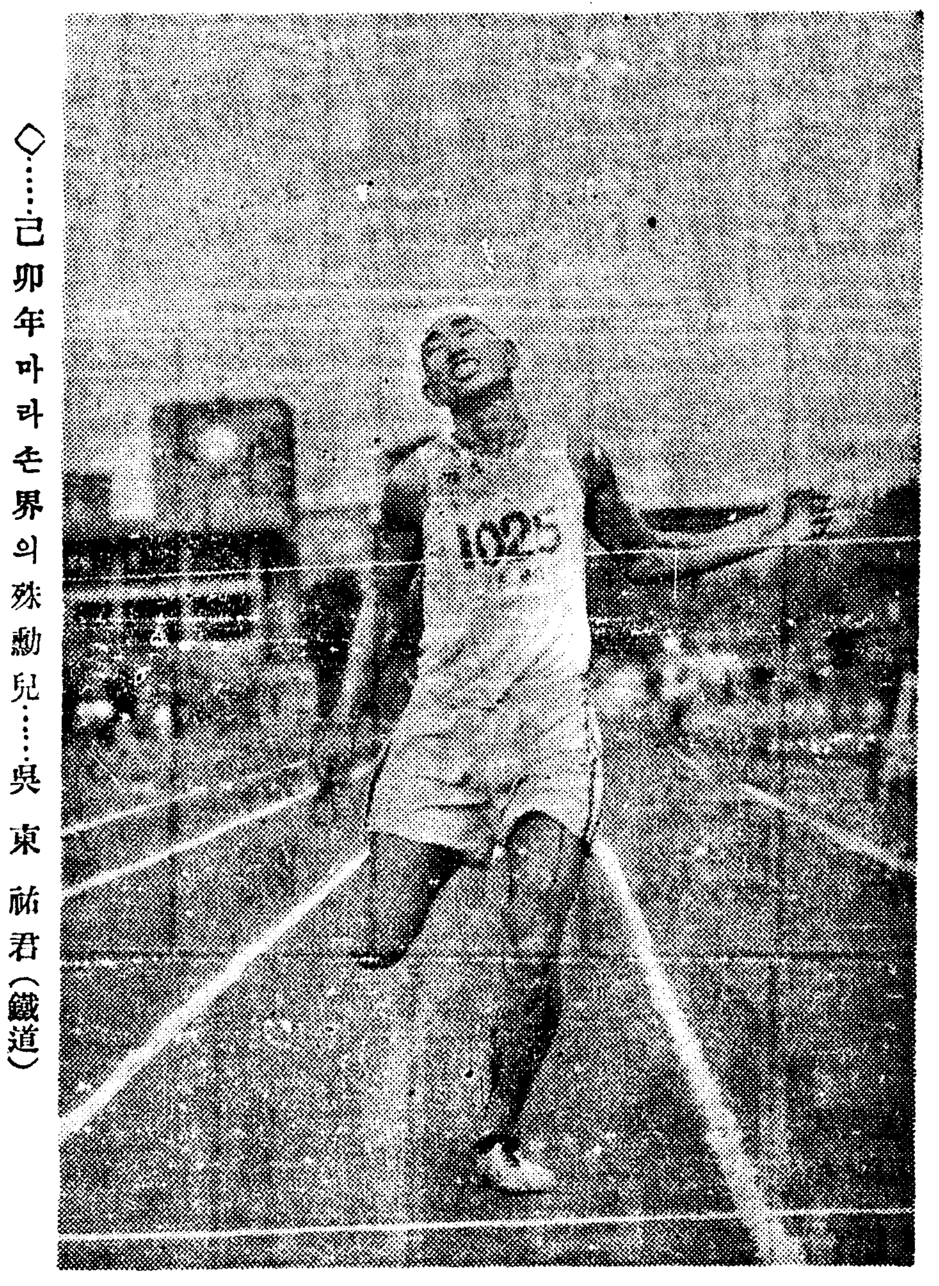
『스포-츠』라하는것이올시다 國民全體가 文字그대로 實行하면 特殊한사람이 特殊한趣味로 하는것으로 國家에 有用한人材로 養成하는것은 國家의 責務요强壯한아이를 더욱 强壯하게訓練하고 더 中學校兒童들의 保健衛生에對한 正當한國民이 되도록敎育하는것은 直接國家가 그責任을저야만 不斷의 努力이잇슬뿐더러 그施設에잇서서도 不拘하고 世界에자랑할것이 잇습에도 統計에依하면 日本人은獨逸人에 比하여 平均十五年短命하다는것을 보앗스니 이는우리의家庭이 너무無關心하엿던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家庭에 태여나아이에게 必要한 敎育을하여 만약지만은健康이업는곳에 人生도업고 國家가업다하여도 過言이안이겟지요 一國의 生產이그러하고 國防이그러하며 사람을만드는 敎育이또한그러합니다 國民의 健康이란는가 保健이라하는 問題에잇서서도 政府의施設이나 方針만으로 向上發展되는것이안이오 恒常 한家庭 한家族이 生活改善의 根本問題로 日常生活에 習慣化하도록 하여야만하겟다는 自覺이잇서야 할줄압니다 獨逸가치 氣候가조치못하고 歐洲大戰以後에 物資缺乏과 榮養不良으로 불수업던兒孩들이 只今 筋骨이隆盛한 青年으로 體性培養信念確立 體位向上을 目標로 暫時도수지안는 中學以上學校에『스포-츠』課目을 加하엿든 緣故라고만 할수업습니다 年齡이 五十客이나된 蹴球團의 善이 暫時라도 休養의時間이잇스면 家族全體가 손을마조잡고 郊外로나아가니 이는『國家의政治는 正當한 國民을엇는데잇고 正當한國家를 엇기爲하여는 正當한 家庭을엇는데잇다』하는『히틀러』總統의 國力充實을 爲하여 學校敎育以上의 힘을家庭敎育에留意提唱하엿던바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厚生省이 생기어서 積極的으로 國民의 健康增進에 努力하라는이때에 全體的으로 强健한國民을 養育하라는 協調的精神의 發現을 爲하여서『스포-츠』에 더욱더욱 精進함이必要가 잇는줄미숩니다

權威잇는指導部

規律과 精神訓練必要

朝鮮蹴球協會 咸興支部長 金明學氏談

지난해에 各蹴球部는 門에잇서 多彩한 心이되어 애를쓰고 努力한 結果로 現在의 水準에이르른 것이지만 年年히 問題되는 審判이 無統制하다는것과 選手問題인데 다른競技도 그러하지만 蹴球에 잇서서는 더욱規律과 精神訓練이 必要할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內地遠征에 對하여는 六月의全國大會와 十一月의 明治神宮大會의 二次만으로도 技術向上에 잇서서 洽足하리라고봅니다 一年에 三地域對抗까지는 經濟上으로는 職務關係로 勝機會이 아니면 上出場은 不可能할것입니다 成果를 거두엇스나 明朗한 神聖하여야할蹴球界에 남긴 汚點은 시처 버리고 새해에는 새로운精神으로 보다더 統制잇고 刷新된 스포-츠界가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中央인 京城에 힘잇고 權威잇는 指導部가 必要합니다 勿論 從來에도 蹴球協會가 中



◇……己卯年마라손界의殊勳兒……吳東祐君(鐵道)

의根源과 對象이 또이러眞實과 原本에잇다면 이것은 藝術의特性에도 共通하는바일것이며 道의目標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에一致하는바 업지안흔것이니 現時에 우리가直面한 歷史의場面은 眞과美와善의 綜合한 原核으로 볼수가잇다 新世紀의生活과 運命의創造가 이時機에胎胎하고 躍動하는瞬間이다 現代의 最大知性이라는 아랑의 世界大戰때의 씩씩한兵卒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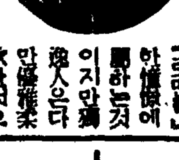
씩하고 힘찬生活이잇는가 一二이例를들어말할必要도업다 强壯하고 堅毅한無限의肯定은 이世紀의 性格이요 이것은 또 우리 青年의 性格이다 苛烈한 眞實과 苛酷한 現實에 對한無限의 肯定은 義와勇과 忠과快의 모든 美德을 本具한 우리 青年의 性格이다 히쓰테리的知性은 우리의 絕對로 拒絕하는 바가아니다 이것은 個人만을 目標로하는

겟다 이러한瞬間을모르고 擧世浪費와 奢侈한時態를생각할때 우리들은 사람의義務가 一倍로 現倍의 加重할을 痛感하지안흘수업다『民生各有所樂兮 余獨好修以爲常』의 純眞한自信과『朝飮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 苟余情其信姱以練要兮 長顑頷亦何傷』의孤高淸白한 自尊도 勿論우리의잇지못할感慨나 時局의 緊急한要求는『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纓』 滄

子에對하여社會生活에 從來에 보지못하던 큰活動領域을 주게되어 女性美에 對한標準도 달러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獨逸에서는 女子는健康第一을信條로한結果 히틀러女子青年團의訓練은 三分之二를 體育에의 하여바치고 三分之一의時間을 家事에쓰게하고잇다합니다 그러므로獨逸女子青年團은 무엇보담도스포-츠에 熱中하고잇습니다

女性美의標準이 漸次變遷해간다

朝鮮氷上競技聯盟 金正淵氏談



朝鮮女子의 體育은 뒤떠러진다면 그差異는 말할것도업시 朝鮮女子의 體育이 어느하나 저잇습니다 이는朝鮮에서 獨逸과가치 女子體育이 普及되어잇지안흔까닭이겟습니다 朝鮮女子가 가지고잇는 先天的體格은 他國에比하여 劣등하다고 할수업서 오히려 反對로 强力을 必要로하는 스포-츠에 適正할수잇다 朝鮮의 過去를 돌아보아 女子에게 힘을要求한時代는업섯다고생각합니다 至今새삼스럽게 記憶에 떠오르는것은 獨逸가르밋슈·바르텐키르헨에서 열린 第四回冬季올림픽때에 出場하엿던 歐米의 女子스케-트 또는 스키-選手들의 男子에 못지안흔 그씩씩한體格은 뒤도잊혀지지 안습니다 朝鮮에잇서서도 女子의社會的立場에 變革이생겨서 將次로女

『로마』를하는것 只今까지 朝鮮의 女子의 쇠약하여 優美한것을 美人으로 알엇스나 이제는 체격이 크고 健康한 女子가 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消大的으로 女性의體格이 不具가아니면 競技에通하여서 女性으로서 完全한 體格을 具備하도록 努力할것이고 競技를 通하지 안는다고 하더래도 恒常 運動을本位로하는 適當한 方法으로 健全한 體格을 所有하도록 努力하면 先天的으로 얼마되지 女性의 體格을 避止할수잇다고 생각합니다

三, 이섯에 [illegible]

昭和十四年度 朝鮮氷上十傑

本社運動部編

五百米 (世界最高記錄41秒8 諾威 엥그네스탕겐選手)

(日本最高記錄43秒5 石原省三選手)

【順位】	【氏名】	【所屬】	【記錄】	【링크】	【競技會名稱】
1	崔[illegible]洙	(明大)	45秒1	奉海	全日本學生
2	張日弘	(明大)	45秒3	同上	全日本
3	李仁源	(明大)	46秒1	同上	〃〃〃
4	任東鎬	(新義)	46秒2	同上	〃〃〃
4	金正淵	(明大)	46秒2	同上	〃〃〃
6	朴潤哲	(撫順)	46秒3	奉天	全滿洲
7	崔[illegible]	(京城)	46秒4	奉海	全日本
7	安運熙	(明大)	46秒4	同上	〃〃〃
9	金健會	(新義)	46秒5	同上	〃〃〃
10	尹寬植	(明大)	47秒	同上	〃〃〃

千五百米 (世界最高記錄2分14秒9 諾威스태스루-드選手)

(日本最高記錄2分25秒 金正淵選手)

1	金正淵	(明大)	2分30秒1	奉海	全日本
2	崔[illegible]	(京城)	2分31秒5	同上	〃〃〃
3	崔[illegible]洙	(明大)	2分32秒2	同上	〃〃〃
4	朴潤哲	(撫順)	2分32秒2	奉天	全滿洲
5	張祐植	(明大)	2分33秒4	同上	日滿對抗
6	安運熙	(明大)	2分33秒5	奉海	全日本
7	金河吉	(松中)	2分33秒8	同上	全日本中等
8	張日弘	(明大)	2分34秒1	同上	全日本
9	金健會	(新義)	2分34秒1	同上	〃〃〃
10	李仁源	(明大)	2分35秒1	同上	〃〃〃

三千米 (世界最高記錄4分49秒6 諾威 비랑그르-드選手)

(日本最高記錄5分4秒9 金正淵選手)

1	片昌男	(新京)	5分28秒5	新京	日滿對抗
2	張祐植	(明大)	5分31秒0	同上	〃〃〃
3	尹寬植	(明大)	5分32秒3	同上	〃〃〃
4	方景河	(新京)	5分34秒6	新京	〃〃〃
5	金河吉	(松都)	5分44秒2	鴨綠江	內鮮滿對抗
6	朴潤哲	(撫順)	5分46秒8	〃〃〃	〃〃〃
7	金漢樂	(咸興)	5分51秒3	淸凉里	朝鮮神宮
8	柳得浩	(光成)	5分51秒4	〃〃〃	〃〃〃
9	任東鎬	(新義)	5分51秒6	〃〃〃	〃〃〃
10	朴雲峰	(光成)	5分51秒7	〃〃〃	〃〃〃

五千米 (世界最高記錄8分17秒2 諾威 비랑그르-드選手)

(日本最高記錄8分47秒 張祐植選手)

1	張祐植	(明大)	8分47秒0	奉海	全日本
2	朴潤哲	(撫順)	8分57秒8	奉天	全滿大會
3	尹寬植	(明大)	8分58秒5	奉海	全日本
4	安運熙	(明大)	9分6秒8	同上	〃〃〃
5	金健會	(新義)	9分10秒8	同上	〃〃〃
6	朴性用	(明大)	9分13秒5	同上	〃〃〃
7	金永俊	(明大)	9分15秒0	同上	〃〃〃
8	金漢樂	(咸興)	9分15秒2	同上	〃〃〃
9	金正淵	(明大)	9分16秒1	同上	〃〃〃
10	金河吉	(松都)	9分16秒7	同上	〃〃〃

一萬米 (世界最高記錄17分14秒4 諾威 비랑그르-드選手)

(日本最高記錄18分2秒7 金正淵選手)

1	張祐植	(明大)	18分41秒1	奉天	日滿對抗
2	朴潤哲	(撫順)	18分53秒4	奉天	全滿大會
3	尹寬植	(明大)	19分16秒4	奉海	全日本學生
4	金永俊	(明大)	19分21秒9	同上	〃〃〃
5	方景河	(新京)	19分35秒7	奉天	全滿大會
6	片昌男	(新京)	19分37秒5	同上	〃〃〃
7	金河吉	(松都)	19分39秒4	奉海	全日本中學
8	朴雲峰	(光成)	20分18秒4	淸凉里	京平對抗
9	金正淵	(明大)	20分19秒2	奉海	全日本
10	柳得浩	(光成)	20分42秒0	淸凉里	全朝鮮中等

咸南長津邑內 木材商 崔明植

咸南長津邑內 長津面協議會員 韓元善

咸南長津邑內 樂園食堂 主 李會龍

咸南長津邑內 熙川屋 主 金秦奎

咸南長津邑內 京城屋 主 高成子

咸南長津邑內 食料品一切 平康商店 主 蔡大奎

咸南長津邑 菓子卸小賣 太田屋製菓所 主 許基林

咸南長津邑內 金景三商店

咸南長津邑內 丸盛商會 主 崔利榮

食料雜貨 龜城商會

咸南長津邑 長州木工所 主 崔成七

咸南長津邑 食料一切 日用雜貨 永河商店 主 朱丙河

咸南長津邑內 土木建築請負 朝日木工所 主 柳承和

咸南長津邑 長津屋 主 李京淑

龍岩浦

龍川郡守 桂燦謙

龍川郡廳職員一同

電氣磁器 鮮一商會 電話六五番

龍岩浦三茶會

龍川產業組合

精木業 葆光商會 電話一五番

龍川印刷株式會社

絹綿布貿易商 泰昌商會 張基泰 電話 振替京城

農具 肥料 米穀 三成商會 電話二五番

申熙源

食料品商 東洋商店

李世謙

朴承大

金恒一 電一〇番

回春堂藥房 張義學 電話七一番

永昌堂藥局 任龍煥

和洋百貨 穀物貿易 大昌洋品店

龍光精米所 電五三番

玄白米 製材木 龍岩精米所 電一七

農具 肥料 米穀 中兌賢商店 電話七〇番

平北龍岩浦驛前 穀物貿易 金成商會

龍岩浦驛前 穀物貿易 鮮滿貿易社 電略七又八七

龍岩浦 國境商工社 康德三

大和精米所

南陽旅舘

龍岩浦郵便所

肥料、材木、內外雜穀 湖南產業株式會社 電話八番 振替京城一三五一九番

咸悅驛前 三山酒造場 徐相文

咸悅驛前 五柳商會

益山郡 前島農園

全北道會議員 趙海英

龍安金融組合 理事 曺秉駿

益山郡龍安 五星酒造場 黃河宗

益山郡龍安面大鳥里 金東烈

益山郡龍安面七牧里 李弼榮

朗山酒造場 尹和重

咸悅驛前 金千煥

咸悅警察官駐在所

咸悅面長 柳公建

龍安面長 林奎善

朗山面長 尹壽重

聖堂面長 白正暉

咸悅面協議員 金貞權

咸悅醫院 公醫 金德鎭

咸悅郵便所長 金泰源

咸悅驛前 多木農場

咸悅驛前 昭和旅舘

龍安駐在所 角田彌夫

朗山面駐在所 河合正美

益山郡龍安面校洞里 [illegible] 金晳洙

价川

价川十五日會

价川邑內 濟衆醫院 公醫 崔允瑞 電話三三番

穀物貿易 三成商會 振替京城二六七一二 電話八 〃一八七九三 〃 四三番

本絹織物 織造卸賣 三成絹織部

製材及杭木原木 三成製材部

鐵道陸地運搬業 三成運送部

价川和信連鎖店 主 李興成 電話二四番

各種木材 各種セメント石灰 各種金物 各種塗料 瑞熏商會支店 滿浦本線价川驛前 本店·安州

枇峴信成學校

枇峴公立尋常小學校長 村上浪重

枇峴郵便所長 赤城直喜

京義線枇峴驛前 牛皮 雜穀 貿易 二成商會 主 朴聖俊

京義線枇峴驛前 光成醫院長 朴寧欽

京義線枇峴驛前 牛馬具 各種雜貨 打綿業 廣岩鐵工所 振替京城一三〇〇五番

朝鮮京義線枇峴驛前 海陸運送 貨物取扱 委託販賣 三益商會 振替京城二二〇九番 電略(三)又八(サン)

京義線枇峴驛前 (三)荷主運輸組

京義線枇峴驛前 周旋業 趙永華

京義線枇峴驛前永平洞 鄭錫雄

京義線枇峴驛前 和洋百貨 各種食料 雜貨 張哲鏞商店

京義線枇峴驛前 永信洋服店 陳慶浩

玄白米精製、雜穀貿易 龍南精米所 主 趙重喆

京義線枇峴驛前 穀物貿易 委託販賣 新興精米所

(ヒ) 枇峴商事株式會社 運送部

京義線枇峴驛前 大同醫院長 醫學士 朴健欽

京義線枇峴驛前馬山洞 杏園醫院 白根湜

京義線枇峴驛前 中和醫院 金亨植

京義線枇峴驛前 料理 同[illegible] 主 張仁[illegible]

京義線枇峴驛前 金興洙

京義線枇峴驛前 主 金興錫

京義線枇峴驛前 芝山木工所

枇峴金融組合 (平北)

京義線枇峴驛前 三信商會

京義線枇峴驛前 六合商會

京義線枇峴驛前 沐浴湯及天然氷 朴宗錫商店

京義線枇峴驛前 永泉商會

京義線枇峴驛前 新日商店 電略マルキン又八(キン)

京義線枇峴驛前 金義鉉商店

京義線枇峴驛前 洪應俊

枇峴 白景淸

京義線枇峴驛前 濟世堂藥房 金晳海

京義線枇峴驛前 日用雜貨 各種食料 文化商店

京義線枇峴驛前 代書士 洪淳益

京義線枇峴驛前 代書士 白君玉

龍川郡東上面 鷄林農園

京義線枇峴驛前 朝鮮酒及白物商 平安商店

京義線枇峴驛前 食料雜貨 各種皮物 其他藥材 金煥吉商店

京義線枇峴驛前 龍信商會 李錫煥

京義線枇峴驛前 永昌精米所

京義線枇峴驛前 朴雲欽商店

京義線枇峴驛前 枇峴商店

京義線枇峴驛前 昌商會 主 柳盛庄

協信堂 洪時計店

京義線枇峴驛前 新一麵店

義州旅舘

枇峴木工所

京義線枇峴驛前 金海堂

京義線枇峴驛前 信成精米所

京義線枇峴驛前 永興商店

京城線枇峴驛前 日華商店

江界

ゲタ製材工場 木材工藝工場 **大和木材工業社**
工場……江界邑石古洞 電話一三九番
市內事務所……江界邑西部洞 電話一三〇番

滿浦線江界驛前 穀物貿易 綿布卸商 **三榮商會** 電話三〇番

滿浦線江界驛前 貿易運送 **㊟丸藤運送株式會社**

綢緞布木 **吳熙新商會** 吳成煥 電話一七八番

江界木材株式會社

回春堂藥房 藥種商 金岐栗 電話二一三番

日鮮商會 李桂龍

江界邑本町 **榮興百貨店** 電話四五番

江界邑東部洞 海陸物產 貿易委托 **平安公司** 康錫九 長電話一五二番

江界酒造組合

江界郵便局 職員一同

江界邑 綢緞布木商 **鄭纘僑商店**

江界邑南門外 **㊄丸キ製粉所** 金鍾雄 電話二二番

江界壽町 **東京寫眞館** 金榮哲 電話二二〇番

同仁齒科醫院 齒科醫師 **張柄乾** 電話二一七番

洋品商 **우리商店** 電話一六六番

平安北道線材製品亞鉛鐵材配給問屋 平安北道鐵鋼配給統制組合配給所 鐵材工具株式會社 **常盤洋行 江界出張所**

吉川金物支店 主 李京濟 電話一四七番 振替京城二六九五七番

永和堂藥房 長電話一四九番

李俊璟商店 電話一三八番

江界邑東部洞 食料雜貨卸 **高明善商店**

東亞印刷所 弓昌絃 電話一三九番

水玉齒科醫院 京齒醫學士 **金正和** 電話一三〇番

加奈多洋服店 金利三 電話一八四番

滿浦線江界邑內 **金剛自動車商會** 會主 李用三 電話一九番

致禾蓄音機店 콜럼바旅館 田致禾 電話二三番

學生服 作業服 **柳屋洋服店** 柳壽長

鑛山機械製作 **滿鐵工業所** 電話一三三番

江界水力電氣株式會社

平北自動車運輸株式會社

江界邑內 **桂禮智病院** 電話四〇番

江界建材社 金泰順

朝鮮平北江界 卸小賣 **萬貨商會本店** 電話三四・三四 私書函二 振替京城二一四六番

江界邑本町 **第一時計店** 金成吉

北鮮印刷所 朴相秀

朝鮮料理 **南山莊** 主 金善熙 電話一六四番

綢緞布木商 **共和商會** 韓奉珀 電話一七二番

江界公立中學校
江界公立農林學校
江界中央公立尋常高等小學校
江界南山公立尋常高等小學校
江界回龍公立尋常小學校

江界邑職員一同

北門醫院 金亨潤 電話一七三番

下駄製材 **松島屋下駄工所** 代表者 金鳳鋼

穀物貿易 委托販賣 **永信昌** 金業瓘 金昌巨 金淳潼 金成錄

綢緞布木 雜貨 **義興商店** 姜炳淳 本店 江界邑柳町 支店 江界郡公北面勝方洞坪里

江界邑西部洞二二二 **鮮滿貿易商會** 金永煥 李根盛

江界邑壽町 洋品雜貨 **文昌百貨店** 文成元

新興旅館 主 田興昀

雜貨卸 **三共社** 吳孝植 韓昌祐 金基亨

滿浦線江界驛前 原木製材 製函 **新江製材所** 電話 長(シン)六七(シンコウ)番 電略 又ハ 私書函 江界局五七番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江界出張所

江界金融組合

江界警察署職員一同

共信商會 沈洪碩

江界營林署職員一同

紀文館 圖書文具 **李寅基商店** 電話一七番 振替京城一六九四 私書函 江界局四〇五 電略

木材業 鑛山業 **高正淳**

江界司法書士會

至誠堂藥房 電話一三五番

圖書文具商 **文友堂** 電話一七五番

第一生命江界事務所
事務所長 朴鶴松
內勤 李官鳳
厚昌支所長 李贊律
熙川支所長 藤川菊丸
中江支所長 安在烈
楚山支所長 金貞圭
社員 金秉喆 金在鴻 趙鐵衡 金吉洙 韓象烈 姜今禮 金鳳善 金雄瑞 金松乭 呂巨榮 鄭永俊 徐相輔 張金童 徐相允

雜貨卸商 **咸士治商店**

廣濟醫院 李奎璿

滿浦線江界驛前 **義江製材所** 洪君七

食料雜貨卸 **高山商會** 金德河

江界殖產銀行支店 **村田俊介**

富平商店 梁鴻洙

日米自轉車商會 崔啓泰

朴龜

足立長吉

阿野林業商會

朝鮮日報社江界支局 **金履浹**

天光堂時計店 朴東植

金應龜

江界共益組合 組合長 金泰羲

穀物貿易商 **昌元精米所支店** 本店 新安州驛前

江界道立醫院 職員一同

江界郡廳 職員一同

金承洙

丸信百貨店 金石函

江界牛馬車組合

丸三商店 江界出張所 長電話二〇番

江界邑會議員 **黃宗河**

江界驛前 **㊁丸二荷主運送部** 代表者 安錫祚

三湖

咸鏡線三湖驛前 貿易委托大敷 漁業油肥工場 **金泳龍商店** 電話二二番 電略(カネキ)又(ヲ)

咸南三湖 **三湖繁榮會**

咸鏡線三湖驛前 雜貨食料 電燈ゴム靴 既成服其他 **金在倫商店**

金融貿易委托 **豊源商會** 黃會淵

咸南三湖港 貿易委托 漁網漁具 **呂鳳吉商店** 電話三一番

咸南三湖 **三湖肝油組合** 組合長 金瀅觀 專務 金泳龍

咸南三湖 **三湖水產工業組合** 組合長 徐仁植 專務 金斗鍵

咸鏡線三湖驛前 貿易委托 水產業 **盧昇益商店**

咸南三湖 貿易委托業 **徐應範**

咸南三湖驛前 海產物 穀物 海藻 金物 **徐準模商店** 電略(ヱ)又(モ)

咸南三湖 貿易委托 **朴贊鎔** 電話三二番

咸鏡線三湖驛前 **泰興商店** 朴泰稷

咸南三湖驛前 貿易委托業 **秦東顯商店**

三湖精米所 李廷禹

三湖水產物製造輸移出組合

三湖漁業組合

朝鮮咸鏡線三湖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三湖代行營業所** 代表 金爽徹 電話一七番

咸南三湖 朝鮮料理 **全興館** 主 全敬才

咸南三湖 **三湖鰮油肥製造者同業組合** 組合長 金爽徹

咸南三湖 綢緞布木商 **黃寅奎商店**

咸南三湖 **高周壎**

總督府指定敎科書販賣 洋品百貨 **湖盛百貨店** 主 徐聖栢 咸南三湖驛前 電話三五番

朝鮮咸鏡線三湖驛前 米穀 綿布 原鹽 食鹽 砂糖 麥粉 石油 洋火 委托賣買 **朴奎禮商店** 電略(ワ)又八(ヤマキ) 電話二八番

咸南三湖 **大洋商店** 李昌鎬 尹永鎬

咸鏡線三湖驛前 委托運送業 **㈣三泉運輸組** 徐厚澤

咸南三湖驛前 食料雜貨商 **滿月堂** 徐準行

咸鏡線三湖驛前 綢緞布木 **壹清商店**

咸南三湖 水產業 **崔鍾鳳**

三湖醫院 公醫 黃鎭厚

咸南三湖驛前 **躋一醫院**

咸南三湖 水產業 **徐聖鳳**

南倉

全南海南郡北平面南倉港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海南代理店 朝鮮日報社南倉支局 日用百貨 綢緞布木 穀物水產 農具各種 都散賣商 **日月百貨店** 崔吉秀

北平漁業組合 組合長 金昌仁 理事 柳田義美 外職員一同

全南海南郡南倉港 **濟衆醫院** 院長 朴敏洙

全南海南郡 **北平面職員一同**

全南海南郡 合名會社 **梨津實行組合**

全南海南郡南倉 **大濟醫院** 院長 高大奎

全羅南道海南郡北平面梨津里 **梨津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朝鮮料理 **永興館** 主 金福述

海南郡北平面南倉 精米業及穀物商 **申宗熙**

全南海南郡北平面 **北平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全南海南郡北平面南倉港 **光州旅館** 主 河判玉

海南郡北平面南倉里 **達山旅館** 主 金大鴻

全南海南郡北平郵便所長 **朴漢玉**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二

滿洲、支那大陸으로 商權進出의指針

그方法은? 現地事情은?

國境을 넘어서면 新興滿洲國 山海關을 지나면 北支로 滿하여 저의圈域되어잇고 半島의 西海岸은 黃海와 渤海를 사이에두고 鎭南浦 仁川 群山 木浦가 天津 靑島 上海와 對峙하고잇다 이와가튼 有利한 地理的條件은 朝鮮으로 하여금 東亞協同體內에 重要한 地位를 占하게할것은勿論이어니와 性質上으로보아서 事變前에는 兵站基地로서의 役割이 가장큰것이잇스며 事變의後年—卽事變의 處理가 進行되고 建設의 지경이는소리가 노파짐에 따라서 建設基地로서의 役割이 鮮明하게나타나게된다.

對滿、對支貿易은 近年에 일즉이 놀라운 飛躍을 보이엇다 그것은 應當그러할것이라고 斷定할수잇슬만큼 必然的 飛躍이며 今後에 잇서서도 輸出入關係는 斷然繁昌度를 노피하여 갈것은 勿論이다 經濟關係의 本質가 이곳에 잇슴은 勿論이어니와 新東亞의 經濟秩序를 建設하는者로잇서서 圓貨圈內로의 經濟進出은 輸入面, 輸出面을 莫論하고 가장 重要하게 생각하고 行動할 問題이다 우리의 商權이 滿洲로 北支로 中支로 或은南支로 進出하려면 어떠한 方法을 取하여야할것인가? 彼地의 事情은 어떠한가?

回顧해보면 大陸과의 貿易關係는 새삼스럽게 今日 처음으로 問題된것이 아니다. 明나라와의 通商關係 그뒤를 이어서 淸나라와의 關係는 日淸, 日露의 兩大戰役을 겨근後로부터 極東의交通이 根本的으로 變革되어 近代化함에 따라서 朝鮮, 滿洲, 北支와의 往來—通商은 더말할것업시 密接하여젓다 구태여 具體的으로事實을 들지안는다하더라도 누구나 首肯할것이나 滿洲里驛頭에서 男負女戴하고 京元線列車를 아홉 다투면서 타던것도 崇嚴한 大陸進出의 한가지엇고 義州、安東을 起點으로하고 北京、天津을 連絡하는 線上에 商業利潤을 追求하던이도 今日의 大陸進出의 先驅이라고아니할수업다.

今日의 現實은 그當時와는 天壤의 差이잇스나 어쨋든 이들의 뒤를 이어 協同體建設이란 新興、高邁한 氣魄을 가지고 先進이 남겨노흔 名譽와 不名譽를 混合하면서 大陸으로 大陸으로 進出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貿易의 推移

最近의 對滿、對支貿易의 趨勢는 어떠한가?

朝鮮의貿易은 本來가 對內地貿易이 大部分이어섯다 그러하던것이 朝鮮內産業의 工業發展에 따러서 朝鮮産業이 農工併進이란 새로운 體制로 發展을하고 前日과가치 對內地貿易에만 依存하지안는 同時에 對滿對支貿易이 飛躍的으로 擴大된것은 朝鮮에賦課된 必然的勢力이며 朝鮮으로서 負荷하지안흐면 안될性質의 動向이다.

昭和十三年의 對外貿易은 滿洲支那가 그全額의 八割을 占하고 第三國은 極히 僅少하다 第三國의貿易도 絶對的으로는增加하고잇스나 圓貨圈으로 輸出되는것에 比하면 그增加의 步調는 어림나게 약다. 圓貨圈으로 輸出되는것은 絶對的으로나 相對的으로 무럭무럭 늘어가고 잇는것이다. 昭和九年以降 卽最近五個年間의 그趨勢를보면

輸出에 잇서서 (單位千圓)

昭和 九年	五五、四六九
昭和 十年	六一、三五六
昭和十一年	六九、一三七
昭和十二年	九六、九八五
昭和十三年	一六二、八九六

輸入에잇서서

昭和 九年	五八、六〇七
昭和 十年	七〇、三九六
昭和十一年	八一、一九四
昭和十二年	七九、五二三
昭和十三年	八〇、四二五

이로써 輸出、輸入、兩面이 모두 增加하면서 그中에서도 輸出이 훨신 더 活潑하게 增加하고잇는것을 알수잇다.

이것을 支那만의 關係에잇서서보면 이와가튼 輸出旺盛의 動向이 좀더 明瞭하게 나타난다 卽

(單位千圓)

昭和 九年	二、〇〇七
昭和 十年	三、三一二
昭和十一年	三、七〇二
昭和十二年	四、八四二
昭和十三年	三一、一五五

輸入에잇서서

昭和 九年	七、七九六
昭和 十年	一六、四四八
昭和十一年	一五、一四八
昭和十二年	一〇、三六七
昭和十三年	一二、一二七

또한번 今年(一月부터十月까지의)에 들어서서의 趨勢를보기로하자(單位千圓)

輸出 一月—十月 比前期增減

[illegible]

以上으로써 對圓貨圈의朝鮮貿易의 地位를 짐작할수잇슬 것이다. 實로 高速度의 膨脹이며 더욱 이굵은線이 輸出貿易의 方向을 가르치며 올라가고잇다.

滿洲國과의 貿易關係는 아미 根源이 기픈것이지만 支那와의 關係는 어떤意味에잇서서 새로운關係라고도 할수잇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圓貨圈內貿易으로서다. 支那事變이 勃發되기前 當時의 國民政府는 日貨排斥을 國民運動의 한가지큰 條目으로하여 高率關稅를 斷行하고잇섯는것이 南北支那의 新政府誕生과함께 關稅의 復元을하게되어 對支貿易은 다시 그길이터젓다고할수잇는것이다.

市場的價値에 잇서서 滿洲보다優秀한 支那와의 貿易이 물밀듯 膨脹하는것은 當然한일인 同時에 그發展에 注力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北支市場

從來의 朝鮮商品의 對支貿易은 山東地方이 가장主要한地方이엇고 上海를 中心으로한 中支와의 貿易이 그다음이엇섯다 이것은 表面에 나타난것이어니와 北京、天津方面과의 貿易은 通法의 열려진 通商의길그대로 表面에 나타난것뿐만을 가지고

이것은 表面의 數字이아니오 다만表面에 나타난 貿易額을 보기로하자、昭和七年의 그貿易額을 보아서보면 對支貿易總額四百七十餘萬圓에 對하여 山東地方은四割四分、河北省은 一割七分、其他地方은 三割九分의 比例를보히고 잇다 山東地方은 朝鮮과의 距離에잇서서 가장가까운地點에잇고 海運이 便利한것과 그곳의 農産物輸入이 首位를占하게된것이다 이와가튼 貿易이 昭和十三年에 이르러서 貿易總額三千四百餘萬圓이란 高額을 보이게되는同時에 貿易市場에는 큰變換을 일으켯다. 卽 河北省이七割五分 山東省이 一割二分을나타내여 依然 北京、天津地方이 貿易의 中心地가된것이다.

貿易額이 僅少할때에 首位를占하던곳이 貿易額이 膨脹함을契機로 後退되고 새로운곳이 首位를 占하게되엇다는것은 相當히 興味기픈 理由가 업슬수업다 山東地方과의 貿易이 가장고 겨우 黃海의 航運을利用하는 程度의것이엇스나 京津地方의 그것은 鐵道로보아서 增加되엇고 이만한 量이 輸出되려면 첫째 貿易上의 障礙物가 除去되엇다는것이 그경우의 第一의 理由일것이다.

먼저말한 高率關稅의 撤廢도 重大한條件이어니와 前日보다 鐵路의 交通이 完備되엇다는것도 重要한 條件이다.

要컨데 對支貿易은 山東地方을中心으로 農産物貿易의 域을 離脫하고 北支의 心臟인京津地方으로 商品을進出하고잇다는것은 朝鮮의 對支貿易에 特筆할事이다 同時에 朝鮮貿易이 北支와 相對하여 本格的領域에 到達하엿다는것을 推解하는것이다.

交通과施設

對支貿易은北支가 約六割、中支가 約二割을 占하고잇고 臺灣에잇서서 各各增加하고잇는데 貿易이 根本的으로 旺盛하여지려면 다만貿易商과 商品의 存在만을 가지고는 아무리할수가업다 交通은 어떠한가 貿易振興에關한 施設은어떠한가 北支貿易에잇서서 大部分이오 貨物事務는 아직本頭에 達하여잇지못하다 商品을 例擧하여 말하면 木材貿易이그 主要大部分은 對滿貿易이다 將來에잇서서 이鐵道의 整備가一層더進渉되고 多獅島築港이 完成되는날에는 括目할만한偉觀을 現出할것이다.

[illegible]

◆朝鮮上海線 朝鮮郵船이 責任을지고 月二回以上 年二十二回以上으로 平安丸이 그任에 當하고잇스며 仁川、鎭南浦、群山、木浦、釜山、元山、城津、淸津、上海等에 寄港한다

◆西鮮靑島線 이것도 本來朝鮮郵船이 責任을 지고잇스며 月六回以上 年七十二回로 釜山丸、西京丸이 就航하며 仁川과靑島間을 往來한다

◆西鮮天津線 阿波共同汽船會社가 責任을지고 月六回以上 年九十回以上으로 長山丸 早鞆丸 第三勢丸이 就航하며 仁川、大連、天津(或은塘沽)에 寄港한다.

◆仁川、芝罘、大連線 阿波共同汽船會社에서 責任을지고 月六回以上 年三十六回以上으로 第三共同丸이 仁川、芝罘에 寄港한다

◆橫濱天津線 이線은 大阪商船의 朝鮮丸이 橫濱、天津間을 往來하는 途中에 釜山에 寄港한다

이外에 自營航路로 朝鮮郵船의 新義州丸이 仁川 天津間을 往復하고 三井物産의 三天丸이 仁川 大連 天津線을 가지고 利通航船有限公司의 大連 芝罘、仁川線을 航海시키고잇다.

[illegible]

好適商品은무엇

對支貿易의 發展은 量的으로 擴大됨에 따러서 質的으로 — 內容의 變換도 顯著하여지고잇다 그러면 어떠한 商品이 中心이되어 나아갈것인가. 從來에 輸出品의 王座를占하고 잇든것은 紅蔘이 그代表이엇스며 近年에 이르러서는 永年輸出品의 首位에잇던 米穀이 年後半期부터 輸出抑制에依하여 急激한 減少를 이르키엇다 [illegible] 輸出許可制를 一層더 强化함에 따러서 從來의 旺盛하던 輸出品은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統制以外의 商品만이 輸出되어잇다 要許可輸出品은 거의 그數量에 퍼저잇고 다만 米穀、鮮魚介類、乾魚、鹽魚等의 海産物과、그밧에 罐詰類 果物類等이 旺盛하게輸出되어잇다.

國內生産力擴充에 必要한資材와 國內生活必需品의 最低必要量을 除한以外에 北支經濟建設과 北支의 生活必需品을 이便에서 보내는一面 國內生産力擴充에 必要한 原料를 國內로 輸入하게 되는것이다.

[illegible]

兩大相剋

百年大計必要

對支貿易에는 相反하는 두가지 힘이 作用하고잇다. 한가지는 大陸으로 向하여 膨脹하는 國力의 發展에 따라 朝鮮産品이 支那市場에 吸收되려고하는 經濟性自體의 勢力이오 또하나는 國內의 物資를 調整하고 生産力을 擴充하려는 政治的힘이다 어느가지의힘은 一方의것이 輸出許可制로 나타나서 輸出貿易에 큰制限을 두르고잇다. 果然이 두가지 勢力間에 잇서서 大陸으로 朝鮮商品을 進出시키려하는이의 苦心이 介在되어잇는것이며 前日에 上海로부터 歸朝한 實業視察團가튼것은 진실로 [illegible]

現在의 問題는 또는 今後의 問題는 [illegible] 改善해야할것인가 이다.

貿易의 促進方策을 들어보다면

1、對支陸上運輸의 整備擴充할것

2、對支航路는 命令航路로因하여 相當히 積極化하엿지만 海港設備를 좀더擴充할것

3、現地의 見本市는 從來에 多大한 成果를 엇고잇스나 今後로도 一層더頻繁하게하고 內容도 充實키하여 宣傳에좀더 努力할것

4、在支貿易斡旋機關을增設할것

5、恒時的 朝鮮産品 陳列所를 現在에잇는 北京과上海에 잇는것外에 더增設할것

또한가지 商人側으로 注意하지안흐면 안될것은 貿易商人의 氣魄과 商策이다 [illegible] 商人의單純한利益追求의 態度를 버리고 興亞大業의一翼을 마련하다는 氣魄이必要하다 支那의國民은 歷史기픈 國民이며 商才가卓越한 國民이다 이와가튼國民의 購買力을把握하려면 一時的 投機的方法으로서는 도저히 百年大計의 商權을獲得키는 不可能한것이다 [illegible]

무슨事業을할가

朝鮮林業의 新使命 (上)

農林局林政課事務官 小野文質

「朝鮮의山은 푸르러젓다」는말은「朝鮮이조하젓다」는것을表現하는境遇에 普通使用하는總督政治의代名詞이며 朝鮮統治의功績을讚揚하는代名詞이다 勿論이意味는 朝鮮에잇서서의 山野의綠化更生만이아니라 施政百般의面目一新을말하는것인데 治山卽山을푸르게한다는말이 이와가치朝鮮統治의目標의代名詞로서 使用될만치 朝鮮의綠化事業에 對해서는 歷代爲政者는 가장深甚한關心과 苦心을한것이다.

朝鮮의林野總面積은 千六百萬町步로서 朝鮮全土의 七割四分에該當한다. 內地에잇서서는 五割九分, 臺灣이六割八分이므로 朝鮮의林野率은樺太의 八割에다음가는 我國第二位를占하고잇다 外國의森林國에比較하면 瑞典(七割四分) 芬蘭(七割三分)等에 伍하고 世界로 誇할만한 世界一流의大山林國이다.

그러면 朝鮮에잇서서의 森林의實相은 어떠한가? 面積에 잇서서는世界의森林國에 比하여 些少한 遜色도업스나 그森林蓄積에잇서서는 極히 貧弱하여 每一町步의 蓄積을比해보면 內地의 五分의一 北海道 臺灣의七分의一 樺太의八分의一에 不過한形勢이다

아름다운內地의 山川草木中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玄海灘을건너서 먼저 最初에놀라는것은 滿目荒凉一靑도업는 禿山이다 또 朝鮮으로부터 內地에가서 먼저 눈에띄이는것은 到處의山들이茂盛한森林으로더피고 河川에는年中그치지안코流水가흘러 田畓이잘開拓되어잇서 豐葦原瑞穗國이라는 印象을깁게하는것이다

그러면 朝鮮의山은 어째서이와가치 荒廢해젓는가 勿論 朝鮮의地質이 非常히風化되기쉬운花崗岩質로서 樹木의成育에는 不適當한點도 잇스나特히 李朝末期頃부터 林政이 紊亂되어 封山이라고·稱하는 特殊한 保護林以外에는 一般民衆의自由採伐에 放置되엇슬뿐만아니라 當時의사람들이 森林의恩惠에 저저서

重要性을理解 지못하고

濫伐濫採한때문이다 由來朝鮮에서는 國法으로써 林野의 私占을 禁止하고 所謂無主公山이라 稱하여「衆民과함께利用한다」고 規定되어잇섯다 그런뒤 無主公山을「國主의 德澤을一般民衆에게 均霑시키는것이다」라고 解釋하여「事實은 國有이나 所有者가 업는 公共의 山」이라는 觀念下에自由로 山에들어가 自由로伐木하엿스며當時의政府에서도이것을默認하엿기때문에 山은漸次로 荒廢해저서今日과가치慘憺한狀態로되어버렷다.

山에樹木이업서 根本的으로荒廢해지면 비의貯藏力이업스므로 豪雨가잇스면 雨水는 多量의 土砂와함께、山腹을奔流하여 直時洪水 土砂의崩壞 家屋 田畓의埋沒等許多한悲慘事를 惹起하고 其結果는 各種産業交通等 文化施設을顯著히 侵害하는것이다 學者의測定에依하면 濁流는 能히 其容積의 二倍半이되는 土砂를 流出시킬수잇다고하므로 洪水時의濁流의 威力이 얼마나猛烈하며 其被害가甚大할것인지는 容易하게 想像할수잇슬것으로 생각된다 多年의統計에 依하면洪水의被害額은、每年二千萬圓을超過할뿐만아니라 多數의 人命까지도 犧牲시키며 이것이民心에게미치는 影響도 亦是樂觀을不許하는바가잇다 就中 大正十四年의 漢江의汎濫及 昭和八九年의 洛東江의洪水及 再昨年의 咸鏡南北道를襲來한 風水害의慘禍는 現在 아직도 吾人의記憶에새로운바이다.

이와 反對로 旱魃時라도 降雨가업스면 地上의 모든것이 乾燥되고 地下水까지 枯渴되어 所謂旱魃로因하여 農作物의 耕作及그 收穫을 不可能하게하며 물을必要로하는 모든産業을 停止시키며 종참하게되면 飮料水의 不足으로因하여 吾人의生活에까지도威脅하게되는것이다

旱魃의被害도 年에따라서 可驚할만한 巨額에達한다 例를들면大正八年에는

一億三千萬圓 大正十三年에는 八千八百萬圓에達하엿고 다시 昨年에 南朝鮮八個道를 襲擊한 旱害는其被害의 狀을 至今 여기서 새삼스럽게 論할必要조차 업슬것이다

朝鮮의山을 푸르게 하려는努力은 明治三十九年 伊藤博文公이京城에 着任하자 當時朝鮮의 山河의 荒廢한 狀態를보고「朝鮮을 更生시키고

朝鮮을樂土 化하려면먼저

禿山을綠化할 必要가 잇다」라고하여 治山에依한 民心의作興과産業의 振興을企劃하고 먼저 京城北門附近에다가 砂防造林을 行케하므로써 嚆矢로하엿다. 그

[illegible] 初代總督 寺內閣下는伊藤公의 綠化方針을 踏襲强化하여 이것을 民衆運動에까지 發展시키고자 朝鮮總督府 開廳後最初의 紀元節인 神武天皇祭卽 明治四十四年 四月三日로써 第一回의 記念植樹日로 定하고 全朝鮮에 亘하여 四百六十五萬本의 植栽를行하엿다 爾來連綿 三十年의 星霜을마지하게된 今日에잇서서는 朝鮮에잇서서의 가장重要한 年中行事의하나로서 都鄙、官民、老若、男女、內外人의 區別이업시 全朝鮮一齊히 實施되어 昨年까지의 植栽된苗木은 約二千萬人에達하엿다 그러나 此等朝鮮綠化의 目標는 [illegible]

生長量의 數倍

에相當하는 濫伐傾向도不少하다 朝鮮林業의 將來를생각할때 참으로寒心하여마지안는 現狀이다.

이에잇서서 朝鮮의林政은 從來의『朝鮮綠化』一本槍의 可否를 再吟味할時期에 이르게된것이다. 勿論 森林의保護 砂防事業、植林을從來보다도 增加시키어 이것을强化시킬必要가 잇지만 이와並行하여 一層時局의 要求하는「用材林의造成」의 目標를 다시追加할必要가 切迫되엇다. 總督府當局에서는 前年부터 이런일이 잇슬것을豫期하고 着着用材林造成의計劃을 進行시키고잇는데 따라서 皇紀二千六百年을記念하는것과가치 昭和十五年부터本格的大造林에 着手하게된것이다.

新京

貨物自動車業 建築材料 特産物 運搬請負 崔秉述 新京特別市吉村馬路南 第二區十一號二戶

貨物運搬 二見洋行 李圭鳳 新京大和通一番地 電話③六九九二 三三二六番

新京商埠地老市場三六九 東洋估衣 一般屑物 其他各種 一概批發 大成號 主 朴基大

新京大經路六三號 活版高級印刷 帳簿製本 龍文堂印刷所 電話②五三三五番

和洋帳簿 一般印刷 三省堂製本所 鄭起鍾 第一工場 新京市三笠町三ノ九 電話①三二四二番 第二工場 新京市北安路 電話②二七〇六番

白米 木炭 醬油 三益商會 主 安昌贊 新京祝町五丁目四 電話③四三九一番

綢緞 布木 松島商會 新京市梅枝町三丁目一八

自轉車 卸商 高輪商會 新京東三條通四十七番地 電話③三八一六番

賀正

高級美術諸印刷 石版印刷及 各種名刺禮狀 日榮堂印刷所 主 金榮鎭 滿洲國新京特別市西三馬路一二一ノ四

新京朝日通 綢緞 食料 三一商會 電話②六五三四番 振替新京二五二四番

帳簿製造 一般印刷 中央洋行 劉金李 時得泰 鎔壽奉 新京特別市西四馬路一二五號 電話②三三六七番

新京大馬路七七ノ二號 金物商 丸吉金物店 主 崔在喆 電話②二四八四番

新京市朝日通四十一番地 醬油 木炭 食料雜貨 和洋菓子 大滿商會 電話③四五三三番

新京市入船町四丁目十三 滿京商會

新京市朝日通四九番地 海産物 興安洋行

新京市梅枝町四丁目三六 平安商會 主 禹德淳

新京 國都商會 電話②四三八三番

新京朝日通り 興農商會支店 林元模

琿春

琿春街大同區 陸軍御用達 滿興社 李昌吉

琿春縣勇智村 公立哈達門國民學校長 申亢均

琿春大同區北街 丸中洋靴店 主 鄭蓮植

琿春街本町 共信百貨店 電話一七八番

琿春タクシー 琿春自動車株式會社 創立事務所 電話三三〇番

琿春縣琿春街 東滿物産株式會社 電話二二六番

琿春街新安區 徐炳奎

琿春本町 正木自轉車商會 錢德昶 電話一二〇番

琿春 ㊀宇一運送部 電話二四九番

琿春 滿洲生命駐在員 田國寶

琿春街本町 哈爾賓商店 南明華

琿春街本町 大學堂藥店 電話五六番

間島無盡株式會社 琿春支店

間島無盡株式會社琿春支店 支配人 李龍得

琿春街 李君敏商店

琿春街 大倉自轉車商會

新京市東二條通六二番地 福字屋洋服店 主 崔載業

朝日印刷所 新京朝日通一五 電話③二一〇七番

琿春中和區 協成商會

琿春街本町 哈爾賓東協商會

琿春西門外 永眞寫眞舘 吳基德

琿春縣勇智村公所

琿春街本町 京鴻洋服店 電話三七九番

琿春街新安區 滿鮮冷麵屋

琿春街大同區 永和 周洪

琿春本町 東一商會

麟蹄

麟蹄郡麒麟面 職員一同

江原道麟蹄郡麒麟面縣里 麒麟釀酒組合

麟蹄郡瑞和 面事務所

麟蹄麒麟森 林保護區

麟蹄郡麒麟面芳東里 崔三峰

麟蹄金融組合

江原道麟蹄邑內 善翼商會支店

江原道麟蹄邑內 朝鮮料理 長春舘

麟蹄郡麒麟面下南里 區長 裵元赫

琿春縣 第二敎育區一同

琿春 高麗商店 電話三六番

琿春城北區 崔承賢

琿春街本町 黃金洋行

勇智村公立 國民學校

東門內 金永植代書所

琿春街本町 萬傛自轉車店

滿洲帝國協和會 琿春縣勇智村分會

琿春縣勇智村 醫師 金鑰

琿春街大同區 東興商店

琿春街新安町 許士俊

琿春新安區 平和理髮館

間島省琿春街 許在行

琿春西門外 濟世醫院

滿洲帝國協和會琿春縣本部 本部長 安武愼一 事務長 佐佐木要市

麟蹄郡麟蹄面縣里 麟蹄面事務所 職員一同

麟蹄郡麟蹄面縣里 代書業 朴柱文

麟蹄金融組合 縣里支所

麟蹄郡麟蹄面上南市 德興商店

麟蹄郡麟蹄面上南里 上南釀酒場

麟蹄郡麟蹄面上南市 新興商店 主 權五臣

江原道麟蹄邑內 麟蹄釀造場

麟蹄郡瑞和面瑞和里 代書業 鄭海八

麟蹄郡瑞和面瑞和里 禹成璟

江原道麟蹄郡麟蹄面縣里 麒麟醫院 公醫 李基甫

江原道麟蹄郡麟蹄面上南市 綢緞 布木 日用百貨 南昌商店 主 金昌任

戰爭의 一面에 建設이 잇다!

새로운覺悟要求되는 民需物資統制强化

窮塞한곳까지참아야한다

混紡에서·"올·스·프"로!

朝鮮의特殊事情도犧牲할運命

綿製品

革皮

鐵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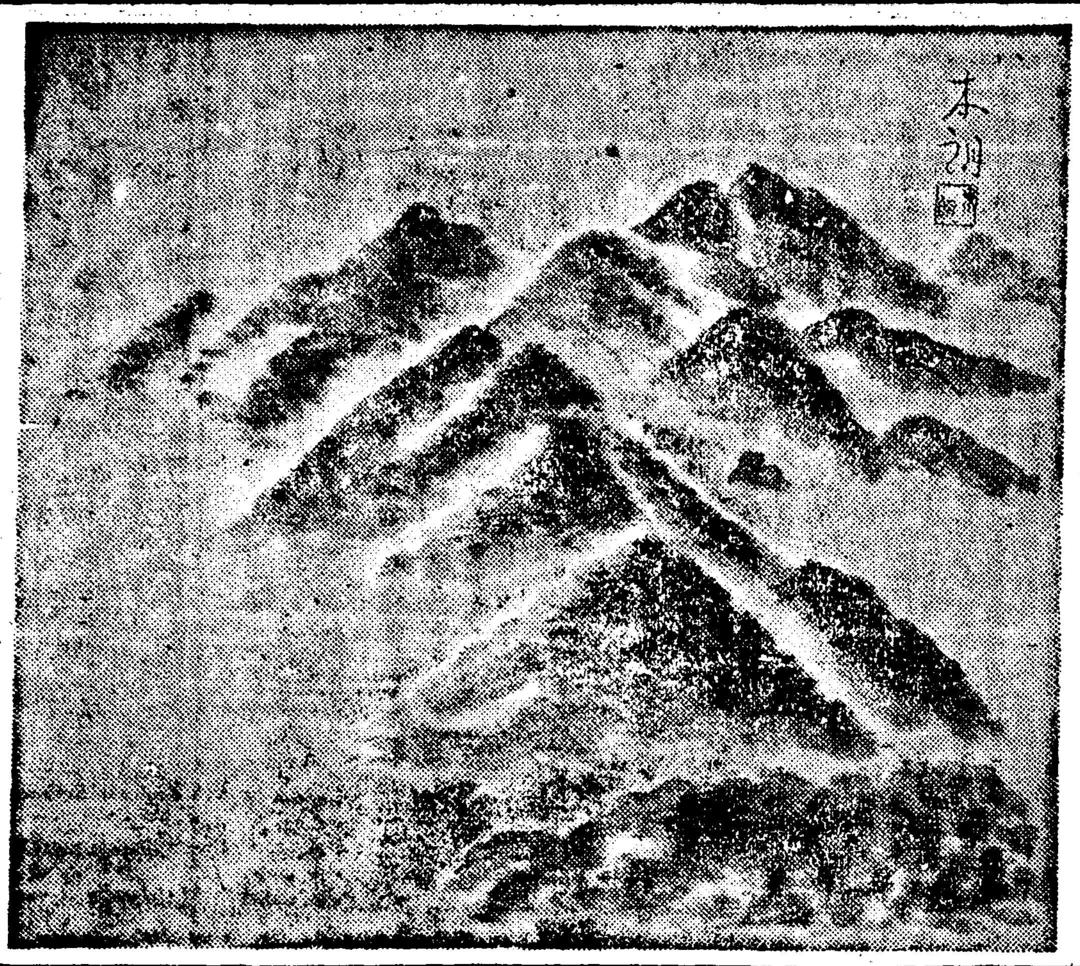
非鐵金屬

헌구두한켤레라도 정성껏아껴신어야

揮發油와重油

戰爭物資

全面的物資動員



木朗 崔根培 氏筆

고무 事實上國家管理

◇…맵시잇던婦人네고무신도再生고무로참아야한다

民需、生고무의制限은더욱强化될터

鞍山

柳町五ノ六 鞍山館 主 張世七子 電話二一九六

藝妓 百洸済雪絹御信敏海宮波一若島 / 合子子子子代蝶子子香子江丸九丸

藝妓 貞菊愛鶴香道苞弘正君玉メ寿 / 香江子子 子美美子子子リ子

日清鋼材株式會社 取締役 李必煒(山本昌三郎) 電二八三九

鞍山柳町 金濟萬 電話二七三五

鞍山營造社員 朱在南

鞍山市北二番町二五ノ二 新安旅館 主 金秉玉

平壤館 電三五八〇

北二番町十一ノ一 安原公司 金安濟

賀正

鞍山北二番町 康德綿屋 主 鄭德海

鞍山市北四番町三四 近江屋洗布所 主 李昌九

共進組鞍山出張所 李文鉉

鞍山普通學校 尹世曦

北四番町十一 土木請負業 沈相喜

鞍山市北二番町二六番地 代書業 金基中 電話三五八〇番

鞍山市公署行政科 金周誠

鞍山市北三番町三五ノ五 土木請負 羅用基

北二番町十一ノ二 鮮于承玧

北一番町二六 白雄濟

綢緞布木商 新海商會

日光堂時計舖 主 池貞德

柳町歡樂坊 妓 金鳳玉

白米 木炭 草鞋 鞍山北二番町二七 朝日商會 電話三〇〇九番

鞍山醫院 公醫 鞍山市北二番町三 金道淳

朝鮮日報社鞍山分局 韓光勳

新泰仁

新泰仁 有志 李教漢

山外面平沙里 有志 金秉勳

新泰仁 親和會

新泰仁 金鎬東

白山面 若山案治郎

得茂館

新泰仁 戶由幾太郎

新泰仁 兪祥先

新泰仁 かちとき樓

泰仁面 泰仁釀酒株式會社

白山面 米穀商會

崔守鎭

朴圭喆

李喜濂

七寶面 閔丙燮

禾湖里 熊本農場

新泰仁 姜甲秀

新泰仁 醫院 尹善旭

新泰仁 公醫 盧天思

新泰仁 住友生命代理店 徐承昌

新泰仁驛前 南鮮工業社

泰仁面 東信商會

新泰仁驛前 日の丸旅館

泰仁面 復興精米所

山三運輸組

山內面 李元日

新泰仁 朴承台

泰仁面 金國千

泰仁面 尹昌年

白山面 吳晟模

新泰仁 中華商會

扶梁面 安永奎

禾湖里 笠谷八雄

白山面 崔栢烈

泰仁面 金鎬衍

崔在哲

七寶面 全宗鎬

新上

山外面 金東洙

七寶面 金東錫

七寶面 金泳燮

新泰仁 吳仁植

新泰仁 尹壽炳

新泰仁面職員一同

甘谷面職員一同

泰仁面 金庚玉

白山面職員一同

泰仁面職員一同

七寶面職員一同

山外面職員一同

甕東面職員一同

淨雨面職員一同

梨坪面職員一同

七寶面 宋滄

井邑郡小學校一同

扶安郡廳

定平官公署團

金津醫院 醫師 洪壽峰

新上穀物檢查所 職員一同

咸南新上 朝鮮料理 松月館

新上郵便所 所長 太田定平

朝鮮運送株式會社 新上代行營業所

昭和十四年度割當額超過! 愛國生命新上事務所 主任 韓成格

韓光植精米所

昭和十四年度割當額完成! 愛國生命新上代理店 振替京城二二〇九七番

文林水利組合

大衆醫院 醫師 姜濬卓

新上面 職員一同

新上農園 李龍治

新上里金融組合 職員一同

東興精米所 電話五番

新上釀酒所 李學永

春柳水利組合

新上 熊川健治郎

定平 司法書士一同

新上東小學校 職員一同

新上精鹽所 金永敏 韓甲東

喪中缺禮 新上驛前 穀物貿易商 共進商會 金昌翊 支店 咸興府福富町一丁目 電話一、〇六五番

宣川

宣川邑本町二二八 (私書函宣川局第一〇號)
大衆百貨 各化粧品 文具菓子 卸小賣
Ⓣ東一商會
主 朴炳禧
電話長一五二番 電略(トウ)又ハ(トウ一)

宣川邑明治町
各種印刷 紙物貿易
永信社
金得德
電話宣川局五四番 振替京城六八六四番

宣川邑明治町一六六
諸雜貨 メリヤス 食料品 海產物 卸商㊎
金成商會
電話一三四番

宣川邑明治町四七ノ二
㊅大成商會
電話一三四番
新義州若竹町一三
㊅大和洋行
電話九九一番

宣川邑
寧邊泰豊鑛山
鑛主 申光鉉
電話五二番

宣川邑
東新金山事務所
鑛主 金相鳳

平北宣川驛前
鑛山機械 專門製作
平安鐵工所
電話特一四四番

宣川郡

金承吉

宣川邑
金元澤

桂勳炳

宣川邑東町
㊀丸一運輸社

宣川邑旭町
宣川製材所
[illegible]

朴龍雲

綢緞綿布 和洋雜貨
海東商會
長電話一四二番

宣川邑本町
三省醫院
院長 曺仁奎
醫師 鄭晩裕
電話六二番

宣川醫院
院長 郭麟模
電話一五四番

桂林藥局
藥劑師 桂月華
電話一三六番

宣川邑明治町
新安齒科醫院
院長 朱道均
齒科醫 金永華 朴吉彥
電話二一三番

宣川邑本町
桂東齒科醫院
院長 桂元琏

中樞院參議
洪致業

金迺興

宣川
田文信

宣川邑東町
金貞均
電話一二九番

宣川邑旭町
龜宣鑛業所
趙相基

宣川邑
崔泰日
電話一一九番

宣川邑
朴淳道

宣川邑
桂仁培
電話二二五番

宣川邑倉町
田殷甲

宣川邑
朝鮮總督指定
信聖學校

財團法人
宣川會館
宣川商業實修學校
宣川中學講習所
宣川幼稚園
宣川會館圖書縱覽所

宣川
私立保聖女學校

宣川郵便局

宣川郡宣川邑
大東商會
魯淵豊
電話 商會二〇番 自宅二六番

宣川邑本町
食料專門
東洋商會
電話一〇二番

債券、公債、株式現物賣買
㊁丸二商店
京義線宣川邑東町 電話長一三六番
新義州府眞砂町 電話長七七六番

宣川邑本町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宣川出張所
所長 金希京

宣川邑旭町
國際裁縫機械商會
金清運

東洋產金株式會社
宣川營業社
金[illegible]鐵

住友生命保險株式會社代理店
穀物貿易 精米製粉 打綿肥料 地金買入 砥石郡賣
信益商會
金益龍
電話 [illegible]

宣川邑
朝鮮日報寫眞班
ひかり寫眞館
桂春根

宣川
鑛業
富洞組
郭麟模 崔治連 朴熙純 申聖培 金基輔

宣川酒造株式會社

宣川邑本町
ヒカリ食堂
電話一四六

宣川邑
高等料理
碧城樓
電話一五七番

碧城樓藝妓
吳彩雲 金殷玉 鄭秋月 白雲仙

宣川邑
高等料理
琴松館
電話六三番

國一館藝妓
朴春心 宋蓮心 金春紅 金錦蘭 李花月 金山月 裵玉蓮

琴松館藝妓
金月花 李月仙 宋明珠 李秋月 孫明花

宣川邑
高等料理
國一館
電話一七〇番

宣川邑內
李泳基

宣川邑本町
貨萬商店
魯炳燦

宣山邑
稻月茂

專門
李枝賢商店
電話二〇七番

宣川邑
崔治連

宣川本町
三星時計店
電話二一九番 振替京城五八五九番

小田利隆

宣川邑旭町(明信學校通リ)
平安藥房
金清雲

宣川邑
財團法人
明信學校

宣川邑內
森盛商會
李錫祚
電話一三七番

宣川警察署

宣川邑
周旋業
李亨常

宣川邑
稅務署

宣川邑
雜貨 メリヤス 洋品商
宣川洋行
朴元淑

宣川金組融合

宣川邑黃金町
海陸物產 貿易委託
金德源商店
電話二一七番 電略(トク)又ハ(ヨ)

宣川邑

宣川邑本町
中央飯店

宣川酒類販賣組合
組合長 金景熙

宣川邑本町
日新寫眞舘
朴炳樞

牛島商店
田孝京
電話一九番

宣川邑
龍洋商會
電話六八番

宣川邑
李漢錫

新府面長
桂基俊

朝鮮日報社宣川支局
電話長一一六番
金基輔 李允三 桂河榮 金鍾洛

神戸

製作品目
航空自動車 自轉車 各種機械 兵器及部品 引拔六角 磨シャフト
阪神ナット工作所
神戸市林田區東尻池町五丁目
電話 兵庫⑥(四七〇五番 四九四六番)
大阪營業部 大阪市港區九條通三丁目四ノ八一
電話 西⑪一〇六番
振替口座 大阪三一三二二番
電略 ハンシンナット

合資會社
吉田精工所
航空部分 精密小螺子 製作專門
代表 丁丑云
工場 神戸市林田區正慶町二ノ二番三
事務所 神戸市林田區正慶町三六
電話 兵庫一三五七 一四七四一

土木建築 仲仕雜役 海陸運送 手傳人夫 請負
田中組
主 丁命云
神戸市葺合區八雲通三丁目二五ノ三
電話葺合②五八九一番

唐草材 貿易商
合名會社
日光商會
社長 金向起
神戸葺合區日暮通一丁目二七
支店 神戸市林田區五番町三丁目五一
電話 [illegible]

請負業
神戸製鋼所專屬三輪組配下
河井組
主 河昌奎
神戸市葺合區脇濱町二丁目六ノ四

㊂海雲屋商會
主 金寅守
神戸市葺合區脇濱町一丁目八ノ五
電話 御影四五一二番

和食料品及味噌醬油
金岡商店
主 金佑植
神戸市葺合區日暮通二丁目一 大井市場

諸綿製造
御崎わたや
主 朴學東
神戸市林田區御崎本町二丁目一四

諸綿製造
卞斗萬製綿所
神戸市林田區二番町一丁目八

製綿商
韓彰錫
神戸葺合脇浜町四丁目七
電話葺合七一四六

朝鮮及北海道 海陸物卸商
㊝共榮商會
神戸市葺合區八雲通五ノ六一
責任者 金鍾錫
電話葺合二三六三

朝鮮食料品一式
裵李祚商店
神戸市葺合區日暮通一丁メ一一〇 大井市場

朝鮮飲食店
主 鄭永祚
神戸市葺合區八雲通四丁目九五

神戸市
金容洙

朝鮮原料 朝鮮食料品一式
中村商店
神戸市葺合區真砂通二丁目一〇
主 康智明

朝鮮料理
湖南舘
主 李米奉
神戸市葺合區八雲通五丁目六二

神戸市葺合區日暮通二丁目三四
[illegible]太郎
電話葺合八八七番

神戸市葺合區脇濱町二丁目八五ノ八二
兵庫縣免許
[illegible]

㊂趙仁濟
神戸市[illegible]八十番
電話[illegible]四五一番

金向坤
八五ノ八四

生田川藥局
電話葺合二二七二番

金龍馬商店

澤田商店
主 崔三植

吉川商店
主 朴七文
電話葺合一四八八

大同食堂
尹[illegible]

東英舍クリーニング商會
主 柳學烈

昆陽

昆陽面長
曺秉模

昆陽城內
公立小學校長
外職員一同

昆陽金融組合
玉宗支所

喪中欠禮
李鍾浩

昆陽城內
酒造株式會社
姜在寬

小川茂

姜在熙

神野三四郎

裵允洙
外職員一同

金奉郁

鄭求鎔

鄭在湜

須藤秦男

久保正信

李楨玉

姜潤祀

金榮守

佐藤勝藏

洪伊

在炯

井上弘

長湍

長湍精米業組合

長湍釀造場
電話十二番

矢子製造合資會社
代表 林成奉

大陸商會

高浪浦穀物協會

長湍郡廳

㊂丸三運送店
宋炳世

南相弼

尹熙炳

昌信精米所
朴鍾吉

尹弼炳精米所

宋秉喆

朝鮮運送株式會社
長湍代行營業所

小林松太郎

許煥

李完俊

濟生堂藥房

三成釀造場

春山醫院

金源時

申廣德

南萬吉

仁川

仁川輸移出白米製造業組合

仁川府西京町二〇三 繩叺 麻袋 貿易商 水仁商會 主 權熙仲 電話七七五番

仁川府大和町三六五 割箸 ケーキ箸 箸袋 楊枝 薄板 並木材 加工一切 製造卸商 森榮工業社 電話一〇九四番 電話三七番 振替口座一〇一一〇番 (特約店募集)

仁川府本町三丁目 內外米雜穀直輸入商 誠貫社 曺奉岩 方元榮 電話一二六九番

仁川府京町七七 綢緞布木 迎還商店 主 裵麟鎬 電話 八九四番 五八一

仁川府海岸町一丁目十一 냉면 떡국 설렁탕 金浦館 朴文 奎九 遠銓 電話一三〇五番

仁川府京町二二八番地 仁川土地家屋船舶賣買紹介業組合 電話一四一八番

仁川府本町三丁目四 仁川籾穀配給組合 電話一二六九番

仁川府西京町 李興善

仁川府敷島町 德興樓 弄香梅美 琴草蘭香 蓮一玉竹 心笑蓮心

仁川府敷島町 第一樓 飛一瓊啟 高心月子 彩杏竹彩 雲葉花鳳

大阪商船株式會社 仁川代理店 慶田組

京城電氣株式會社 仁川支店長 坂本茂

仁川府海岸町三ノ一 爐專門 各設計請負業 山下工業所 電話二三〇番

仁川府港町一丁目 富川通運組合 電話六三一番

仁川府港町一丁目五番地 森信運輸株式會社 電話一六三番

仁川朝鮮酒販賣株式會社 電話 六八、七〇三 四九 五八番

仁川商業專修學校 校長 金英培

仁川府松峴町六六 內外木材 製材製箱 ベニヤ板製造 廣仁商會 主 金長福 電話長一二五番 自宅電話一二一四番

仁川府桃山町四十七番地 朝日釀造株式會社

仁川府龍雲町 株式會社 仁川券番 (電話三七四 六二六番)

仁川府仲町一丁目七 大和組 電話三三八 二八一番

仁川府濱町一四 株式會社 福島組 電話五三五 三六番

仁川府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朝日組仁川支店 電話五二九 九六四番

仁川商工會議所

仁川松島遊園株式會社

仁川松島觀光株式會社

仁川 金曜會

仁川府西京町二〇七 雜穀 繩叺 麻袋 古物商 三光商會 電話取次二六五番

仁川府龍雲町 救世醫院 院長 朱榮 電話一〇七番

京畿道立仁川醫院

仁川府會議員 直野良平

仁川府會議員 柴田虎一 電話一一二番

朝鮮總督府氣象臺

仁川府會議員 林榮均

仁川府龍岡町一五七 朝鮮料理 邵城閣 電話九七八番 電話一四二四番

誠愛堂醫院 院長 崔德鎔 仁川府松林町

仁川被服組合 電話八二八番

仁川府金谷町三十三番地ノ二 朝鮮燐寸株式會社

劉君星 仁川

仁川府會議員 申鳳儀

仁川府港町六丁目十五番地 朝鮮運送株式會社仁川支店 支店長 大熊健次郞 代表電話一四一〇番

仁川府柳町一ノ三四 松茂精米所 朴南七 電話三三一番

農工具及機械 丸中商會 仁川仲町 電話六九四番

仁川米穀商組合

仁川府西京町 金泰性 電話一、〇一六番

仁川府榮木町 仁川商工協會 電話一三三番

仁川府新町一八番地 板硝子 ペンキ 泥炭 平和商會 電話一四六番

仁川府敷島町一番地 花町貸座敷組合 電話五八三番

富川郡文鶴面 富川釀造株式會社

仁川府花町二丁目 力武物產株式會社

仁川府濱町 丸一精米株式會社 電話八五九番

仁川府山手町二 能治齒科醫院 電話三五〇番

仁川府港町一丁目一 東春商會 張春心 電話一四七一番

仁川府海岸町 森益商會仲立部 朴寬植 金致先 電話一五二番 一四一九番

仁川府海岸町二丁目 仁川鹽共同販賣組合 電話八一六番

仁川府港町一丁目五番地 株式會社 朝鮮海洋社 支配人 東鄕重人

仁川府海岸町三ノ一 米雜穀貿易商 天一商會 天一テント商會 電話長一三〇四番

仁川府仲町二丁目 澁谷百太郞 電話三五四番

仁川府宮町二〇番地 高級洋服 毛織加工 各校服一式 丸金洋服店 金敎性 取次電話一一五番

仁川府龍岡町一 金完營

萬治豐喜

仁川 朝鮮酒造組合

仁川府龍岡町二番地 北京 高等料理 同興樓 電話長五拾八番

仁川府海岸町二丁目 森益商會 朴宗植 電話二五二番 一四一九番

仁川商工會議所議員 中村寬一

朝鮮精米株式會社仁川支店

仁川府會議員 田中福一

京畿道漁業組合聯合會

仁川府港町一丁目二番地 昭和運輸社 代表者 富松豐 電話八七六番

仁川府港町三丁目二番地 仁川穀物問屋株式會社 電話六四八番 夜間專用七四番 振替口座京城二三七一〇五番 電信略號(ト)又ハ(〇ト) 電信略號 ジンセン、コクモツ、トイヤ

仁川穀物協會

仁川府花町一丁目 矢十字葡萄酒本舖 中山商會洋酒部

仁川府西京町一八七番地 內科 小兒科 朴內科醫院 醫師 朴成材 電話四九六番

賀正

仁川商工會議所議員 渡會儀市 電話一〇四八番

仁川府松峴町六六番地 仁川燃料株式會社 電話一二六七番

仁川府龍岡町一 各種穀物 叺繩麻袋 安平貿易 海產物 古物一切 販賣委託 產業商會 特電話五四五番 電略(サ)又ハ(〇サ)

仁川商工會議所議員 青島舖作

仁川稅關長 武田鐐太郞

仁川府西京町 金世玩 電話二九一番

仁川府會議員 吉木善介

營業所 仁川、京城、東京 文化商工社 柳忠國

朝鮮中央無盡株式會社仁川支店

仁川府會議員 張光淳 電話五一五番

仁川府會議員 金允福

深見寅市

仁川府大和町四〇三 各種製菓卸問屋 和成製菓店 主 朴容元

仁川府花水町二七三ノ九 營業課目 綿布 叺 麻袋 貿易販賣 黃鳳榮 電話トツ七七五

仁川月尾島遊園株式會社 代表取締役社長 堆浩 專務取締役 今井省三

仁川府會議員 宇惠吉藏

仁川府西京町 物產委託 洪在範

仁川府京町二〇九 綢緞布木商 錦成商會 電話九九九番

仁川府京町 和洋家具商 龍洞家具商會 主 趙炳澤

仁川府京町三三七 永生堂藥房 主 崔衡植

上仁川驛前 金錫永齒科醫院 電話八九六番

上仁川驛前 高級洋服 朝日洋服店 主 李仁善

上仁川驛前 美術看板 朝鮮堂

仁川西京町 天恩商店

仁川 泰和電機商會 李泰鎬

仁川府京町一〇九 モダン理髮館 モダーン洋品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三番地 新華商 金元國 電話長一〇六九番 三八五番

仁川府尹 永井照雄

仁川府桃山町一七 三榮堂菓子店 主 李甲榮 電話一四六一番

仁川府宮町九五番地 各種洋品販賣 漢陽商會 主 趙學俊 電話一四六三番

仁川驛前 合資會社 Ⓚ 仁川荷主運輸組 電話五三二番

上仁川驛前 各種時計 蓄音機 販賣修繕 東洋堂 曺龍猷

仁川府西京町二〇九 廣豐商會 主 朴鍾哲

仁川府花水町 米雜穀 繩叺 貿易商 天一精米所 趙鏞泰 電話五二三番

仁川驛前 花房理髮所 主 金應福

仁川府龍雲町 永福質屋 主 金性煥 電話一三九七番

仁川府港町一丁目ノ二 今星鑄作鐵工所 電話六五三番

バー埠頭 晝間喫茶ト食事 夜間純酒場

仁川府龍雲町 仁川飲食店組合

仁川府西京町一二四 機械農具 興產社 電話八六二番

仁川公立商業學校 校長 山本正誠

仁川府新町市場通り 內外果實 野菜 海產物 委託及買賣商 中央物產商會 電話三九〇番

仁川府內里二三五番地 九三果物店 曺祥吉 電話九一五 一四六九番

仁川府濱町二六番地 海陸物產商 益泰東商店

仁川穀物沿岸貿易地帶使用組合

穀物檢查所仁川支所

仁川府龍岡町 マルトバケツ工場 電話一二六八番

仁川府龍岡町 朝鮮料理 樂園 金命根 電話二六九番 一一二〇番

仁川府山根町一九番地 大和酒造會社 電話一一三三番 一一二四番

仁川府濱生町 同盛永商店 電話九六七番

天日食鹽 販賣 京城地方專賣局仁川出張所

仁川府港町穀物協會內 穀物委托業 勤業所 電話二七番 三五三番 本所 仁川府榮木町

仁川府濱生町 華商商會

仁川府職業紹介所 所長 高野治介 電話四二〇番

仁川府京町一九四 高級洋服 福音洋服店 電話五三四番

仁川府龍岡町 永和釀造場 電話三八〇番

仁川府西京町二二三番地 萬聚東客棧 電話五四〇番

仁川府會議員 代田繁治

仁川府柳町二七 鷄林酒造合資會社 電話八八五番

仁川府西京町 安榮社 電話三〇七番

仁川府京町 新京館 電話四五二番

仁川府松坂町二ノ四 愛敬石鹸 アイケイ 製造元 愛敬社 電話三一四番

仁川府會議員 谷本茂三郞

仁川府宮町二 仁川日韓書房 電話五七八番

仁川學校長會

仁川府會議員 中條榮藏 電話六三〇番

仁川府京町 中和堂藥局 主 洪思文 電話六三三番

仁川府本町一丁目 京畿運輸社 電話五六二番

仁川府濱生町 孫景三

仁川府松林町二〇四番地 大東社 主 朴容默

仁川府松坂町一丁目十一番地 東洋ブロック建築工業社

仁川府京町八十番地 豐富商會 電話二三〇九番

仁川府仲町三丁目三番地 雲西鑛山

仁川府大和町 精米所 李祥 電話二三六一番

仁川府大和町四〇番地 朝鮮鹽業株式會社 電話七七六番

仁川木材商組合

金相浩商店

仁川府西京町 甲種料理 雅叙園 電話一一六

新築移轉開業 朝鮮料理 日月館 電話六三

仁川府萬石町 東紡仁川工場

仁川府京町二〇三 新藥 賣藥 漢藥 金剛堂藥房 主 李鳳穆 電話一、一六五番 振替京城一九五〇一番

朝鮮鋼鞋便利鞋製造元 各種草席 打綿 賀行李 廣州號 朴明圭 仁川府京町二二

仁川府萬石町大 株式會社 朝鮮機械製作所仁川工場

富川郡永宗面 永宗釀造場 主 丁大實

喪中欠禮 仁川 金泰勳

仁川府大和町四三番地ノ一 朝鮮麵子株式會社仁川支店 電話仁川七五五番

仁川府萬石町 株式會社 朝鮮製鋼所

富川郡廳

仁川府榮木町 婦人醫院 醫師 許鳳朝

仁川山手町 梶谷寫眞館 電話八八二番

仁川府昌榮町一五九 金成運

龍洞醫院 醫師 鄭文煥 電話四二八番

仁川釀造場 酒類釀造 穀物貿易商 崔炳斗 電話七二 一四〇二番

兼二浦

兼二浦邑本町 具、漢書

兼二浦邑大正町 共益精米所 電話一〇九番 金禎根

兼二浦驛前 ◉朝鮮運送店 電話二六番 鄭樂謙

兼二浦邑大正町 朝鮮料理 長春館 電話一〇八番 主 高世煥

奉天市十間房 金秉濟商店出張所 中和商會 金元秉善 晋根

兼二浦邑本町 邑會議員 金秉濟 電話六三番

兼二浦邑明治町 邑會議員 吳鎭憲 電話二四番

兼二浦邑明治町 姜貞顯

兼二浦邑大正町 聖濟局 主 金泰希

兼二浦邑大正町 鮮于木商店

兼二浦邑本町 牛島鐵工所 主 李昌植 電話六二番

朝鮮兼二浦旭町 作業服 學生服 製造商 東一被服工業所 李光雨

兼二浦邑榮町 兼二浦藝妓組合 組合長 張鎭三

中和郡海鴨面 面協議員 池萬成

兼二浦邑明治町 洋品百貨 履物各種 安山商店 主 安炳漣

旭町 綿布卸商 東進商會 電話三七番 主 申宗燮 金炳權

黃州郡松林面馬山里 學校評議員 劉興龍

黃州郡松林面松林里 山本果園 主 鄭應模

清水面 面協議員 劉亨源

龍岡郡多美面事務所 職員一同

兼二浦邑本町 朝鮮料理 第一館 主 崔能守

兼二浦邑大正町 綢緞貿易 東洋精米所 主 李東夏

朝鮮日報兼二浦支局 顧問 鄭怡鉉 支局長 李相道 記者 徐炳高

兼二浦邑明治町 普明農民學校長 金秉律

龍岡郡多美面 觀海學院

龍岡郡多美面 康鎭湜

黃州郡 面協議員 金子南

兼二浦邑旭町 朝日寫眞館 主 金在鳳

兼二浦 昌成學院

兼二浦邑本町 帝國ミシン株式會社 蛇の目ミシン 兼二浦分店 李永權

兼二浦邑大正町 成功自轉車店 金昶恩

兼二浦邑旭町 平安精米所 主 金寅奭

兼二浦邑榮町 綢緞布木 仁川屋 主 韓貴晋

兼二浦邑旭町 昌成幼稚園

兼二浦邑 三業組合

兼二浦邑明治町 三浦洋服店 琛九鉉

兼二浦邑本町 三共寫眞館 主 吳相訓

黃海道兼二浦邑 三洋社 各種ゴム靴卸商 金景瑚

兼二浦金融組合 理事 畠中達男

兼二浦邑大正町 セメント 煉瓦 土管 新興モルタル商會 主 金學延

龍岡郡多美面 金信浩

黃州郡松林面 朴龍淳

黃州郡松林面 金時容

黃州郡松林面 青林果園 主 韓用植

松林面職員一同

兼二浦邑本町 元亨東

兼二浦邑榮町 光成堂藥房 主 李載洙

兼二浦本町 鄭燦朝商店

泰盛商會 主 尹泰鉉

兼二浦邑明治町 李元八商店

兼二浦邑大正町 吳成贊

兼二浦邑大正町 精米業 鄭禮漸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三

外華內貧의不調和 擴大보다充實에로!

港灣修築治山治水도咸南의큰課題

咸南道篇

밧그로 보기에 그형세가 극히 성한것가트나 그내용에 잇서서는 그외곽세력에 따르지못하는 공허(空虛)한데가만타는것이 함남도를 가장 단적으로 표시한말일것이다 함남도의 중대문제는 사실 다른것과가치 대기업대산업을 일으킨다는것보다도 이제와서는 이미 설치된 대 기업에순응할수잇도록 일반시설을 확충하여야할것과 천연적 자원을 개발활용할수잇도록 하는데잇다고 할수잇다 즉 대규모로 펴노흔것보다도 이미 펴노흔기편에대한 내용적 충실이다 함남도내의 어려한 건설을 요하는 긴급문제는 큰것 적은것을 합처서 한둘로 헤일수업슬것이다 일반 도민의 요망으로는 명년에라도 한꺼번에 모든숙제를 내려오던 현안을 해결지엇스면 하겟지만 더욱이 지금과가튼 예산에 제한이만흐며 또 국책에 거리가 먼사업이란 도저히 실현을 허할수업는상태임은 유감이다 그중에도 수년동안 도민들의 입에·가장만히 오르내리던문제가 기어히끄틀 지어야할현안만이삼건들어서 신년벽두에 금년의 『포란』으로도내판민들이 일심협력하여 실현에 매진할것을 제의하기로한다

그러면 가장긴급한문제란 무엇일까 그하나로 생산력확충에 판게되는 긴급문제인 함남연안 항만수축(港灣修築)도내의 완전한 치산치수의대책 결핵요양소(結核療養所)설치의 세가지다。

함남도는 연안선 일천삼백여리에 한난(寒暖)양류가 서로어울리는곳으로서 각종어족이 가장풍부하게 잡히는수산도라고모두 알고잇스며 또사실수산도로 자인하고잇다 수산고는 연사천만원을 초과하고잇스며 어획의 시기는 명태、정어리、고등어등 일년을통하여 그시기에 따라서 끈허질동안이 업는상태다 그러나 이가튼천연적으로 풍부한자원을 가지고잇스면서도 그어리(漁利)를 최대한도로 완전히거둘수잇는 어항시설이라고는 거이업다고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까지 도내연안각어항가운데 태도 이공을 가하엿다고할수잇는 항구는 서호진(西湖津)항의 피난항시설신포(新浦) 신창(新昌)의제일기축항등이잇슬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구도 그시설을 견고하게하지못하게는해마다 풍랑으로 안벽이허무러저가고잇스며 또상류(上流)로부터 흘러내리는토사(土砂)때문에항내가메워저서 거의어항의역할을 다하지 못하게된다 더욱 근년에이르러서 이어항때문에크게 문제되는것은 대소공장이그항구의배후에나서게되어 어항은 어항만으로도 좁으니이때에 그공장의 여러가지 반출항으로 소용된다든지 또는 그공장의전용항(專用港)때문에 어항이업서지게된것이 한둘이아니다 공장항으로 병용(併用)되는지역를들면 방금여론화하고잇는정주항의일반하물(荷物)의유양으로 어업조합에서 어항전용으로 그권리를 달라는것 원산항(元山)의 상항문제 장호(莊湖)항에서 이원철산(利原鐵山)의광석발출로 어민들과 충돌된문제등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전용항이되면서 어항이업서지게된것은 전진(前津)단천(端川)등이이것이다 이리하여 함남도의 어항은미수축과 확장 신설등 세방면으로바야흐로중대한여론화하고잇다 함남도당국에서도 어항시설에 비추어 토목수산량국에서 제휴하여어항양만수축에 대하여는 전도적으로 가장긴한 현안으로 삼고 설계、조사등을하여 그예산의 보조를 매년총독부에 요구하고잇스며 세천(細川)지사도 이에대하여서는 제일관심을 가지게되어 도지사회의에 제안하고잇는데 현재함남도 토목과에서 입안한도내 어항의수축공사의 설계내용은 다음과갓다。

즉 도내항구가 모두 십사개소로 그총공사비는 구백삼십칠만원인데대하여 그수양고는 수축하지안흔 지금에도 일천오십륙만원이나된다。

이에대하여 수산과의 말을들으면 이것을수축하여 연안의귀한토지를 매축하며 또어선들이 완전한 정박을할수잇는 항구시설을하게되면은 이수양고도 현재의약배나될것이며 제조는 그용지의 풍부로서 현재보담도멧배의수익을낼수잇다고한다。

그뿐아니라 현재에는 타도어선이 통어(通漁)하는 경우에도 피난할수잇는 항구가업서서 오지못하며 또한다고하여도 풍랑의 희생이되는것이 극히만타고한다。

이런것으로보아서 함남도의어항수축문제는 극히시급한것인데 불행하게도 항만의수축은 시국판게를 불급(不急)사업의 병종(丙種)에 편입되고잇서서 그예산은극히용인이어려운실정에잇다

이에 이대책으로서 긴급대두된것이 항만의자력수축(自力修築)론이다 즉자금만은 지원어민들이 담당하며 기술적수속에대한것은 당국에서적극적으로원조하여 주어야 하겟다는것이다。

현재함남도에는 이가튼 자력수축을개시하고잇는 항만이만타차호(新浦)는 이미심사년에 매축지에매、박법으로 공사비를 만들고서 실시년이월에 그인가신청을 드리고잇는데 불원인가될것이라고하며 신창(新昌)가튼곳도이미 주식회사로서 축항공사의인가를 신청하고 자금조정법의심의를 밧고잇는터이며 삽호군서도 축목부의 기술적답사도릇마치고 도구체적 설계까지

사실 당국의 보조는 당분간 바랄수업는 터이며 수축은 곳 실시하여야 할것이므로 주민들어이가치 궐기하게된것인데 이것모두 국부적인것이오 도전체로보아서는 각어민들을 총망라하여 축항회사가튼 것을 조직하여 이것을 순차로 수축할수도 잇슬것이다 실례로는 강원도 장전(長箭)에서 그러한회사조직으로 완전히 축항한것이 잇는것으로 보아서도 가장 실현이 간편할 문제다 어획고의 일년분을 가지면은 십사개항구를 모두 수축할수 잇스며 더욱 축항으로 인한 매축지등을 팔면 그만큼한자금은 그자체에서 지판할수잇슬것이다 당국에서는 당국의힘으로 하지못할바에는 이어민을 망라하여 축항기성회를 조직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것이며 어민자신들도 총체가되어 회사조직으로 쉽게 공사비를만들 필요가 잇지안흘까?

금년에는 기어히 실현되어야할것이다 또 전진은 통회계의 대회학공장의 전용항으로 어항을 일케되어 삼천주민이 생도를 일케되엇스니 회사에서는도민의 희생된 어민들을 위하여만풍의 동정을 부어야할것이다 대단전의 거회으로 공어항으로 수축할타전도 대신어항을할 남도당국에서 기재하여서라도금년안으로는 실현시켜야할것을바래지 안흘수업다

재작년○○에 함남연대를 엄습한 미증유의 대풍우는 함남의 전역에고루고루 큰수해를이퍼 만여정보경지의 피해와천팔백여명의 인명사상 사천만원이라는 거액의재물을 일케한것은아직도 기억에 남어잇다

이가튼 풍우는 다시 두번업슬것으로 생각되며 또엇슬것을 바라는바이나 전변구월에도 또한 다소의풍우에 단천군하다면수하리(端川郡何多面水下里)가튼곳은 큰큰로 삼십여명의 인명사상과 광대한전답이 해를밧게되엇다

금후 함남도의 수해라는것은 전변과가튼 힝우의 풍우가아니라도 웬만큼한 비에도못 큰피해를 밧을것으로의 실례로보아서도 넉넉히 짐작하고남음이잇슬것이다

이것은 대개두가지 원인을들수잇다 즉하나는 인위적으로산을헐고서 그시설은 하지못하판게오 또하나는 이전의 수해로 허물어진산을 그냥복구하지못하고 또 문허진하천제방을 완전히 복구하지못한 판게라고할수잇다 인위적파괴는 함남의벽지대 곳곳에 형성된 발전소(發電所)공사로서산을 허물려버리고서 그에대한시설을 완전히하지못하고잇는것은 사실이다

전변수해에 순천히 함주군하기천면(咸州郡下岐川面)방면과단천군수하면(端川郡水下面)방면의 피해가 재삼하엿든 것을보아도 천기사실을 수긍할수잇다도 한가지는 전변수해에 성천강(城川江) 금진강(金津江)단천남대천(端川南大川)등의 상류지방산이 풍우로 흐터저서 토사가 떠러내려온뒤에 아직도 복구하지못하고잇서 조금만 비가와도토사(土砂)가 흘러나리게되며 수원(水源)이 업서지게된것이다。

사실이치산치수의 대책을 세우지안흐면 함남도내의 수해는 면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함남도로서의 가장중요한문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치산 치수의 대개회에 대하여서는 전변수해이후에 곳허무러진사방시설의 복구책과 제방공사를 시행키로되어 그계획을세웟섯스나 그예산은 모두삭감되어서그뜻을 이루지못하고잇다。 세상사람이란 곳순에 보이는피해만을 절실히생각하고 그피해가닥처오는 원천(源泉)은 안중에두지안코잇는느낌을가지게한다

이제함남도의 치산책의대강을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함남도에서 현재매변계속하고잇는사방공사는 국유、민유림으로매변이백사십정보씩 오는이십팔변에 완경케될것이라고한다 아직미완성된것이 삼천백정보나된다 그러데전변도에 대수해로 사방시설이파괴되어 곳시설을 하지안흐면안될것이 또 이천오백칠정보가생기게된것이다 지금 문제되는것은 이 이천오백칠정보의급속사방시설을 하는것이다 이내역은

城川江上流
區域 咸州郡下岐川面外八個面 新興郡加平面外三個里
面積 五六〇町步

金津江上流
區域 定平郡定平面外八個面
面積 九四〇町步

端川南大川上流
區域 端川郡端川面外四個面
面積 七五〇町步

端川北大川上流
面積 一五〇町步

어가을 계획을 세우고서 또산림국에서는 곳 수해이후에 재민구제공사로서 그보조를 총독부에 신청하엿스나 용인되고도작년에도 그예산을 요구하엿다 그러데 금년예산에도 역시 삭감될것이라는 비보가 전하는데 어게대하여 한가지 동의(動議)하고 시픈배가 잇다。

이사방공사에 요할경비는 일정보백원으로서 이천오백정보에 요하는총공비는 이십오만원밧게는되안되는데 이제 국고보조를 밧는다처도 그중약팔할밧게는더 못밧는다 즉 이십만원의 보조를 밧지못하여 시설은 못하게되는것이다。

도민들이어!이시설을 못하게되면은 그손해는 한번에 수천만원이나 될것이니 겨우 이십오만원이라는 돈은 그막대한피해에 대하여는 극히 적은돈이라고할수잇스며 하류의관계주민들은 모름직이 이사방시설비를 거출하여서라도 곳 이시설을하여야 하지안흘까?함남의 수해를 발보색원적으로 업새게하여야할것은 일각도 유예하지못할 긴급한 문제다。

다음은 하천개수 문제로서도 그러고 재작변도 재해복구공사로 국가에서전개한것을보면 제일차 중소하천개수는 십일개하전으로 그공사비삼백구십이만원 그리고 조사하천(調査河川)(제일차 중소하천의개수에 조사한것)이십사개소에 삼백팔십만원비 일백오십일만삼천원으로도합 구백이십삼만원의거액이된다

이것은 일조에 이룰수는업스나 위선 결궤된하천만은 어떠케하든지 곳 개수하여야할것이며 특히 기설제방도 재작변도의 우량으로보아서 더보강(補强)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당국에서는 보고함남을 일시적으로라도 수마에서건지려고하면 무엇보다도치산치수의대책을실행하여야할것이다(咸南特派員宋洛璜)

食糧確保恒久策

廣範圍의未墾地開拓에서

忠北道篇

전고미증유의 대한해를맛난배만주로도민의 현하가장 긴급한문제는 말할것도업시 한해대책일것이다 총인구의 팔할오분이농가인만큼 그러겨이 자못심각함을녀비치 짐작할수가잇다 당국의조사에 나타난 한해피해만으로 구제자만도 실로수다한인수에달하고잇는 바로서 당국에서는 파반아시 도회를열고 사백오십여만원의 방대한 한해대책공사비를통파 시켜 지난 가을이래각지에서 공사를 일으켜 노임산포에의한 구제를하고 잇는것은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당국의 적절한 처치만미아마 다수의 이재민은 다행이 생활에도를세우고잇스나 현하미꼬사정이좀딱한점이잇는데 이 식량문제의해결을위하여는 판민이다가치협력하여 만전을도모하여야할것이다 당국에서는 그대책으로

내지 또는 만주국방면 으로부터 잡곡을 수이입하여 써 식량배급의 완화를 기도하고 잇는터이다 이러한하늘이준 큰시련을 통하여 좀더근본적인 발본색원적으로 식량의 충족을하도록 책을 세우는데 잇서서 이야말로 전화위복이나 농가갱생운동도 식량문제가 해결된후에야 비로소 성공될것이며 피폐한 농존도 자연생동하게 될것은사실일것이다 그뿐만아니라 이번파가튼 천재를맛나게될지라도 일상생활상 아모런 협위를 밧지안흘것으로서 이번의 대한해와가튼 천재에 대비하는의미에서도 식량의 충족을기도하미 그이유가 여기에잇다 그러면어떠한 방도에 의하여 항구적식량의 충족을 기할수가 잇는가?에 대하여 각개인사의 말을종합하면 도당국에서 토지개량답의이모작 장려등에 의하여 꼭물의 증산을기도하고잇는바 이것도 가장적절한 방도일것은사실이나 평야가적은 본도에 아직도개간할 지역이 상당히잇는바 그것은 조림도안하고 황무지그대로 방치하여잇는 임야이다 본도의 임야는 총면적의칠할여로서 그중개간하면 밧(田)으로서 적당한곳이 현재밧면적이상으로 아깝게도 그대로 방치되어잇는터이다 토지개발회사가튼것을 창설하여 삼개변가량의 계속사업으로 개간한다면용이하게 훌륭한 밧를 만들수가 잇슬것이며 여기에 맥작등을장려하면 임업생산의 배이상을증산할수잇슬것이다 맥작은 흉풍、이 그리업스며 평변작만은 언제던지 기대할수가 잇나니 맥류는 조선농가의 주식물이되어 잇느니만큼 상당한바외가를 방도를 강구한다면 자연농가의식량확보를 볼수가잇슬것이다 이번전고미문의 한해를당하면서도 농가에서 식량에 큰곤난을밧지안흘것은 금년맥작에잇서서 풍작을 보앗는판게이다 여겻으로미루어보다할지라도 어문제가 얼마나 긴급 도중대한가함을 용이하게 상상할수가잇슬것이다。

地理的의不利는 交通路整備로克服

교통망의 정비는 산업개발상 불가분의 관계가잇나니 이점으로보아 충북선(忠北線)연장이얼마나 긴급하다는것을 알수가잇다 본도는 사방산악에싸여 해안선을 갓지못하엿으로 해산물은 물론 이러한산물이 업다는것은 세인이 주지하고잇는바로서 그반면 임야만만흔것을 이용하여 엄대도지사는 조림(造林)에 주력하바로서 그장려가 자못유망시되고잇는바이다 본도특산물대는 현재도 풍부한임산물이잇스나 교통의불편으로 아직 개발못된 그대로 잇는터이다 더욱 최근 목본업대는 지하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잇는것이 발견되엇는데 어런 지하자원도 교통망의 불비로 그대로 매장된채로 잇슬뿐이다 다행히 산업개발의 목적으로 경경선의부설을 보게되어 어느정도의 개발을보게될것은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는 완전한개발을 할수는 업는처지이다 현재의 충북선을 제천(堤川)을 경유하여 강원도 영월(寧越)과정선(旌善)등지를거처 동해안에통하도록 철도를연장치안흐면 아니될것으로 이로써 해산물에굶주린 본도민에풍부히 해산물을 공급할수잇슬것이며 또는무진장의 임산물을개발하여 도외에 공급하게될것은 말할것도업는바이다 이러한점으로 충북선의연장은 무진장지하자원과 임산물의개발과 중부이북연선의 각종산업개발상 가장긴급중대한 문제로서 해마다도회의석상에서 논의되고잇는바 실현의지속여하에 따라극히중대한 영향을주고 잇는바로서 백만도민은 조속히 실현을갈망하고잇는터이다 도민은여하한 난관이라도 돌파하여 시급히실현되도록 맹진하지안흐면 아니될것이다 (忠北特派員 柳觀鎔)

全北의重大施策 耕地調整十年計畫

目的遂行엔大地主의協力이絕對로必要

全北道篇

一、머리말

현하 다단한 시국에처하여 우리의 생활전체를 통해서긴급히 해결하여야할문제가 하나둘이아니로되 농본조선으로서 가장긴요하며 또한언제든지 해결할짓지아니하면아니될 문제는 농지조정(農地調整)문제를 첫손곱지아니하면 안될것이다 왜그런고하니 조선은 총인구의팔할이농민이어서 농업본위의 땅어며이땅의농업형태여하는 산업부문의 성쇠를 말할뿐만아니라 전체사회에영향을 끼치는 중대문제인까닭이다 물론이문제를 좀더근본적으로 해결지자면 여러가지로 연관되는 어려운점이만치만 현하허락되는 정세를전제로 가능한범위에잇서서는 당국의 지금까지 소작인의 보호시설로생산방면의 각종개량과 농지령파소작조정령으로써 작권이동을 방지하고 지주와의 화합을권장하는데굿처 그방법이 너무나 소극적이엇슴에반하여 적극적으로농경지 조정계획을세워 소화십사년도부터 이를 실시하고 잇슴을 볼때 이것은 우리가 바라던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해결로 우리는 만강의기대로써이문제의 촉성을바라마지안커니와이제전라북도의 농지조정십개년계회의 전모를 널리소개하여 식자의여론에 소하여 그분기를촉하고자하는바이다。

二、농지조정계회의근거

(가) 토지독점과 소작지쟁탈격화

전라북도에 잇서서의 전농가호수는 이십삼만육천사백십일호로 전호수의 팔할을 점하고잇고 경지면적은 이십사만오천정보밧게되지아니하여 이를 각농가에평균하면 일호당 일정삼묘로 경지면적의 협소한놈이 내지에못하지안타。

어와가치 경지면적이적은데다가 삼십정보(약이만두락)이상을 소유한지주가 사백오십륙인 일천정보(약이만두락)를 소유한대지주가 십삼인으로 소수의지주게급이 농지를독점하고 잇서서 소작지의 쟁탈또는 소작지의겸병을 초래하여 소작쟁의의격화를자아내고잇다。

(나) 소작농전락문제

어십삼만 유천여호의 농가를 자작농 자작겸소작농 소작농급무작농의 각종으로구분하여 전북도의과거 십개년간의 추이를보면 농촌의중견층인 자작농과 자작겸소작농은 매년일천오백호이상이 감소하여 소작농 또는 무경지 농가로 전락되어감에반하여 소작농은 증가의 일로를 밟을뿐 아니라 한번 소작지를 상실하면 다시는 소작인이될수업서 농업노동자에 굴러떠러저 현재 고지노동자가 이만호에달하고잇다 이와가튼관계로 소작지의겸병을 초래하게된은 자연의세로 오정보내지 이십정보이상을 경작하는소작인이 오천호를산하고 오반보(약십두락)미만의 순소작농은 실로팔만팔천호에이르러 전소작농의 오할에해당하며 아프로 인구의증가와불건전한 농촌경제의 영향은 농촌의 인구의출면증가、 농촌경제의피폐는 이루서울조장하고잇슴으로 이를내버려두는것은 실로사회의 중대문제이다 그러므로 도당국이 농지조정십개년계획을수립하파곳시에 오반보미만의 빈농팔만팔천호를 자작농화시에배치를 결정실시하고잇슴은 본도산업행정상 매변대거가아닐수업다。

三、농지조정계획 실행방법

본계획의내용은 일지개각자작농창정 소작지관리등 방법에의하여 소화십사년도부터 향후 십개년간에 농가일호당 평균일정오반보의 토지를경작시켜 농민경제의향상과 농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엿는데 그실시계획은 다음과갓다。

(가) 고지정리에의한조정

무엇보다도 본계획의 선결문제는 고지노동자 이만호의정리로 당국의계획을보면 고지이만호중 일만오천호는 이민계획에의하여 만주에이민시키고 나머지 오천호는 북조선지방에농업당공업이민으로서 정리할、

(나) 자작농창정에의 한조정

오반보미만의빈농 팔만팔천호내 오만사천호에대하여는 일호당오반보이상의비례로써 도금융조합 지주등으로하여금 자작농지를창정시킴

(다) 소작지의조정

오반보미만의 순소작인팔만팔천호중 전기오만사천호를제한 삼만사천호에대하여는 금후십개년간에잇서서 일정오반보이상의기업적소작농의 소작지를 균분화시켜 오반보이상의 소작농가를 만들어조정함

四、결론

이상으로써 농지조정 계획의의의와 당국의방침의 대략을개시할수잇거니와 어계획의 실행에 잇서서는 지까의앙등 자금의제한등막대한 곤난이잇서 전도를 우려치아니 할수업다 그러나당국의일보 전진과 대지주들의공존공영적 자각과 결의가잇다면 전도가 염려될것도 업스며 십개년이란 긴세월도 필요가업지아니한가 생각된다 왜그런고하면 십개년간에 오만사천호의 자작농가 창정에대한 소요면적은 삼만이천정보인데 도내 십삼인의대지주가 소유한 전답면적은 이만구천 구백정보이므로 지주들은 이를자작농창정지로 제공하고 당국은 중앙금고의 저리자금을이용하여 연부상환할 편법을세우면 되지아니할가? 혹자는 소유권을침해하는 무모한망론이라하여 일소에부할는지 모르나 대지주들은 농장을내노코 바든 거대한토지대금으로 국책사업을 일으킬수잇는것이며 농민들은 생명의농지문제를 해결하여 생업에매진할것인즉 그운은 일치월보할것이아닌가? 들으니 화성농장(華星農場)의소유인 진안(鎭安)장수(長水)농지의 토지를 자작농창정지로 내놋는다하며 동적에서도 이문제를고려하고 잇다하니 다른지주들도 신중히 고려함이 어떠흔지 아프로일반여론에 어문제를맛기고저 한다。

참고로 천정보이상의 전답을소유한 십삼개의대농장을 소개하면다음과갓다。

農場名	農場所在地	所有面積 町步
東拓裡里支店	裡里	七、一〇〇
熊本農場	沃溝郡開井面	三、〇〇〇
不二農場	益山郡五山面	二、七〇〇
多木農場	益山郡咸悅面	二、五〇〇
右近農場	裡里	二、四〇〇
華星農場	裡里	二、〇〇〇
嶋谷農場	沃溝郡開井面	一、七〇〇
石川農場	金堤	一、七〇〇
東津農場	金堤郡進鳳面	一、六〇〇
東山農場	完州郡東山面	一、五〇〇
細川農場	益山郡大場村	一、四〇〇
二葉社農場	全州	一、三〇〇
大橋農場	裡里	一、一〇〇

(全北特派員 河駿錫)

圖們街仲秋區仲秋路 官行所伐業 一般木材 東滿實業株式會社 社長 黃炳祿 電話長 二七六番 同 五四五番

滿鐵福祉生計所指定販賣店 時計貴金屬寶石眼鏡附屬品 日立時計店 主 河益瑞 電話 一四七番

金銀細工 記念品 永光銀房 李相滿 圖們街昭和區 電話五四〇番

圖們街昭和區延吉路 紳士社交場 サッポロ會館 主 俞漢周 電話七二三番

滿洲國圖們街 時計眼鏡 和洋樂器 萬年筆 蓄音器 貴金屬類 明時堂 電話五三一番

圖們街仲秋區 朝日旅館 主 姜呂珌 電話二七〇番

圖們街 大田食堂

輔信産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車善陽 專務取締役 田代齊志 本店 間島省圖們街 支店 牡丹江市西牡丹江街

圖們街私設市場 牛肉 豚肉 カシワ イロハ精肉店 主 金茂淵 吳基秀

圖們街昭和區 朝鮮料理 大同館 主 金鐵善 電話七一二番

寫眞館은晝夜撮影 寫眞學院은年三期募集 オリエント 寫眞館 寫眞學院 本店 圖們街 電話七五六番 支店 延吉街 電話二〇〇番

滿洲國圖們市 清酒 醬油 食料品 卸小賣 昭和商會

圖們街康德區 廣德夜學校長 石夢虎

間島無盡株式會社 圖們支店 支配人 文錫礎

朝鮮料理 綠水春 主 金龍八 電話一一三番

寫眞撮影 アルス寫眞館 主 劉漢周 電話五一〇番

圖們街 日滿紹介所 愼行範 電話(長)六一六

圖們街南區 滿興喬麥精米所 主 金命哲

圖們街昭和區 潼關旅館 主 金昌五 電話七三二番

圖們街昭和區 木下洗布所 房泌塡 電話六七四番

圖們街 大興精米所 主 金昌律

間島無盡株式會社 朴泰善

延吉縣董子溝在 董子溝醫院 醫師 金基南

滿洲國間島省圖們街 一般木材 海産物 大滿商事株式會社 電話七二九番

一般人事紹介業 圖們紹介所 主 趙五龍 電話五四〇番

間島省汪清縣 春華村公所

汪清縣春華村 公立春和國民優級學校 韓喆煥

圖們街 三和電機商會 主 金昌起

圖們街春風路 建築設計施工 大東工務所 電話三三〇番

圖們街昭和區 壽星堂乾材藥房 太衡弼

間島省延吉縣琵子溝 北滿精米所 安商五

圖們街昭和區 中央理髮館 金益善

圖們街仲秋區 圖們印刷所 電話五八一番

圖們街康德區 萬香堂菓子店 主 金忠善

滿洲國間島省圖們街康德區 東一堂乾材局 崔錫利

圖們街 古物貿易 興業古物商 主 方貞孫

圖們街仲秋區 陸軍御用達 原木並ニ伐木造材 內外特産物買賣 大陸産業社 電話一一九番 代表者 朴昌煥

一般印刷 和洋帳簿 洋紙和紙 文具一式 合名會社 東北印刷社 朴炳哲 圖們街仲秋區仲秋路 電話長二五番

殷山

殷山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殷山面長 金洪龜

龍泉里 有志 金東高

平南殷山 回春醫院 尹錫祜

順和醫院 尹奎瑞

殷山市 流線型高級紳士淑女靴 一美洋靴店 主 韓炳德

穀物貿易 精米業 殷山穀物組合

唐材乾材 松林藥局 金永松

穀物貿易商 全聖根

森林保護區 主事 劉仁俊

朝鮮料理 安州館 主 林寶培

殷山和信連鎖店 主 全裕根

殷山市 黃義鍾

平元線殷山保線區 高子善信

殷山面仁上里 有志 元致福

殷山里 有志 金載頻

永信商會自轉車部 金鎭璞

食料雜貨 鄭龍淳商店

平元線殷山驛前 穀物貿易 精米業 金成商會 主 李炳洙 朴昇鉉

殷山郵便所 所長 李元福

雜貨食料 永信商店 崔賢七

第一商會 主 李達福

穀物貿易 精米業及古物商 昌盛商會 主 田昌淵

殷山里 有志 張松洙

殷山面事務所 康鎬昱

殷山面事務所 金寅鎬

順川邑城里 趙元汝

殷山面事務所 金濟鍵

殷山面事務所 金浩彬

殷山市 吳景璉

殷山市 崔熙信

殷山面事務所 林昌根

殷山面協議員 金秉奎

殷山 有志 金鍾燮

殷山面事務所 金達漸

殷山 朴允喆

殷山面錦谷里 李乙善

殷山 李明鐸

殷山里 金聲錫

龍城

本籍定州 鑛業 金文洙

金淳祚

大同郡在京面水庄里 黃贊成

大同郡柴足面乾芝里 鄭寅澗

大同郡柴足面 有志 李秀萬

斧山面事務所

大同郡柴足面石三里 鄭斗杓

京義線開里驛前 在京寫眞館

平元線殷山驛前 興生堂醫院

災地의우리는이러케싸운다

七道旱害現地報告 【其三】

부삽들러멘"선비部隊" 學費벌어쓰는小學生들 억세게일잘하는婦人네

本社特派員 李鍾模

꼿꼿이살어가는表情

충청북도에서 작년의 지독한 한재로 말미아마 농사가 되지못하여먹을거리가업서서 구제를밧바더야될 호수는 칠만사천일백칠십이호이다 이가운데서 량산으로 또는다른토목공사장으로 일거리를어더가게된 것이 오천팔백호이며 경경선(京慶線)철도공사장으로 혹은 만주로도 더러 살길을차저갓고 가마니를 짜서 먹고살어가기로 된것이 유천팔백호이며 그밧게 유만일천사백여호는 각종한재대책공사에서 퍼트린 임금으로써 구제를밧게되엇는데 그공사비는 사백이십오만원이다 충청북도에서 한재가 가장 심한곳은 영동(永同) 옥천(沃川)을 비롯하여 청주(淸州) 괴산(槐山) 보은(報恩) 음성(陰城) 충주(忠州)등 각군이다 한재대책공사는 대개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토지개량사업과도로 개수공사와 사방공사와 산림도로 개수공사와 제방축조공사등이다 이러한 공사는 모두전시공동원 면(面)면면에서 마타가지고

직접 한재민의 손으로일을하고잇다 일은준조로 진행되어서작년십이월 이십일 현재로 토지개량사업은 사십사퍼센트 사방공사는 칠십퍼센트 산림도로공사는 유삽팔퍼센트 토목공사는 사십삼퍼센트나 진행되엇는데 평균사십오퍼센트가량이나 진행된셈이다 일싹은 하루에 평균 칠팔십전정도이지마는 당장에 먹을거리가 업는 불상한 백성에게 이와가튼 고마운일터가 잇기때문에 그들공성적이 비교적 조흔탓이다.

기자는 괴산군증평(曾坪)보광천(寶光川)재방공사장에서 이천오백여명의 한재민들이 십리기리나 되는 지방축을 싸코잇는 광경을 현장에서 볼수 잇섯다 이들은 흙을 파서 지게로 저다가 평지에 높은 방축을 싼다 이내에는 물한방울도 보이지 안는다 그러나 비가만히오는 때에는 넓은 들이 이내물부터 범치는 홍수로 말미암아 농사를 버리게되는 일이 만흔것이다 그러치마는 여태까지 그 필요는

느끼면서도 제방을 쌀수업서 지내온것인데 이번에 이한재구제공사로 말미암아 훌륭한 제방이 되어가고잇는것이다. 아제방공사에는 괴산군사리면(沙梨面) 상모면(上芼面) 성안면(聖安面)등 세곳 소학교 생도들도 선생의 인도로 나와서 일을하여서 한사람아페 매일일작사십전씩을 바덧다 그어린생도들은 그약한손에 심라하지안코 토요일오후와 일요일에 삽을쥐고서 흙파는 힘찬일을 꾸준히하여서 명년봄까지의 학비를 저축하엿다는 가상한이야기가잇다 충북도내 심한한재지의 학교생도가운데는 점심을 굶는 아동도 더러잇는터이나 그수효는 그다지만치는안타 청주와괴산과의 인접한곳에잇는 보광천과 석화천(石花川)의 제방공사장과 사방공사장에는 한때는부인들도 만히나와서 일을하엿다 그들은 똥기미에 흙을 파너어서 머리에이고 남자들에게 지지안흘만큼 재빠르게일을하여서 오히려 그

성적이더조화다 이와가치 남녀아동을 물론하고 꿋꿋이살아가겟다는 표정을 여기저기서살필수잇다

......

뿐만아니라 일평생에 공자나 맹자의 이야기나하고 한문이외의일은 다 소용업는것으로만 생각하며 손에호미 한번도 쥐여보지못한 선비들이 만이와서 흙을파는 광경을 볼수잇섯다 이것은 청주군에서 청주읍과 사주면(四州面)에 거주하는 선비로예당판에 따라 곤궁을하여보지못한 사람들로서 살기가 구차한 여든한명을모아서 작년십이월하순부터 청주문묘(文廟)뒤산에서 사방공사를 하고잇는 사실이다.

그들가운데는 일찌기 한국시대에 군수로 다니든사람도 두명이나잇스며 주사(主事)와 참봉(參奉)의 직함을 가진사람도네명이잇고 도파사도 한명이잇다

나이는 최고로는 칠십칠세 최저로는 사십세인데 그대부분이 로인들이다 이공사는 오백원인데 약 한달동안에 끗내기로 된것이다 임삭은 각기 일한성적에 따라 주고잇는데 어제는칠십 여세나된 늙은선비가 망이를들고 흙을파는 이광경은 이번 이한재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보게되는 기이한 사실이다배가 고픈데 또는만청에서지휘하는데 집안에서 가만히 업드려서 주린창자를 붓들켜안고 잇슬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는 차저보기 어려운일이다

......

한재민들은 아직 굶지는안는다 그러나 그들의 먹고사는량식이란것은 참으로 한심한것이다 옥천군 옥천면 가풍리(加豐里) 한재민들은 온동리가 모두도토리를 따서말려서섬을 재어두엇다 한집에 몇섬씩 준비하고잇다 이것을로써 떡을 만드러서 먹고잇스며 흉은 다른떡을만이 어서먹을때에는 이것으로써 기근을 면할예정이다. 속파 정경이도 만히캐여두고도잇다

보은군사외면(山外面)에서는 보리를 껍질도 베기지안코 그낭그대로 볶가서 죽을 쑤어서 먹고잇다 충청북도당국자의 이야기를 드르면 한재구제공사는 대개 명년이월까지에 끗나게될터인데 삼월·사월·오월 석달을 어떠케 지내가도록할는지가 걱정거리로서 될수잇는데까지는 현재가지고 잇는 량식으로서명년봄 보리 날때까지 지탱하여가도록 하기에 머리를 써키고 잇다는것이다.

......

기자는 괴산군증평의 한부락을 차저가서오동리를 한번들러보앗다 백여호나 사는동리에새지프로 집웅을이은 집은 겨우며집밧게 못된다 이동리안 농민은 토지가 비옥하지마는 원낙 농사가 되지 못하여기 때문에지붕 어더을도리가 업다 네대집 보역깔을 들어가보니 모파한것이와 수수쌔기가 화아지에 조금씩 담겨잇스며 흉은 쌀이 조금씩 담겨잇다 주부에게 점심을 먹느냐고무러보니 그들의 대답은 이러타 「이런흉년에 어찌 식구 전부가 세끼씩을먹을수 잇겟소 밧그로 일을 하러가는 사람은 점심을 차가지고 가지만는 집안에잇는 식구는 모두 점심은 먹지 안습니다 그러고 아침에는밥 저녁에는 죽을끄려 먹습니다」고말한다.

가마니를 짜라고 면사무소의 원들은 밤중에도 이동리 저동리로 도라다니면서 장려하고잇다 지피 귀해서 먼지방에서 사다가 나누어서 짜코잇다 집한닙에 칠전씩 주고 사서가마니한입을 짜게된다 한겨되어 일등 이등 이나되면 비용을 제하드라도 몇푼씩남지마는 불합격이되면 도리어 미지는수도 잇다한다 이것은 농촌노인이 말하는 실담이다 어쨋든 온갓 방책을써써 살아가자는 군중을 마주고잇다 시방 이 한재지백성들은 밤낫으로 창천을우러러보고 한가지 빌고잇는 일이잇다 그것은 두말할것도업시 「명년보리농사가 풍년이되어줍시사」라는것이다」

赤地化햇던論江平野에가을보리가푸르다

忠南災地의復興相……사진은 우로부터 대전(大田)본정소학교생들의 일요로동하천개수공사광경 대덕(大德)군하부인단의 근로작업, 아산(牙山)군하의 자풍경부인들의 급수부대(汲水部隊) 대전공립고등여학교생들의 근로봉사작업, 사진좌상은 보리가 지하수(地下水)의개량경보이의 연양작업, 말러버린저호(貯水池)

自力更生의"好標本" 小學生日曜勞働隊

同病相憐의名콤비애꾸눈이와꼽추

本社特派員 朴致祐

논산(論山)강경(江景)을한데묵근논강평야(論江平野)는 충남은더말할것업고 전조선치고도 손을꼽는 곡창인데 가물에 강물이 짜진것을아지못하고 이것을 논에다 끌어드리고 벼모를내인 탓으로 벼모가 소금기운에 전멸되어서 꼬들꼬들죽다 말라버렷다는 처참한기록을 가진지방이다 논인들의말을 들으면 한번짠물을맛고나면 소금기운을 뽑아버리기까지에는 적어도 칠년은 넉넉히 걸리리라해서 이말을 듯고 이지방주인들은 한때몹시 의기가 저상하엿섯스나 그후도당국에서 논흙을가저다가 면밀히 검사를해본결과 봄에물만잘댄다면 별반크게 염려할정도는 안되리라는것이 판명되어

주민들은 그제야 겨우 얼굴에주름살을폈다고한다. 한편또여기에 기운을어더 그들은 버렷던 이논에일제히 가을보리를 뿌렷다 어언간 보리씨는움이트고 이파리를 펴기시작하여 한때는사토(死土)로 완전히 단렴햇섯던 론강사십리평야에는 지금은 흡사히 갱생의 상징처럼 가을보리가 푸르럿다.

그러타 설사 한해쯤 이삭을못매저주엇다고해서 우리는 대지(大地)를 저주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지(大地)는 농민에게잇서서는 언제나 역시 자모(慈母)인것이다

이런생각에 잠겨가면서 기자는 평야의한편구석을 차지하고잇는 채운면(彩雲面)에들어섯다 방축천(防築川) 개수공사 현장을보기위하여서엿다. 공사는 지금이 한창이엇다. 개천미창을 파서는 제방에 올리는공사엿다. 대체 어데서 저런게들 쏘다저 나왓는지 하상(河床)은 사람의 사태로 깔려잇섯다. 늙으니, 어린이 부인네할것업시 무려수백명에달하는듯하엿다 이곳은 논강평야치고도 가장피해가 심하엿든곳으로 벼농사를 망친주민들은논에다 무를심엇기 때문에 쌀대신에 무를풍부하게 되엇스므로 이때문에 이지방에서는 무밥이 주식(主食)이엇다.

"무밥으로창자를채우것만일할기운은생겨"

무를 잘게썰어서는 여게다 조를조금식 석거밥을지어서 그들은 아침저녁으로먹는것이다 지금여기나와서 일하고잇는 수백명의 남녀노소들도 용당오늘아침에도 이것을 먹고 나왓슬께다.

忠南

○

논강평야에서는 그래도 벼모를 내어보앗섯지만 아산군(牙山郡)을 말하면 모도 내여보지못한곳이다.

아산은 이때문에 벼농사라고는 처음부터 문제될러도 업섯고 그대신에 대용작으로 모밀을 뿌렷다고한다. 그러나 이것마저 더위에 벌 나비가 씨알을 끈흐므로 해서 화분나롬이 못되지안허 꼿은 피어도알맹이가 들지안허 이것역시 망치고 말엇다는것이다 이때문에 이향자(離鄕者)가 속출하여 판내 어떤동니가튼곳에서는 거의반수나 고향을떠나 타방면으로 나갓엇도 잇섯스나 구제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식 둘식 다시돌아오게되어 지금은 동내는 훨신 안정되어 모두가 일터에 나와서 처처에서 열심히들 일을하고잇다.

공사는 거개가 도로공사엿다. 온양면(溫陽面)어떤도로 공사장에서 당국과가튼 장면을 보앗다 국민정신총동원온양면연맹이라는 기다란기빨을 꼬자노코약 이백여명이 길폭을 넓이는 공사를하고 잇섯는데

성한 사람들틈에 끼어서 곱추와 애꾸눈이어짝이 되어가지고 성한사람부럽지안케 흙을파고 나르고하는것이엇다 눈하나 먼것쯤이야 걸다기에 무어그리큰 지장이 될것도 업겟지만은 곱추는 아모리해도 적어도 기자로서는 상상이외이엇다.

곱추는 삼십을 조금넘어보이엇고 애꾸눈은 사십은훨신더넘은듯하엿는데 곱추가 흙을파서담어주면 애꾸눈은 이것을나르곤하는것이엇다.

이두사람이 콤비가된것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기 보담도 생각컨대 성한이들의 지꾸진작난이 그러케만들어노흔듯이보엿스나 기자의 기이한콤비에서부질업는해학(諧謔)보다도 재지의 한개심각한

축도(縮圖)를 보는듯이 생각되어 인민(憐憫)의 정을 늣길수가 업섯다.

"아이들도自力更生으로旱害를이겨나간다"

○

자력갱생이라는 점에잇서 아이들도 어른만 못하지안케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하고 잇섯다. 그중에서도 충남각지의 소학생들의 일요노동(日曜勞働)의 실화야말로 특기하고도 남음이 잇슬것이다. 충남도[illegible]를 위하여서 충남에서도 다른도나마찬가지로 월사금의 감면을 실시하기는 하엿스나 구제를 요하는아동의 실수효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만흔 안될만큼 만헛기때문에 아이들은 부득이 자기네 손으로 제월사금을 벌어야 될 형편이되엇다. 그래서 각학교에서도 하는수업시 일요노동의제도를 시행하여 매일요일마다선생이 친히 이런 아이들을 인솔하고 돈버리를 떠나는것이다.

방법에는 학교에따라 각지각색이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오디(桑果)를 따서 팔기도 하엿고 또 어떤학교에서는 도로공사에 소용되는 잔디를뜨기도하엿섯고 도충남 명물의가로화(街路花)인 코스모스의 종자를모아다가 한되에 얼마씩밧고

팔어 그수입으로 월사금을갑게한 학교도잇섯고 학교림 명태림을 개방하여 일요일날마다 어린아이들로하여금 솔방울도줍고 마른나무도줍게하여 이것을 장에팔어서 월사금을갑게한곳도 잇스며 정거장이 가까운곳에서는 정거장에 아이들다리고나가서 기관차에서 쓰고버린 석탄재를 뒤지어가지고 타다남은 석탄부스러기를 주어다팔어온 학교도잇다.

최근에와서는 이것도 여의치안허 십리 이십리씩 아이들을 데리고 광산노동으로 나간다한다 광천(廣川)석면(石綿)

광산이라던지 청양(靑陽)군석광을 비롯해서 도내각처에잇는 사금광에선생의인솔하에 일요일을 택하여 이들어린이들이 나아가서 어른들이 하는 일을 도아주고 보수로 칠팔십전씩을 어더가지고 오는것이다.

지성으로 아이들도 이처럼 어른에게 지지안케 난국돌파를위하여서이를 악물고 싸호고잇다.

金浦郡金浦面坎井里 李庸俊

金浦郡廳
金浦郡農會
金浦郡米穀統制組合

金浦警察署

公醫 金浦醫院 韓鍾燮

賀正

金浦面事務所 職員一同

陽東面事務所 職員一同

霞城面事務所 職員一同

京西トラック運送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朴一陽 專務 內藤元

金浦郡陽西面開花里 海掘採石場

金浦邑內 朝鮮料理 金浦館 主 方性逸

金浦邑內 朝鮮料理 花月館 主 鄭淳學

月串面事務所 職員一同

金浦郡內 各學校長一同

陽西面事務所 職員一同

陽川水利組合

陽村面事務所 職員一同

穀物檢査所 金浦出張所

金浦穀物組合

金浦面坎井里 牛涪醫院

協友組合 金浦農場

金浦司法書士組合 組合長 金敬欽

金浦邑內 一心商店 主 金重默

金浦醸造場 鄭行冕

陽谷金融組合長 趙命鎬

陽谷金融組合 理事 李錫範

月串面協議會員 李耆鍾

月串面西岩里 金在熙

霞城面後坪里 金奭濟

霞城面石灘里 檀爾玉

霞城面麻造里 李建澤

陽村面協議會員 崔陽燮

月串面協議會員 朴奎遠

陽谷釀造合資會社 代表 姜龍會

陽谷市場 廣信商會 裵世鳳

大串面長 宋道勉

霞城面 廣濟藥局 李寅善

霞城興業組合

金城醸造場

金浦郵便所長 柳村久幹

金浦金融組合 理事 小川道太郎

黔丹面長 金鳳欽

高村面事務所

金浦金融組合陽川支所 兪哲濬

陽谷醫院 醫師 林正圭

黔丹面 李貞夏

霞城面協議會員 閔丙奎

金浦郡陽谷市 陽谷商業組合

天津

日界橋立街十八ノ三 貿易商 五福洋行 李成守 電話二、五五五二番

日界閘口街三四ノ五 金敬鐸

天津市掛甲寺重華大街一 原木製材 天津製材所 電話八〇一一九番

華友洋行 朴世勳 日界橋立街十八ノ四 電話二、二四八三番

馬靑山

朴潤澤

南門外九道胡同十三 妙香山普賢寺布教所 李允根

金村公司 南馬路一二四 金尙珍

雲林商會 日界住吉街二ノ二 電話二、二九六七番

天津日界旭街五八 沈在漢

河北新大路新仁里 金英子

日租界秋山街七ノ一 新菱洋行 林裕榮

公濟藥房 李惟善 天津特一區海大道一二 電話八〇〇九三番 八〇〇九四番

朝鮮料理 明月園 天津南市首善大街大福里九 電話二局五七〇二番

南馬路二九 大陸商會 李昌健

三星洋行 橋立街四ノ四 趙益根

日租界花園街一ノ二 海東號下宿 金養浩

第一麵店 日界蓬萊街八ノ九 電話二、三六八七番 韓小姐

日界蓬萊街一四ノ三 鐵山旅館 主 鄭致彥

日界蓬萊街二ノ二 天津麵店 主 盧虎甲 電話二、三三〇一番

日界榮街六ノ六 平壤麵店 主 元亨寶 電話二、一三五九番

東光洋服店 河北大經路一八二 電話六、一九五五番 李基洪

日界橋立街四ノ五 和洋雜貨 朝日堂支店 朴瑞傳 林光濟

南市慶物大街一〇二 三興號 張基沃 電話二、四一〇四番

日界旭街七ノ四 平安齒科醫院 崔憲龍

日界蓬萊街一二ノ二 京城館 金承有

南市大興街三 曺代書所 曺鍋煥

新大路新仁里三二 北站商會 趙達仁

北馬路西北城角 佳益淳

趙泰浩

姜萬碩

南市榮吉大街五 白三志

南市 金昌赫

南門東一七六 朴時鎔

北馬路一六四 金基洪

河北大經路北開四二二西里一八 鄭基瑞

侯家後小馬路一六 金在田

天津

天津總領事 武藤義雄

朝鮮課 高島正太郎

天津特別市長 溫世珍
秘書長 陳曦戡
參事兼救濟院長 方
參事 趙聯卿
張同亮
社會局長 藍振德
警察局長 鄭遐濟
財政局長 李鵬圖
教育局長 何慶元
工務局長 林[illegible]涵
衛生局長 傅汝勤
公用處長 盧南生
外事室主任 劉孟助
海上警察局長 李福林

秋山街 天津朝鮮人民會 電話二、〇四一八番

天津朝鮮人義勇隊

天津興業金融組合 日界松島街二七ノ二八 電話二、五六六三番

朝鮮人婦人會

營業種目 米穀、雜穀 麵粉、石炭 麻袋、食料品 其他
元記號
總經理 李元坤
天津南關大街一〇八 電話(二)二一六四 〇八九三番

天一運輸自働車部 河北大街[illegible] 李明龍・朴容洙

天津市河北經路三五號 米穀食料品 海産物貿易
新盛商會
金震根
電話(六)一二五〇 六〇四八番
本店 奉天
支店 北京、石家莊、太原

貿易商 天一行 日界秋山街四ノ二 電話二、〇九四〇 二三八一番

卓一工程社 河北二經路五號 電話(六)一七二五番 卓一泉

金一煥

張翊朝

大興貿易公司 河北三馬路永慶里四 電話六、一九二九番

張世萬

婦人會長 金泰熙

支店長 相良自助

天津療病院 院長 康炳心

新新洋行 金曦榮

植田印刷所 天津河北大經路仁壽里三七 電話六、一八六六番 金弘範 金用椿 金致正

營業種目 朝鮮石油會社製品(鶴印) 燈油、揮發油、機械油 軍用油脂類、一般礦油
朝鮮石油株式會社代理店
國境商事公司
天津日本租界秋山街八(花園街角) 電話代表二〇九二五番
本店 新義州本町四番地 電話代表八九〇番

株式會社 武齋洋行 天津日本租界山口街

遠東貿易公司
本店 天津日界浪速街二六ノ五 電話二、三〇五六番
支店 新鄉
李元華

韓重銓

營業種目 米、雜穀 食料品 等各種
丸一洋行 李斗煥 日界榮街二ノ七 電話二、五八七三番

軍手軍足 一月産二十萬足
朝鮮民會 授産場手袋部 電話二、五六五九番 李東根

竹村洋服店 李夏國 日本租界福島街四七 電話二、一〇二九番

天津タクシー 趙秉鍵 日租界山口街二九ノ三 電話(二)二六三一 (二)七三二番 河北(六)一七七六番

茂林公司 洋服部 海産物部 金錫福 黃潤松 日界榮街一ノ八 電話二、〇七四八番

內科 小兒科 花柳病科 ×光線科
×光線治療 太陽燈赤外線設備
中央醫院
醫師 李昌健
天津日界旭街九五ノ六 電話二、三五一五 二、二一七九番

カフエー上海 日界扶桑街一九

順天醫院 院長 俞珠鎔 副院長 李根培 旭街一七二ノ三 電話(二)三〇六七番

洪鍾煥

裵尙俊 電話二〇一九五番

慰◇安◇社◇交◇場

カフエー白河（本店） 日界旭街一九〇ノ一 電話二、二五五八番

社交係（女給）至急募集

金履泰

カフエー銀河（支店） 日界旭街一五六ノ二 電話二、三五一六番

カフエー喜樂 日界新壽街一四 電話二、一〇七八番 金定濬 金丙河

朝鮮醫院 日界榮街二ノ一 院長 金澤燮 電話二、三〇七四番

國際タクシー トラック部 日界大和街三二 尹致相 電話(二)四〇七五 (二)四〇七六番

朝鮮高等料理 天香園 印 正淳 天津日本租界旭街九五五 電話二、五一一八番

華北貿易公司 東洋タクシー 日界閘口大街三六 金若參

德源飯店 南市清和大街 主 鄭碩贊 電話(二)四〇一七 (二)四〇〇八番

朝日旅館 日界松島街二七ノ二七 電話二、〇六五一番

親切 叮嚀 平壤旅館 日界新壽街二ノ二 電話二、〇五九八番

大成旅館 主 洪贊福 天津驛前(特三區六緯路一六) 電話二、四七四六番

天津旅館 天津驛前 項家胡同 電話二、四一四〇番 主 俞濬

朝鮮旅館 日界蓬萊街一四四 主 曺錫斗 電話二、三四三二番

宿屋並貿易商 東天洋行 天津日本租界榮街二ノ三 崔景宜 電話二、三〇二七番

義州旅館 日界新壽街三四ノ四 主 金英琛

恒信旅館 天津日界秋山街七ノ五

三井旅館 主 朴敬善 北站新大路二 電話六、一八八七番

太平下宿 天津日界秋山街六ノ三 主 韓[illegible]奎

北津理髮器具商會 天津建物大街一八四 私書函天津局第九號 電話二、四二八九番 支店 北京西單闢才胡同四條九

長泰洋行 天津日租界宮島街二十一

東亞貿易公司 鄭致宗 大和街二ノ一 電話二、〇七八〇番

土産工藝品貿易 輸出入貿易 三和洋行 李起卿 天津日界淡路街七ノ四 電話二、一〇一六番

三福合名會社天津出張所 南市慎益大街 金準東 電話二、二九三番

和洋家具製作室內裝飾 林洋行 南市建物大街一〇七 電話二、四〇六一番 林承一

化粧品 德盛洋行 日界常盤街二ノ二 白敬淳

天一洋行 河北宇緯路五〇 電話六、一七〇二番

金山商店 天津日本租界春日街三六號 電話(二)四六七四番

大連食堂 主 林昌奉 日界蓬萊街一二ノ三 電話二、一七三九番

奉天食堂 天津市日租界蓬萊街十二ノ一 尹昌順

富貴胡同料組合

委託貿易 信昌商會 日界蓬萊街新津里九 電話二、三八〇三番